COSMOPOLITAN

KOREA

RULES OF WELL-AGING
디지털 디톡스, 홈 스파, 신년 계획표

WINTER BEAUTY NOTE
화이트 메이크업

ANOTHER COVER
야구 선수 김도영



2025 NEW EXPECTATIONS

새로운 기대 속 지녀야 할 애티튜드






THE REJUVENATING NIGHT CREAM
하루 밤 사이 내 피부가 느끼는 8가지 놀라운 변화*
리쥬비네이팅 나이트 크림
LA MER
lamerkorea.com #LaMerNightCream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501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75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051-810-4195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242-2088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38-608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415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309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37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6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66 AK PLAZA 분당점 031-781-8941 갤러리아명품관 WEST 02-3446-9022 갤러리아 타임월드 042-720-6191 갤러리아 광교점 031-5174-7149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13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051-745-2238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0-1265 대구 신세계백화점 053-661-1853 신세계 대전 Art & Science 042-607-8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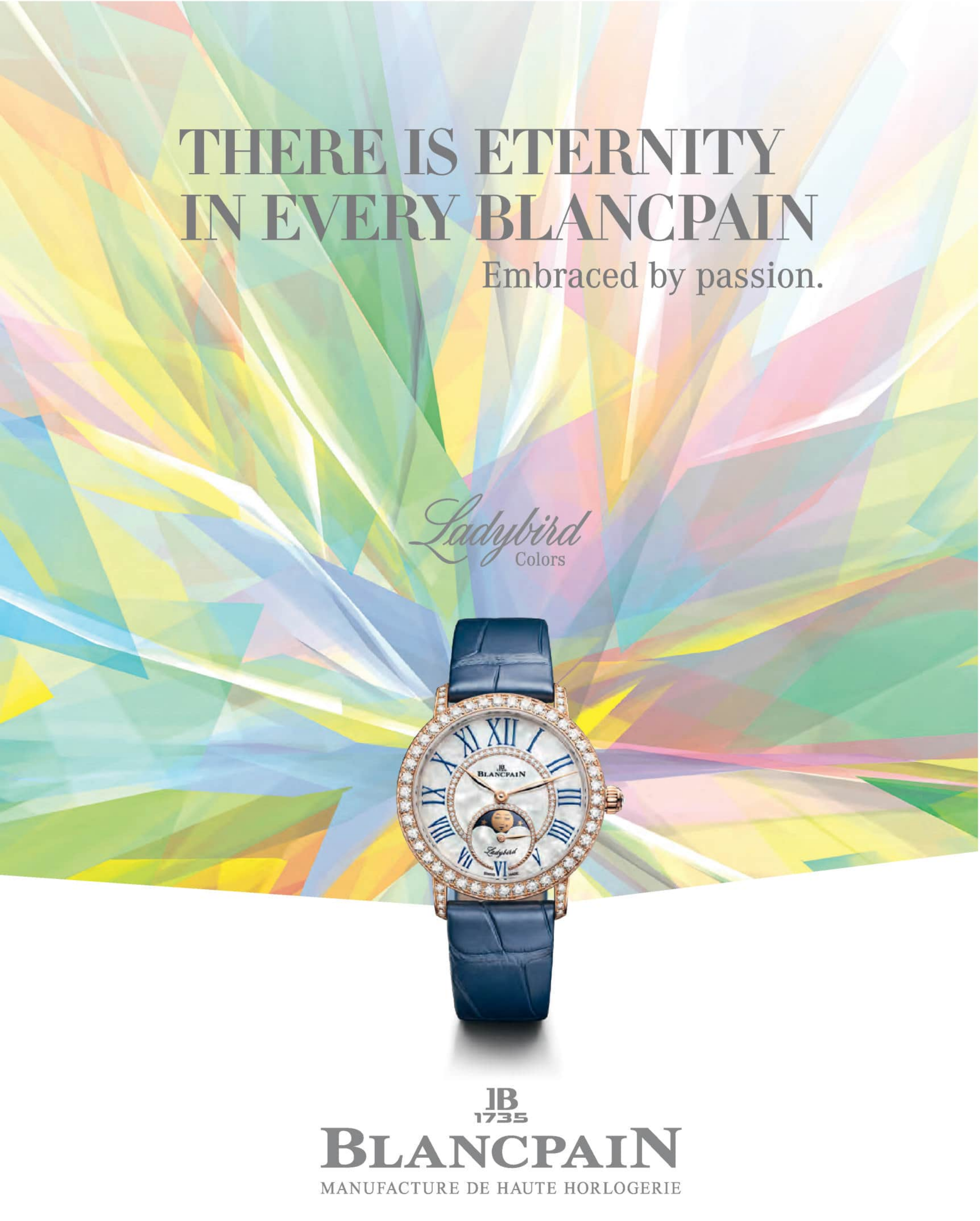


LA MER
THE REJUVENATING NIGHT CREAM
LA CRÈME DE NUIT RÉGÉNÉRATION INTENSE
97% 가 경험한
더욱 탄탄해진 피부4)
95% 가 경험한
밤사이 숙면한 듯한 피부 컨디션4)
95% 가 경험한
리프팅 효과2)
* 피부 탄력1), 리프팅되어 보이는 피부2), 수분 플럼핑3), 피부결1), 광채1), 매끄러워진 피부1), 피부 충전4), 부드러워진 피부1)
1) 아시아 여성 31명 대상, 제품 1회 사용 후 인체 적용 테스트 결과 2) 아시아 여성 116명 대상, 4주 간 제품 하루 2회 사용한 소비자 테스트 결과 3) 아시아 여성 122명 대상, 제품 1회 사용한 소비자 테스트 결과
4) 아시아 여성 122명 대상, 4주 간 제품 하루 2회 사용한 소비자 테스트 결과



A Ladybird is for eternity.

Crafted with the finest mechanical movements, the Ladybird reflects our trailblazing role in the history of feminine watches. It embodies our passion for the extraordinary.





JESSICA CHASTAIN wears the Mimosa Collection




LANVIN
BLANC

COSMOPOLITAN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가슴이 뜁니다. 운동, 다이어트, 공부, 여행, 결혼, 임신 등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더 나은 나를 꿈꾸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1월이 지나고 2월이 찾아와도, 눈에 띄게 달라진 나를 마주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쌓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 하루하루의 일상을 단단하게 채우는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새로운 해를 앞두고 한강의 시 '어느 늦은 저녁 나는'을 다시 펼쳐봅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단순하고 담백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웃음보다 슬픔이, 재미보다 걱정이 더 자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성공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고, 실패의 아픔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니까요. 행복도 슬픔도 결국에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은 2025년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여러분의 일상을 한층 빛내려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돼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호엔 '승리의 기운'을 전해주는 야구 선수 김도영의 커버 스토리부터 새해맞이 청소 화보 'Keep It Clean', 뷰티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새해 뷰티 계획을 담은 'New Year, New Beauty', 웰에이징에 대한 짧은 에세이, 디지털 디톡스 등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줄 다양한 기사를 많이 준비했으니, 꼭꼭 밥을 씹듯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2025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멋진 이야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editor-in-chief
JOOYEON KIM
@jooyeon_kiim



SKI COUTURE

뚜렷한 존재감으로 설원을 장악할 스키 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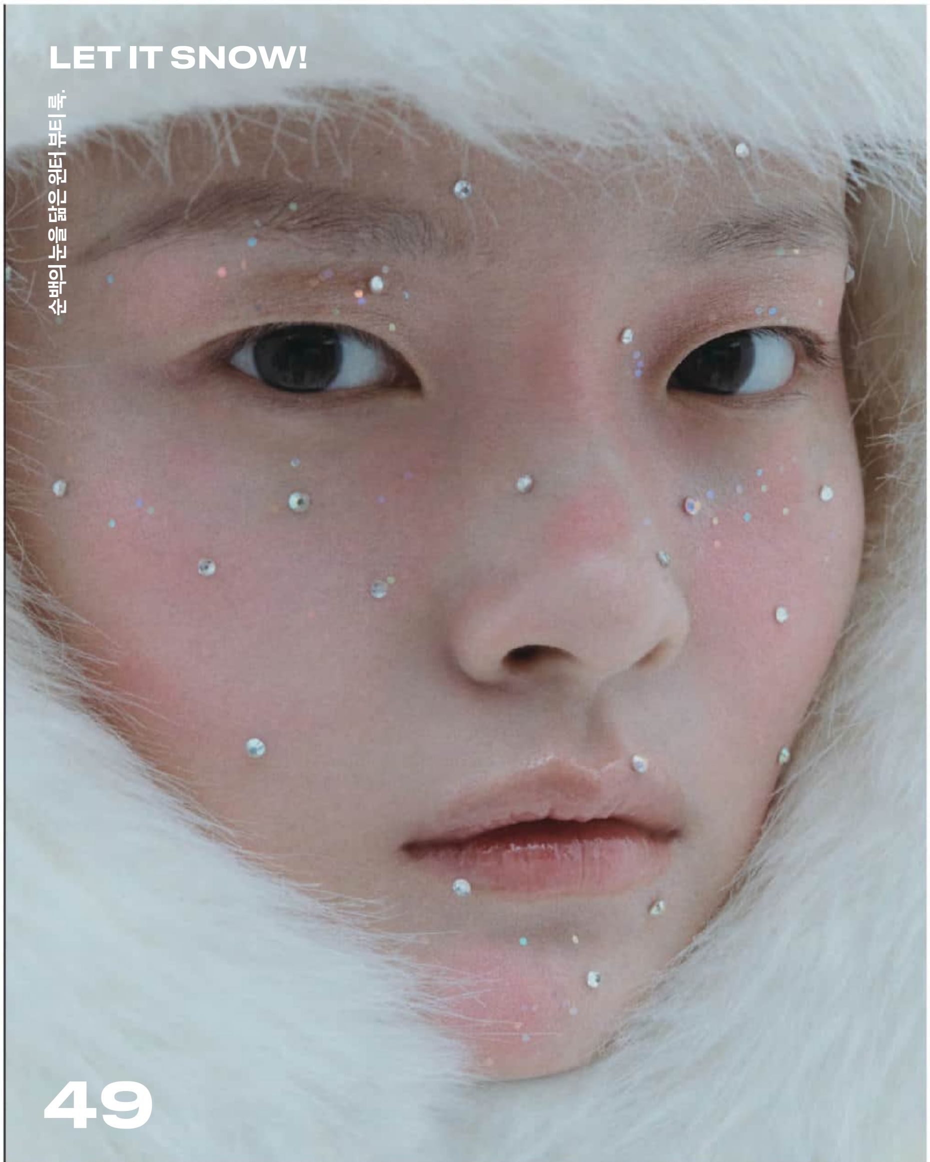
Fashion Editor 전소희
Feature Editor 김미나
Photographer 곽기곤
Hair & Makeup 이소연
Stylist 박태일
Set Stylist 이예슬
Assistant 강아형
Art Designer 변은지
Cooperation Hublot

Fashion Director 서지현
Photographer 김신애
Hair 홍현승
Makeup 박수연
Set Stylist 김경민
Assistant 강아형
Art Designer 변은지
Cooperation Gucci

104







FASHION

BEAUTY

SPORTS

CELEB

LIFE

IN EVERY ISSUE


LES FLEURS DE LANVIN PARIS
Sunny Magnolia
LES FLEURS DE LANVIN PARIS
Water Lily
LES FLEURS DE LANVIN PARIS
Blue Orchid
LES FLEURS DE LANVIN PARIS
Sweet Jasmine
LANVIN
PARIS

COSMOPOLITAN KOREA

EDITOR-IN-CHIEF
김주연(KIM JOO YEON kim.jooyeon@hll.kr)

FASHION
Director 서지현(SEO JI HYUN seo.jihyun1@hll.kr)
Editor 김소연(KIM SO YEON kim.soyeon5@hll.kr)
전소희(JEON SO HEE jeon.sohee@hll.kr)
Assistant 강아형

BEAUTY
Director 정유진(JEONG EU GENE jeong.eugene@hll.kr)
Editor 조해리(JO HAE RI jo.haeri@hll.kr)
Assistant 강다솔

FEATURES
Editor 천일홍(CHEON IL HONG cheon.ilhong@hll.kr)
김미나(KIM MEE NA kim.meena@hll.kr)
Assistant 이나라

DIGITAL ORIGINAL
Director 송예인(SONG YE IN song.yein@hll.kr)
Editor 송운하(SONG WOON HA song.woonha@hll.kr)
최아름(CHOE AH REUM choe.ahreum@hll.kr)
정혜미(JEONG HYE MI jeong.hyemi@hll.kr)
PD 이윤재(LEE YOON JAE lee.yoonjae@hll.kr)
Oap 이수하(LEE SU HA lee.suha@hll.kr)
Assistant 김문영

BUSINESS TEAM(AD)
Leader 황승현(HWANG SEUNG HYUN hwang.seunghyun@hll.kr)
박명상, 이재성, 김민호

MARKETING & DIGITAL TEAM
Leader 한예슬(HAN YE SEUL han.yeseul@hll.kr)
김현지, 정아민, 김세란

PROOFREADER
Copyedit 하혜숙(HA HYE SUK), 김보영(KIM BO YOUNG), 노영아(ROH YOUNG AH)
Correct 도진희(DO JIN HEE), 이연숙(LEE YEUN SUK)

HEAD OF COSMOPOLITAN BU
임용규(LIM YONG KYU lim.yongkyu@hll.kr)

HEARST MAGAZINES INTERNATIONAL
PRESIDENT OF HEARST MAGAZINES INTERNATIONAL **JONATHAN WRIGHT**
SVP/GLOBAL EDITORIAL & BRAND DIRECTOR **KIM ST. CLAIR BODDEN**
GLOBAL EDITORIAL & BRAND DIRECTOR **CHLOE O'BRIEN**

INTERNATIONAL EDITIONS
Australia, Bulgaria, Czech Republic, France, Germany, Hong Kong, India, Indonesia, Italy, Mexico, Middle East, Netherlands, Philippines, Slovenia, Spain, Taiwan, Türkiye,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코스모폴리탄 한국판 2025년 1월호 12월 20일 발행
제26권 1호 통권 293호


MARITHÉ
PARIS 1972

COSMOPOLITAN KOREA

ART

Director **변은지**(BYUN EUN JI byun.eunji@hll.kr)
Designer **장석영**(JANG SEOK YOUNG jang.seokyoung@hll.kr)
김지은(KIM JI EUN kim.jieun6@hll.kr)
김지수(KIM JI SU kim.jisu5@hll.kr)
진남혁(JIN NAM HYUK jin.namhyuk@hll.kr)
민경원(MIN GYEONG WON min.gyeongwon@hll.kr)
Contributing Designer **김지원**

CREATIVE
MANAGING DIRECTOR & VISUAL LAB
Leader **오주희**(OH JU HEE oh.juhee@hll.kr)

VISUAL LAB
전근영, 조예슬, 강연수

MEDIA LAB
Leader **김지후**(KIM JI HU kim.jihu@hll.kr)
안혜미, 김아라, 송유정, 조윤서, 김효정, 김영서, 김성재, 김희수, 이란영, 김영아

BUSINESS SUPPORT OFFICE
Managing Director **김태근**(KIM TAE GEUN kim.taegeun@hll.kr)

OPERATIONS SUPPORT TEAM
Leader **송치훈**(SONG CHI HOON song.chihoon@hll.kr)
최종석, 최정우, 지혜빈, 고서영, 심동률, 김상현, 이혜인, 서민희

PLATFORMBIZ TEAM
Leader **우광채**(WOO KWANG CHAE woo.kwangchae@hll.kr)
손경희, 김창훈, 천영권, 김지수, 이란령, 윤준희

DIGITAL STRATEGIC OFFICE
Managing Director **주영희**(JOO YOUNG HEE joo.younghee@hll.kr)

DIGITAL MEDIA TEAM
Leader **박광수**
김서영, 한이랑, 김유정, 김어진, 류정, 지승연, 이현진, 유호성, 이연지

IT SERVICE TEAM
Leader **박가영**(PARK GA YOUNG park.gayoung@hll.kr)
이관희, 김효진, 김경준, 박지우

MANAGEMENT SUPPORT DEPT.
General Manager **홍순철**(HONG SOON CHUL hong.soonchul@hll.kr)

MANAGEMENT PLANNING TEAM
Leader **김택순**
Global Director **김윤상**
이보람, 김은지, 나지은

HR TEAM
Leader **이유미**
배선혜, 정슬아, 최상호, 이지료, 김재연, 이혜진, 김준희

FINANCE TEAM
Leader **송한우**(SONG HAN WOO song.hanwoo@hll.kr)
최혜미, 설종우, 이유진, 최유나, 박광렬, 송미경, 황현순, 최진웅, 황세연, 정하은, 문지수, 박소현, 최정욱

HEAD OF MAGAZINE BUSINESS DIVISION
석종필 (SUK JONG PILL suk.jongpill@hll.kr)

HEARST JOONGANG & HLL CEO
강주연(JULIA JU YEON KANG)

등록번호 강남, 라 00534 **발행처** 허스트중앙(유) HEARST_JOONGANG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9층 | 9F, 156, Dosan-daero, Gangnam-gu, Seoul, Korea | Editorial Dept. **편집 문의** kim.jooyeon@hll.kr | Advertising Dept. **광고 문의** hwang.seunghyun@hll.kr | Sales Dept. **판매 문의** woo.kwangchae@hll.kr | Subscriptions Dept. **정기 구독 문의** hearstjoongang_privacy@hll.kr | **인쇄처** 프린피아 | **분해·제판** 덕일컬러

HLL associated with studio닷 eyesJoongAng SUBLIME


L'ORÉAL
PARIS
ELSEVE
TOTAL REPAIR 5
INSTANT MIRACLE
DAMAGED HAIR
Extraordinary OIL
CHERRY WOOD
로레알파리
손상케어 듀오
가까운 OLIVE YOUNG 에서 만나보세요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1억1천7백만원
Bvlgari.



GREEN EYES

푸른 눈의 뱀에 깃든 변치 않는 아름다움.

editor JO HAE RI, KIM SO YEON/art designer BYUN EUN JI/photo by LEE HO HYUN/assistant KIM JI EUN

One&Only Kristin

원앤온리 시리즈

#하파크리스틴 시그니처



Hapa Kristin®

(왼쪽부터)엑스트라 컬러 샤인 서울 블렌드 4만9천원대 **Bobbi Brown**. 디올 어딕트 립 글로우 #074 젤리 5만원대 **Dior Beauty**.



TINT TOUCH

촉촉하게 깨어나는 입술 위에 남겨진 부드러운 색감의 여운.



3CE
STYLENANDA
포근한 캐시미어의 감촉, 입술을 부드럽게 끌어안는
3CE CASHMERE LIPSTICK

SNOWBOUND

슬로프부터 리얼웨이까지 아우를 다운 재킷.



트레벨린 재킷 4백99만원
Moncler Grenoble.


792
HOTEL Dawson
BE YOU
SELF RULE
HOTEL DAWSON

ONE &ONLY CONTENTS

같이 볼래? <코스모폴리탄>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필수!

COSMOPOLITAN ORIGINAL CONTENTS

Watch it all! 셀렙부터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까지 통통 튀는 코스모의 오리지널 콘텐츠.



COVER STORY 김도영
화보도 잘 찍는 야구 선수 실존. '푸른 산호초' 무대 비하인드와 스레드의 행방, 드레스 코드 못 들은 이슈 등 궁금할 만한 점만 쏙쏙 물어본 인터뷰 공개! 입덕 문 활짝 엽니다~.



FFF 가비
퀸가비 말고, 진짜 '가비'는 어떤 사람? 가비가 생각하는 자신을 대표하는 5가지 키워드부터 요즘 꽂혀 있다는 최신 어록까지, 웃음 보장 가비에게 배우는 찐 퀸의 마인드, 놓치지 말자!



코스모 브이로그
<코스모폴리탄> 뷰티 에디터와 PD의 하파크리스틴과 함께한 마이애미 출장 브이로그! 미국 핫플, 도시 마이애미에서 만난 셀렙들과 함께 K-뷰티에 열광하는 생생한 현장을 브이로그로 담았다.



톡톡 이제훈
눈부신 <코스모폴리탄 샤인>의 커버 스타! 이제훈에게 최애 극장과 추천하는 영화까지 다 물어봤다. 애착 LP 가져와 달라고 했더니 한 보따리 가져온 것은 안 비밀. 엔딩 '속' 하트 릴레이도 놓치지 마세요!

art designer KIM JI WON

PUFF PUFF PUFF!

캐주얼함과 우아함, 스포티함까지 고루 갖춘 패딩 아이템.

EDITOR KIM SO YEON PHOTOGRAPHER KIM MIN JU



DOUBLE PADDED

보온성도, 스타일도 2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두께가 서로 다른 다운 재킷을 겹쳐 입는 것이다. 얇은 패디드 베스트에 볼륨 있는 다운 재킷을 레이어드하는 식. 컬러를 통일하면 스포티한 패딩으로도 충분히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작은 패턴을 활용해 무거운 느낌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

다운 재킷 모두 가격미정 **Dior**. 버뮤다팬츠 1백86만원 **Dolce&Gabbana**. 목걸이 가격미정 **Marc Jacobs**.

art designer KIM JI EUN

BE UNIQUE

누구보다 스타일리시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그 자체로 룩에 포인트가 돼주는 독특한 디자인의 다운 재킷이 답이다. 질 샌더의 케이프 퀼트 다운 재킷, 바퀘라가 선보인 과장된 실루엣의 벨티드 재킷 등 2024 F/W 컬렉션에 다양한 선택지가 실려 있다. 실용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탈착 소매와 기하학적인 퀼트 패턴을 더해 은은한 재미를 준 몽클레르의 아이디어도 빛난다.

퀼트 다운 재킷 가격미정, 셔츠 1백8만원 모두 **Moncler × Willow Smith**. 패딩 부츠 31만원 **Moon Boot by Boontheshop**. 브리프 에디터 소장품.





LIGHT & LEAN

무겁고 두꺼운 아우터가 답답할 땐 다운 베스트와 푸퍼 스커트에 눈을 돌려보자. 활동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슬림한 겨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쇼트 패딩과 미니스커트의 조합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장 쉬운 공식. 다운 베스트 안에는 뭘 입어야 하냐고? 고민할 필요 없다. 티셔츠는 물론 후디, 셔츠, 포멀한 블레이저 재킷까지 모두 잘 어울리니까! 특히 슬림한 핏의 이너라면 스타일의 강약을 조절하기 한결 쉽다.

다운 베스트 19만9천원, 다운 미니스커트 15만9천원 모두 **New Balance**. 이너 톱 가격미정 **Marine Serre**. 스니커즈 가격미정 **New Balance × Miu Miu**. 니삭스 에디터 소장품.

PINPOINT

아직도 '얼죽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패디드 액세서리는 어떨까? 백과 슈즈, 머플러 등으로 룩에 앙증맞은 포인트를 더해보자. 크기는 앙증맞을지언정 패딩 특유의 볼륨이 주는 존재감은 묵직하다. 작지만 강력한 아이템인 만큼 베이식한 니트 톱이나 데님, 코트 등 클래식한 룩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니트 톱, 패딩 머플러 모두 가격미정 **Jil Sander**. 데님 팬츠 가격미정 **Loewe**. 플랩 백 가격미정 **Maison Margiela**.





DRESS UP!

다운 재킷을 그저 스포츠 룩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2024 F/W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을 꾀했으니까. 샤넬은 데님 소재에 '까멜리아' 브로치를 더한 다운 재킷을, 이자벨 마랑은 레더 소재의 패디드 재킷을 선보이며 다운 재킷도 우아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트위드처럼 클래식한 소재의 패딩에 톤을 맞춘 이너와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더하면 퍼 코트 못지않게 드레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C

트위드 다운 재킷 1백92만원대 **Khrisjoy**. 후드 재킷, 마이크로 쇼츠, 로고 체인 백 모두 가격미정 **Chanel**. 슬링백 1백51만원 **Dolce&Gabbana**.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MODEL 박서희
HAIR 홍현승
MAKEUP 임정은
ASSISTANT 강아형

TREND SCAPE 2025

뜨는 해와 함께 새해를 여는 7가지 빅 이슈. EDITOR **SEO JI HYUN, KIM SO YEON**



1

1

인사이동_최종판.docx 최근 패션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는 단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대거 이동이다. 칼 라거펠트의 오른팔로도 불리던 버지니 비아르가 샤넬 디렉터직에서 물러난 후 새 수장에 대한 소문만 무성할 때, 마티유 블라지가 돌연 보테가 베네타에 작별을 고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곧이어 보테가 베네타는 까르뱅의 루이스 트로터를, 샤넬은 마티유 블라지를 새로운 아티스틱 디렉터로 임명해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이뿐인가. 7년간 셀린느를 이끈 에디 슬리먼이 떠나고 피비 필로의 '올드 셀린느' 시절을 함께했던 마이클 라이더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에디 슬리먼이 셀린느에 합류했던 초반 에디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녹여내며 찬반 논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올드 셀린느의 모습을 되찾을지, 혹은 마이클 라이더만의 개성으로 채워질지 기대를 모으는 중! '드리스 반 노튼 없는 드리스 반 노튼'은 33세의 젊은 디자이너 줄리안 클라우스너를 발탁했다. 2018년부터 드리스와 함께했던 그는 "드리스가 남긴 모든 것을 존중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하기도. 오는 3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공개될 지방시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26년간 알렉산더 맥퀸에서 보여줬듯 강렬하고도 섬세한 테일러링이 특기인 사라 버튼이 메종의 두 번째 여성 쿠튀리에가 됐으니까. 이토록 거대한 패션계 지각변동은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다.

1 마티유 블라지는 '넥스트 칼 라거펠트'가 될 수 있을까? **2** 피비 필로의 '올드 셀린느' 시절을 함께했던 마이클 라이더가 셀린느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임명됐다. **3** 지난 26년간 알렉산더 맥퀸을 이끌었던 사라 버튼이 지방시를 맡았다. **4** 드리스 반 노튼의 뒤를 이을 줄리안 클라우스너. **5** '뉴 보테가' 챕터 3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루이스 트로터.



2



3



4



5



LOEWE



1



DIOR

2



2

3

4

1 가격미정 Chloé.
2 가격미정 Jil Sander.
3 가격미정 Bottega Veneta.
4 3백71만원 Khaite.



PRADA

BUY IT NOW 올해를 책임질 백과 슈즈를 소개한다. 바로 얇고 기다란 실루엣의 닥스훈트 백과 복서 스니커즈다. 가로 폭이 높이보다 훨씬 길어 '이스트웨스트' 백이라 칭하기도 하는 닥스훈트 백은 독특한 비율 덕에 별다른 디자인 요소 없이도 룩에 포인트가 된다. 수납력이 뛰어나고, 가방 속 물건을 찾을 때 뒤적일 필요도 없으니 편리하기까지! 슈즈 또한 슬림한 라인의 복서 스니커즈가 디올, 로에베, 스텔라 맥카트니 등 2025 S/S 컬렉션을 채웠다. 디올은 스포티 룩에, 로에베는 페미닌한 플라워 드레스에 매치해 쿨한 룩을 선보였다. 편안함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점도 복서 스니커즈의 매력. 이번 시즌 런웨이 곳곳에서 스타일링 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HERMÉS

1 클러치 백 86만원대 Simone Rocha.
2 토트백, 스케이트 보드 모두 가격미정 Louis Vuitton. 3 핸드백 가격미정 Coperni.
4 빈백 각각 1천만원대 Bottega Veneta.
5 미니백 9백86만원 Jimmy Choo.



2



3



4



COACH



1

무해해 2025 S/S 컬렉션이 한창이던 밀라노. 보테가 베네타의 마티유 블라지는 객석에 벤치 대신 동물 의자를 설치했다. 이어서 열린 쇼에 대해 "완벽하게 옷을 입혀 학교에 보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을 상상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 룩 곳곳엔 토끼 패턴, 개구리 브로치 등 어른의 옷을 입은 아이 같은 요소가 숨겨져 있었다. 같은 기간 파리 디즈니랜드에선 코페르니가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줄세우며 동화 같은 런웨이를 선사했다. 뉴진스의 단짝으로 더 익숙한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는 최근 23년 만에 돌아온 루이 비통과의 협업 에디션 및 애니메이션을 공개하기도. 수요 없는 공급은 없듯 키덜트 패션은 만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무한 확장 중이다. 전쟁과 경제난, 위협받는 민주주의 등 불안하고 어수선한 현실에서 순수하고 해맑았던 동심을 찾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ASHLEY WILLIAMS



LOUIS VUITTON

5





PANTONE®

Mocha Mousse

모카 무스 한잔이요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에 오랜만에 시도해봄직한 색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모카 무스. '일상 속 즐거움에 대한 갈망, 사려 깊은 만족감, 겸손하고 클래식한 매력'이라는 설명에서 불현듯 '베리 드뮤어~'한 마음가짐이 떠올랐다. 복잡한 시국에서 벗어나게 될 그때, 드리스 반 노튼의 모카 무스 실크 웨어를 갖춰 입고 차분한 기분을 만끽해볼 예정.



청판이 대세 럭셔리 워치업계의 시곗바늘은 수년째 거꾸로 돌아가는 중. 빈티지 디자인의 복각, 옐로 골드의 부활, 다운사이징 등 클래식한 외관 속에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활발해진 것이다. 흐름을 탄 건 블루 다이얼이다. 혜성같이 등장한 형형색색 다이얼과 달리 오래 사랑받아온 베이식 컬러인 만큼 안전한 선택으로 꼽히는 데다, 럭셔리 워치의 소비층이 어려진 영향도 한몫했다. 엔트리 레벨로 적합한 스틸 소재가 급부상하고 극적인 경량성의 티타늄 소재가 각광받으면서 두 '쇠맛 나는' 소재와 쿨한 블루 다이얼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전설적인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의 역작인 인제니어의 귀환을 알린 IWC는 새해 블루 다이얼을 라인업에 추가했다. 레트로한 디자인을 계승한 스틸 케이스와 필연적인 만남일 수밖에.

5



코스모 뉴 페이스 보석함

1 Noor Khan @darthnoor 중성적인 페이스가 매력적인 누르 칸은 프라다 2025 S/S 컬렉션의 오프닝을 장식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파리에선 생 로랑의 러브콜을 받고 2025 S/S 쇼에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 Alice McGrath @alice_mcgrath_ JW 앤더슨의 2024 S/S 컬렉션으로 데뷔한 아일랜드 출신의 앨리스 맥그라스. 세계적인 에이전시인 IMG 모델 소속으로, 데뷔하자마자 디올의 2024 S/S 컬렉션의 오프닝까지 맡으며 승승장구 중이다.

3 Woo Song Ah @vanilla_canola 2025 S/S 런웨이에서 본 반가운 얼굴! 한국 모델 우성아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돋보인다. 미우미우, 끌로에, JW 앤더슨 등 총 18개의 빅 쇼에 서며 모델스닷컴의 '뉴커머'에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얼굴이니 기억해두자.

4 Ajus Samuel @ajussamuel 확신의 '생 로랑상'! 2024 S/S 컬렉션의 글로벌 독점 모델로 시작해 최근 2025 프리폴 컬렉션까지, 계속해서 생 로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주스 사무엘. 시원시원한 프로포션만큼 아동 복지와 관련된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이라고.

5 Jiahui Zhang @jiajiahui_zhang 구찌가 '찜'한 모델? 중국 태생의 지아후이 장은 구찌 2024 S/S 컬렉션 독점 계약으로 데뷔하며 2025 S/S 컬렉션에서도 얼굴을 비쳤다. 구찌 외에도 질샌더, 케이트 등 여러 런웨이에 오르며 모델스닷컴의 '뉴커머'로 선정되기도.

BOHEMIAN vs SPORTY



7

BOHO or ACTION! 지난여름 '브랫'이 휩쓸고 간 자리를 넘보는 많은 키워드 중 대세는 2가지로 좁혀진다. 바로 보헤미안과 스포티 스타일. 미리 살펴본 2025 S/S 컬렉션에는 '추구미' 대척점에 선 두 키워드의 인기를 입증하는 룩들이 앞다퉈 쏟아졌다. 먼저 F/W 시즌의 전유물과 같던 보헤미안 스타일이 새해 초반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프린지를 장착한 스웨이드와 에스닉 프린트를 더한 시폰 소재, 어스 컬러 등 보헤미안 스타일을 정석대로 풀어낸 점이 눈에 띈다. 즉 알던 대로, 하던 대로 보헤미안 무드 아이템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 스타일의 완성도는 높아진다는 말. AI 빅데이터 기반 트렌드 예측 기관인 휴리텍 역시 여성복의 스웨이드 사용이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것이며, 스웨이드가 보헤미안 스타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한다. 한편 스포츠와 패션이 오랫동안 영감을 주고받았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과 스타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올해는 요가나 발레처럼 정적인 운동부터 테니스, 바이크, 수영 등 격한 운동까지, 전 종목을 아우르는 액티브웨어가 넘쳐난다. 공통점은 장난기 어린 컬러 팔레트. 그리고 운동복의 변형 대신 일상복에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편을 택했다는 점. 탱크톱에 테일러드 팬츠를, 스윔웨어를 재킷과 연출한 구찌와 아티코가 좋은 예다. C

art designer JIN NAM HYUK/photo by BRAND, GETTY IMAGES, INSTAGRAM, IMAXtree.com

세상에 없던 옷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빛바랜 것들'에 주목한 브랜드 지용킴(JiyongKim). 디자이너 김지용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방식.

EDITOR **KIM SO YEON**

축하합니다. 2024년 20회를 맞이한 삼성패션디자인펀드(이하 'SFDF')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아직도 얼떨떨해요.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상을 기념해 비이커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2025 S/S 컬렉션을 전시했어요. 국내에서 여덟 번째 전시인데, 유독 전시를 통해 컬렉션을 선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지용킴만의 독창적인 선블리치(Sun-Bleach) 기법을 제대로 보여주기엔 전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저희 제품이 창의적인 패턴 워크와 실루엣, 입어봐야 알 수 있는 디테일이 많아요. 그래서 패션쇼보다는 직접 착용해볼 수 있는 전시를 고집하고 있죠. **이번 전시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난 전시와의 차별점을 고민했어요. 제작 과정을 담은 패션 필름을 만들어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디자인의 재킷을 일렬로 걸어놓음으로써 멀리서 보면 똑같은 옷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선블리치에 의해 모두 다른 옷이란 걸 보여주고자 했어요. **선블리치는 지용킴의 시그너처예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학생 시절 다양한 룩을 입어보고 수집했는데, 결국 그 끝은 오리지널 빈티지였어요. 오래된 옷



들은 누군가가 남긴 삶의 흔적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 옷에 배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되죠. 이런 점이 매력적이어서 빈티지에 빠졌고, 언제나 낡거나 버려진 것들을 좋아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학사 졸업 작품으로 남들과 다른 걸 생각하다가 선블리치를 선보이게 됐어요. **그 졸업 작품으로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죠.** 도쿄의 편집숍인 GR8에서 졸업 컬렉션 전부를 바잉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브랜드 론칭을 하게 됐어요. 그 후로 10 꼬르소 꼬모 서울, 도버 스트리트 마켓, 에이치로렌조, 에센스 등에 입점하게 됐죠. **선블리치는 햇빛에 옷이나 원단을 직접 노출시켜 탈색하는 기법인 만큼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산량을 맞추나요? 제작 과정이 궁금해요.** 맞아요. 날씨나 계절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자연의 힘만으로 탈색시키다 보니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려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과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이라 가능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 빠르게 해결되니까요.(웃음)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저만의 방식을 터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쌓였군요.** 네. 최근에는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선블리치는 어두운 컬러를 밝게 만드는데, 염색이 안 된 밝은 생지 원단도 선블리치가 가능한 걸 보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선블리치뿐 아니라 지용킴의 옷은 '잘 만든 옷'이라는 게 느껴져요. 핏이나 디테일 등 흠잡을 게 없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나요?** 모든 요소를 중요시해요. 원단의 색감, 텍스처, 패턴도 모두 직접 개발하며 완벽한 디테일 요소까지 고려해 옷을 완성합니다. **그동안 SFDF 수상, 2024 LVMH 프라이즈 세미파이널리스트 등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옷에 대한 넘치는 열정이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옷을 정말 좋아했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저와 함께하는 팀이 있으니 탄력도 붙었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와 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에요. **일본 문화복장학원과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을 졸업했어요. 두 도시에서 어떤 걸 배웠나요?** 도쿄에선 잘 만들어진 옷을 보는 안목을 키웠고, 런던에선 취향을 내세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도쿄에서는 일러스트 하나를 주면 자 하나만으로 패턴을 그리는 시험을 쳤고, 3cm 안에 스티치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검사했어요. 반대로 런던에선 옷의 마감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개성을 패션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했죠. **메종 미하라 야스히로, 르메르, 루이 비통에서 어시스턴트로 경력을 쌓기도 했어요. 대단한 디자이너들과 일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미하라 야스히로와는 빈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시스턴트로 시작했지만 인정받아 빈티지 피스를 분해해 재탄생시키는 '모디파이드' 라인을 도맡아 디자인했죠. 버질 아블로가 수장인 당시 루이 비통은 매우 실험적이었어요. 연을 만들기도 하고, 가방을 여러 개 붙여 옷을 만들기도 하고 꽃으로 모자를 만들기도 했죠. 지금의 저였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어시스턴트로서의 대화밖에 못 나눠본 게 너무 아쉬워요. **지용킴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작업물에서 영감을 얻는 편은 아니에요. 길을 지나다 마주치는 것들, 의도되지 않은 날것의 무언가에서 주로 영감을 받고 저만의 아이디어로 발전시키죠.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학 당시 자주 느낀 건데, 한국인은 뚜렷한 고유의 캐릭터나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본 친구들은 그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봉제 잘할 것 같다, 섬세할 것 같다, 패턴 잘할 것 같다는 이미지로 포장돼요. 그런데 한국인은 '뭐든지 다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다 정도? LVMH 프라이즈에서도 한국인 심사위원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워요. **일종의 책임감일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모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당연해요. 내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강연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해요. 오늘 인터뷰 후에도 SADI에서 수업이 있는데, 개성도 뚜렷하고 잘하는 학생이 많아서 기뻐요. **지속 가능성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예요.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초반에는 빈티지 원단을 활용했어요. 공연장에서 사용하던 대형 커튼으로 옷을 만들거나 벼룩시장에서 가져온 단추를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패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각자 방식대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지용킴이 정의한 지속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브랜드 그 자체가 지속성에 대한 노력인 것 같아요. 선블리치는



오로지 태양의 빛으로 만들기 때문에 염색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없어요. 리사이클 소재 사용을 넘어 지용킴의 옷을 보며 빛바랜 옷도 멋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또 지용킴으로 인해 또 다른 가치 창조나 아이디어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면 그것이 진짜 지속가능성이 아닐까요? 이런 인식의 변화는 다른 차원의 지속 가능 패션을 위한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용킴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군요. 짧은 미래에 계획 중인 일이 있나요?** 사실 한남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준비 중이에요. 아마 4월쯤이 될 것 같네요! C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KIM SU JIN

가격미정 **Celine by Hedi Slim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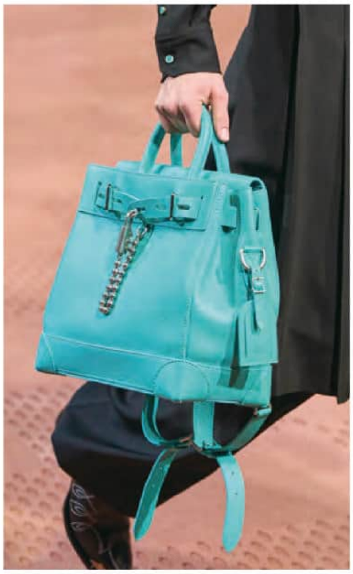
WARM & TENDER

시린 손을 주머니에 쏙 넣게 해주는 백팩, 따뜻한 촉감의 스웨이드 백. 우리가 사랑하는 겨울 가방들.

EDITOR **SEO JI HYUN**

BACKPACK

미끄러운 패딩에서 흘러내린 숄더백을 고쳐 메고, 토트백을 쥐다가 손이 꽁꽁 어는 경험. 옷차림이 두꺼워지는 겨울이면 한 번쯤 겪어봤을 일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핸즈프리' 아이템, 특히 백팩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원 숄더 디자인과 패턴 플레이 등 2024 F/W 맨스 컬렉션엔 여자도 탐낼 만한 백팩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때마침 등장한 트리옹프 클로저를 곱게 새긴 셀린느 백팩과 아이코닉 요소를 집약한 샤넬, 클래식 디자인을 복각한 루이 비통의 백팩은 실용의 영역을 넘어 스타일에 활기를 더하기에 손색없다.



LOUIS VUITTON



EMPORIO ARMANI



가격미정.

CHANEL



DIOR MEN



4백35만원.

LOUIS VUITTON



FENDI

SUEDE BAG

단단한 면을 제거해 실루엣이 유연한 스웨이드 백은 울 코트, 퍼 재킷, 니트 톱과 데님 팬츠 등 빳빳하고 몸집이 큰 룩에 '착' 감기는 매력을 지녔다. 겨울옷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꾸안꾸' 분위기 내기에 제격인 이 백의 또 다른 장점은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질감. 2024 F/W 시즌엔 머스터드 옐로, 레드, 캐멀 등 온화한 컬러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프린지와 스터드, 아일릿 펀칭 등 스웨이드의 단짝인 웨스턴 무드 백도 다수를 이룬다. 가죽 파이핑과 앤티크한 로고 장식으로 레트로 분위기를 극대화한 구찌의 톱 핸들 백도 눈여겨보자. **C**



MOSCHINO



BOTTEGA VENETA



6백65만원.

ROGER VIVIER



가격미정.

ISABEL MARANT



MIU MIU



PRADA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LEE HO HYUN(제품), IMAXtree.com(런웨이)/assistant KANG AH HYOWUNG

가격미정 **Gucci**.

Lucky Charms



차곡차곡 돌을 쌓고 쌀알로 희망을 점친다.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빌며.

Fashion Editor SEO JI HYUN Photographer PARK JAE YONG



THIS PAGE (위부터)캘세더니, 튀르쿠아즈, 블루 런던 토파즈, 아주라이트 말라카이트를 카보숑 세팅한 빵 드 쉬크르 링 사이즈 및 다이아몬드 세팅에 따라 가격 상이 모두 **Fred**.

OPPOSITE PAGE 핑크 사파이어 센터 세팅의 에뚜왈 드 방 네크리스 2천1백만원 **Dior Joaillerie**. (위부터)언밸런스 디자인으로 이뤄진 꼬메뜨 이어링 1천6백30만원, 스터드와 드롭 타입으로 변형 가능한 꼬메뜨 이어링 1천7백60만원 모두 **Chanel Fine Jewelry**.



남양 흑진주와 다이아몬드 세팅이 우주의 행성을 보는 듯한 오로라 네크리스, 일렁이는 파도를 표현한 서지 이어링 모두 가격미정 **Tasaki**.



풍요의 상징인 금붕어를 화사한 그러데이션으로 표현한 친친 네크리스 가격미정 **Qeelin**.



회전하는 중앙의 디스크가 화려함을 배가하는 포제션 브레이슬릿 5천1백15만원 **Piaget**. 루비를 감싼 다이아몬드의 섬세한 세팅이 돋보이는 미모사 링 1천76만원 **Damiani**.



art designer KIM JI WON/set stylist KIM KYUNG MIN

행복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4개의 꽃잎을 형상화한 피오레버 링 3천80만원 **Bvlgari**.

A WHOLE DIGITAL WORLD

웹사이트부터 인스타그램, X, 스레드, 페이스북까지!
<코스모폴리탄>이 전하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디지털 이슈.

COSMOPOLITAN DIGITAL CONTENTS



GOSMO
박보검이랑 하트한 사람? 바로 코스모!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오픈을 기념해
글로벌 앰배서더로 두둥등장!



에디터출첵
지금 핫한 곳, 에디터가 대신 출석
체크해드립니다. 1인칭 시점 생생한 리뷰,
이번엔 연남동에 떴다!



CELEB
<코스모폴리탄>이 만난 이달의 셀렙은?
새로 오픈한 펜디 부티크에서 만난
유우명한 강아지 아이브 안유진!



COSMO ISSUE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해! 요즘 가장
HOT한 이슈만 쏙! 쏙! 골라 전달하는
코스모의 발 빠른 뉴우-스.

art designer KIM JI WON

BEAUTY

순백의 눈을 담은 윈터 뷰티 룩.

EDITOR JO HAE RI PHOTOGRAPHER YANG JOONG SAN



퍼 발라클라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LET IT SNOW!

SNOWLITGHT SPARKLE

흰 눈꽃이 내려앉은 듯 반짝이는 글리터 메이크업. 먼저 흰색 컨실러를 얇게 발라 뽀얀 피부 톤을 연출한다. 블렌딩이 쉬운 핑크색과 흰색 크림 블러셔를 브러시에 묻혀 부분적으로 그러데이션하면 설원에서 자연스레 붉어진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입자가 큰 오팔빛 글리터를 눈두덩과 애플존, 턱 끝에 터치한 뒤 큐빅을 얼굴 전체에 불규칙적으로 붙여 영롱한 눈꽃을 더해보자. 입술에는 펄감이 없는 글로스를 얇게 바른 뒤 입술산에 한 번 더 덧발라 투명감을 주면 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art designer JANG SEOK YOUNG



레이스 드레스, 타이츠 모두 가격미정 **Push Button.**

WINTER FAIRY

설경을 닮은 고요한 반짝임이 두 눈에 번졌다. 신비롭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 화이트 컬러 파운데이션을 눈두덩부터 이마로 퍼지듯 바르고, 눈 언더라인과 콧잔등까지 자연스레 이어준다. 그다음 은빛 크림 섀도를 눈두덩과 콧대, 애굣살에 부분적으로 바른 뒤 투명 글로스를 올려 룩에 텍스처를 더해보길. 거친 느낌의 메탈릭한 질감을 강조할 수 있다. 눈매는 아이라인과 마스카라 모두 생략하되 언더라인만 그려넣고 입술은 누디한 컬러로 마무리했다.



레더 퍼 코트 1백30만원대 Gabriela Hearst.

ICY AURORA

겨울 하늘처럼 푸른빛을 띠는 시머한 화이트 섀도를 눈두덩과 애굣살 중앙에 얹은 뒤 보랏빛 하이라이터를 코끝에 발라 오묘하게 빛나는 아이시한 오로라 룩을 연출한다. 핑크색 립밤을 광대뼈 라인을 따라 사선으로 발라 은은한 홍조를 연출한 다음 같은 제품을 입술에 손가락으로 두드리듯 오버 립으로 바르고, 콧대에 사용했던 보랏빛 하이라이터를 중앙에 포인트로 올려주면 통일감 있는 메이크업 룩이 완성된다.



FROZEN GALAXY

얼음 속 은하수를 담은 듯한 입술 표현이 포인트인 만큼 흰색 별 모양 스티커를 붙이고 투명 립글로스를 두껍게 덧발라 얼음 조각처럼 반짝이는 효과를 만든다. 여기에 고드름을 닮은 네일까지 더하면 몽환적인 무드가 극대화된다. 투명한 네일 팁에 깨진 얼음 형태의 비즈를 비정형으로 올려준 뒤 미러 파우더를 부분적으로 발라 얼음 결정이 반짝이는 듯한 디테일을 표현한다. 나비존과 눈두덩에 주근깨를 그려넣고, 레드와 오렌지색 블러셔를 믹스해 치크부터 눈 앞머리, 콧대까지 'W' 형태로 발라 생기와 따스함을 불어넣는다.



MODEL 리밍
HAIR 오지혜
MAKEUP 황희정
STYLIST 이필성
NAIL 김수지 by 힙노지

WHITE ILLUSION

얼굴을 감싼 순백의 빛. 눈부시게 새하얀 눈과 그 고운 입자에서 모티브를 얻은 룩으로 화이트 섀도를 눈 앞머리와 뒤쪽, 콧방울에 올려 화사함을 더한다. 이때 흰색 섀도를 광대뼈를 따라 앞볼까지 영역을 넓혀 발라주면 섬세하면서도 청아한 이미지가 강조된다. 다소 밋밋해 보이는 룩에 장밋빛 블러셔를 사용해 눈과 턱 끝에 포인트를 주고, 애플존에서 아래로 쓸어주며 콧등과 연결하면 차분하지만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드레스 가격미정 **Saeyeong Choi.**

결이 살아야 룩이 산다

보송한 두피에 반질한 머릿결. 이 모순적인 소망을 실현하는 2025 헤어 케어 루틴.

FREELANCE EDITOR O DA HYE



얼굴의 트러블은 메이크업으로 쉽게 가릴 수 있다. 그렇다면 두피 트러블은? 가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각질은 털어낼수록 번져가고, 탈모 부위 또한 넓어질 뿐이다.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어져만 간다. 툭툭 끊기거나 쉽게 빠지고, 그 자리에 피어나는 곱슬거리는 잔머리까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 실내의 히터 바람과 문밖을 나서는 순간 들이치는 찬 바람이 반복되는 계절이다. 외부 환경에 의해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피부는 얼굴뿐만이 아니다. 두피 역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각질이 쉽게 일어나고, 가려움증도 생긴다. 자극받은 두피는 결국 탈모나 트러블로 이어지기 마련. 일상적인 샴푸와 린스로 변화무쌍한 대한민국 사계절 환경에서 모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혜수, 전지현, 수지 등 톱스타의 헤어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살롱하츠 백흥권 원장은 "야외 활동을 하지 않은 날에는 세정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신생아용 마일드 샴푸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한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 새로운 헤어 케어 루틴이 필요한 때다. 욕실 선반 한편을 두피 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채우며 재정비하자.

SCALP

스킨케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피부 장벽'이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세균과 바이러스가 피부에 침투하기 쉬워져 염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두피도 마찬가지다. 이제 두피 장벽도 신경 쓸 차례. 두피의 수분 장벽을 지켜내야 모근이 건강하게 힘을 발휘한다. 유럽과 달리 매일 샴푸하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여성은 기름져 갈라지는 앞머리에 수치심을 느껴 건조한 두피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수록 유분은 더 솟아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머리를 감지 않았거나, 유분이 폭발하는 여름이 아니라면 굳이 두피의 유분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TOOL

헤어 케어가 두피와 머리카락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면 주목. 신체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두피는 귀와 목, 이마와 이어진다. 괄사로 귀 뒤부터 어깨까지 림프를 자극해 풀어주고, 목과 뒤통수의 연결 부위 그리고 두피 시작점인 이마 끝부터 정수리까지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모근에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도와 새로 자라나는 모발이 튼튼해지는 건 기본, 피로 해소 효과는 덤이다. 괄사를 따듯하게 데워 사용하면 혈액 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고, 냉장고에 차갑게 두었다가 마사지하면 얼굴 크기가 작아지는 부기 제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만큼 내구성이 튼튼한 제품을 선택할 것.



1 두피는 물론 모발까지 사용 가능한 팩. 건조함으로 발생하는 각질을 진정시킨다. 로즈 헤어 앤 스칼프 모이스처라이징 마스크 4만5천원 **Aēsop**. **2** 극손상 모발에 필요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보호막을 형성한다. 토탈리페어5 헤어 마스크 1만3천원 **L'Oréal Paris**. **3** 두피에 스포이트로 서너 방울 도포한 뒤 꼼꼼하게 발라주면 두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스 + HA 포 스칼프 2만1천원대 **The Ordinary**. **4** 두피의 pH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카락을 강화한다. 골드 러스트 리페어 앤 리스토어 샴푸 8만3천원 **Oribe**. **5** 케라틴 단백질이 모발에 밀착해 부스스함을 완화하고 정전기를 예방한다. 프로 리페어 헤어 에센스 1만9천원 **Moremo**. **6** 유효 성분의 침투를 돕는 리포솜 공법으로 모발 손상을 집중 케어한다. 옐로우 너리싱 펀치 트리트먼트 2만2천원 **Glphy, O**. **7**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하고, 높은 습도에도 헤어 볼륨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키토산 포스트 스타일 세럼 7만9천원 **Dyson**. **8** 잔머리를 정돈하기에 제격. 정교한 브러시와 세밀한 빗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픽스&핏 마스카라 듀오 4만3천원대 **Narka**. **9** 최소한의 힘으로 깊숙한 근육까지 부드럽고 시원하게 지압할 수 있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특징. 세라믹 괄사 5만9천원 **Flona**.

SHAMPOO

당신의 '모발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머릿결의 컨디션은 쉽게 바뀌기 때문이다. 두피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모근에 활력을 부여하면 모발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금세 건강해진다. 샴푸 전 머리 전체를 가볍게 브러싱해 모발에 묻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두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루 종일 쌓이는 피지와 먼지, 스타일링 제품의 잔여물은 두피 모공을 막아 새로운 모발 생성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렇다고 자극적인 딥 클렌징 샴푸나 스크럽을 한겨울에도 주 2회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지성 피부가 아니라면 1일 1샴푸만으로도 충분하다.

NOURISHING

윤기 있는 머리카락은 건강함을 상징한다. 드라마 <안나>에서 수지도 "머릿결을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대사를 읊지 않았던가. 건강한 모발은 두피의 상태뿐만 아니라 적절한 영양 공급에 달려 있다. 모발에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트리트먼트 제품을 주 1~2회 사용하자. 특히 케라틴이나 콜라겐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큐티클을 회복시키고 모발의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모발 표면의 큐티클이 건강하게 닫혀 있어야 모발이 윤기 있고 부드러워 보인다. 트리트먼트 후,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는 습관은 큐티클을 닫는 데 효과적이니 참고하자.

STYLING

지금 거울로 확인해보자. 새치를 잘라낸 뒤 스멀스멀 자라나 잔디처럼 솟아나는 머리카락이 보일 거다. 심한 곱슬머리, 뻗친 머리, 억센 머리카락이 정수리 위로 올라와 꽤나 거슬릴지도 모르겠다. 평소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구레나룻과 목 뒤의 잔머리도 무시하기 어렵다. 늘 뻗침 없이 완벽하게 세팅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이라도 애써 연출한 헤어스타일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을 때를 위해 샴푸 전·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 제품을 구비해둘 것. 뻔한 스프레이나 왁스로는 부족할 거다. 매일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한다면 열 손상 방지 제품도 갖춰두는 것을 추천한다. **C**

editor JEONG EU GENE/art designer JANG SEOK YOUNG/photo by KWAK DONG WOOK

NEW YEAR, NEW BEAUTY!

올해는 꼭…! 작심삼일일지라도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다.
건강한 삶을 위한 뷰피들의 신년 계획은?

EDITOR **JEONG EU GENE**





다영_뷰티 유튜버(@kimdayeong_life)

새해에는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독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었다. 책을 읽는 시간을 활용해 하루 종일 열일한 피부에도 휴식을 주는 팩을 찾아 열심히 관리도 병행하고 싶다. 아직 독서와 팩을 자주 같이 해보진 못했지만 팩을 하면서 독서를 하면 몸과 마음이 릴랙스 되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챙기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특히 올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돕기 위해 '수면 리추얼'을 만들어보고 싶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가급적 휴대폰과 태블릿은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거나 라벤더 아로마테라피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면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피부와 헤어 등 외적인 모습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윤사라_에스티 로더 컨슈머 마케팅 매니저

일상에서 피곤함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봤는데, "수분 섭취가 신체의 대사와 에너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나는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지? 평소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었더라?'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다. 근데 웬걸? 회사에서 하루가 순삭될 만큼 바쁠 때는 하루 동안 물을 한 컵도 마시지 않았을 만큼 모태 건조인으로 살아온 것.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게 이너 뷰티와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퇴근 이후 나이트 케어에 좀 더 신경 쓰려고 한다. 잠들기 전에 세수를 후다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갖고 피부 케어에 공들이는 것. 특히 브랜드 담당자기도 하지만 갈색병의 오랜 유저이기도 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새해에도 나이트 루틴에 더 신경 써보려 한다.



이지현_논픽션 브랜딩팀 팀장

영양제와 비타민에 의존한 채 살아오다가 요즘 본질적인 접근으로 돌아오게 됐다. 바로 숙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 바로 구내염이 생겨 올해부터는 그 어떤 것보다 수면 루틴을 타이트하게 관리해볼 생각이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휴대폰 대신 책을 보는 게 꿈나라 직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매일 스킵하지 않고 실천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틱톡을 보다가 호기심을 사로잡은 페이스 테이핑! 일본산 키네시오 테이프를 얼굴에 붙이면 리프팅 효과가 대단하다는데 보자마자 구매각이다 싶었다. 페이스 테이핑의 원리는 테이프가 피부의 탄력성을 모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붙이면 당김 효과와 함께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 공간 사이로 근막을 지지해주고 림프액 순환도 촉진해준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아픔을 참아가며 스킨 보톡스를 맞는 나로서는 이보다 더 반가운 띵템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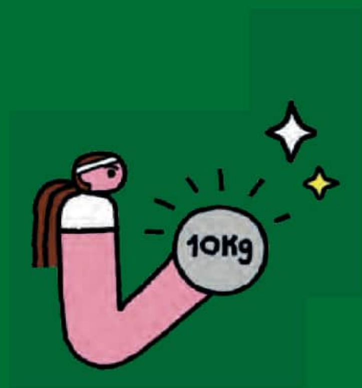
김수연_모델 매니지먼트 '쁘띠컨시어지' 대표

새해의 뷰티 위시 리스트로 찜해둔 제품이 있다. 바로 메디큐브 AGR 부스터 프로. 바쁜 일상 탓에 매번 필요할 때마다 피부과를 다닐 수가 없어 셀프케어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계를 큰맘 먹고 구입해보려고 한다. 지인들의 리뷰도 그렇고 디바이스를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새해의 시작과 함께 바로 실천해볼 생각~. 2024년에는 출산으로 몸의 변화가 많았던 해! 그래서 올해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운동에 집중해볼 생각이다. 출산 전에는 취미로 매주 서핑을 했는데 다시 주말마다 서핑을 다녀볼 계획. 그리고 평일에는 필라테스에 매진해보려고 한다. 운동은 할 땐 힘들지만 하는 동안 땀을 흘리고 집중하다보면 확실히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 스스로의 운동 루틴을 정하고 꾸준히 매일 지켜나가면 몸과 마음 관리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서유빈_무신사 브랜드마케팅팀 뷰티 담당

패션 스타일이나 '외모췍~!'도 중요하지만 헤어야말로 분위기와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힘없이 푸석거리는 일명 상추 모발이나 뿌염 시기를 놓친 투톤 헤어는 은근 게을러 보이는 요소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주기적으로 부지런하게 염색도 예쁘게 하고 머릿결 관리에 매진해볼 생각이다. 요즘 출시되는 헤어템들을 보면 모발에 영양, 보습감을 주는 기능적인 면에도 충실하면서 좋은 향까지 갖춘 제품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도르 퍼퓸 헤어오일 #오스만투스와 바이레도의 카사블랑 카릴리 제품에 꽂혔다. 각각 퍼퓸드 헤어케어 제품과 니치 퍼퓸인데 헤어 관리뿐만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향수와 같이 페어링해서 쓰면 향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 유독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김혜린_아모레퍼시픽 데일리 뷰티 MC팀

5년 넘게 아주 드문드문 자이로토닉 운동을 하고 있다. 자이로토닉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유연성과 체력을 기르는 운동법이다. 필라테스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필라테스가 중력, 스프링 등을 이용해 코어 힘을 기르는 안정성 운동이라면 자이로토닉은 원판과 케이블을 활용해 근육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면서 스트레칭, 유연성, 근육 강화에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무래도 재활에 특화된 운동이다 보니 오랜 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장인에겐 꽤 괜찮은 종목이다. 실제로 해보니 신체의 밸런스와 유연성을 기르면서 기초 체력에 꼭 필요한 잔근육을 만드는 데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해에는 간헐적 운동을 해오며 버텨온 나 자신과 세굿바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데일리 운동 루틴을 만들어 '근육'형 인간으로 거듭날 테다!



수아_모델(@sooakki)
평소에 선크림을 엄청 열심히 바르는데 지우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다.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발랐을 때는 무조건 2차 세안을 거쳐야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내용을 봤는데 충격 그 자체! 여태껏 뷰린이로 살아온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클렌징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신년 뷰티 플랜이다. 그리고 모델 일을 하면서 눈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 기름샘이 막혀서 다래끼가 종종 나기도 하고 안구건조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새해부터는 눈 건강에도 좀 더 신경 써보려 한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온 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클렌징이며 눈꺼풀 케어를 대충 하곤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눈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마이봄샘(눈꺼풀 내에 위치한 작은 기름샘) 청소에 진심을 다해볼 생각이다.



희주_뷰티 유튜버(@yoo.xx)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운동인 바레! 바레는 필라테스와 요가, 발레를 결합한 운동인데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꽤 크다. 발레의 전문적이고 복잡한 동작을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킨 운동이라 동작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운동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근육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 핫한 운동으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이 생겼는데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게다가 음악을 들으며 운동 동작을 할 수 있어 일반 유산소나 근력 운동을 할 때 심심하고 지루했다면 바레를 추천하고 싶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라고 할 만큼 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어 올해에는 바레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어볼 생각.



정유진_<코스모폴리탄> 뷰티 디렉터
평소에 수족냉증이 심해 족욕을 자주 했는데 올해는 반신욕과 입욕을 다양하게 즐겨볼 생각! 2개월 전에 우중 트레킹을 한 적이 있는데 숙소에 있는 저쿠지에 들어가 쉬면서 입욕의 매력을 새롭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비를 흠뻑 맞아 피곤해진 몸과 감각이 사라진 두 다리를 걱정했는데 30분간의 입욕만으로도 몸 컨디션이 살아난 느낌을 받아서다. 은은한 조명 아래 사방이 뜨거운 열기로 꽉 찬, 뭐랄까 마치 찜기 같은 공간에서 후끈한 열감의 상태로 쉬어 보니 온몸의 감각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운 기분마저 들었다. 게다가 단 30분만 투자했을 뿐인데 기분 좋은 향과 노곤함에 취해 꿈나라 직행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뷰티 호사가 어디 있을까? 그동안 '여행 가면 써야지!' 하고 아껴뒀던 배스 밤을 다시 찾아 욕실에 정리해 두고 주말에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홈 스파를 즐겨 볼 생각이다.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일을 핑계로,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귀차니즘을 핑계 삼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숏폼 중독에 대한 영상이 떴는데 30분 남짓한 다큐를 보고 제대로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소셜 미디어 채널을 소비할 순 없는 법. 대신 SNS 30분 덜 보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절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책을 읽는 시간으로 대체해볼 생각이다. 찾아보니 디지털 디톡스 앱도 있던데 콘텐츠 소비 시간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시도해보려고 한다.





정재은_입생로랑 뷰티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새해에는 찰랑찰랑~ 탱글거리는 건강한 머릿결을 되찾고 싶다. 예전엔 소위 대단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나름 건강한 머리카락 소유자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안일해서였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새치와 휑한 가르마는 날 당혹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다. 게다가 사무실에서 열일하다 보면 어느새 후끈 달아오른 정수리 열감까지.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은 얼굴이 아니라 두피라고 했던 기사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결심! 올해는 얼굴 관리만큼 빡센 두피 케어에 돌입해볼 테다. 새해에는 무조건 매일 밤 샤워를 마친 후 정성 들여 머리를 빗어주고 두피 전용 세럼을 꼼꼼히 발라야겠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차르르한 헤어를 기대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더 투자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헤드 스파도 경험해볼 생각이다.



김은영_키엘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
생기 넘치는 촉촉이 피부로 거듭나기! 날이 갈수록 건조하고 피부 각질이 들뜨는 게 눈에 보여 고민이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피부 수분에 집중할 수 있고 내 피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처방해보고 싶어 유튜브나 틱톡 등에 올라온 다양한 홈케어 루틴 영상을 참고하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중! 일단 가장 먼저 순한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 속건조를 개선해보기로 했다. 브랜드 담당자기도 하지만 오래 사용해온 키엘의 수분크림은 특수한 시술을 받은 직후에 피부가 많이 민감해진 상태에서도 바로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순한 크림이라 새해부터 더 더욱 애정을 갖고 열심히 발라보려고 한다. 피부 수분은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들어 수분크림을 스틱으로 출시한 스틱 밤도 평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외출했을 때나 화장이 들뜰 때 수시로 바르며 보습 단속에 더 신경 쓸 계획! C

art designer KIM JI EUN/illustration by KIM DA YE

잠들기 전 내일의 투두 리스트 작성하기, 꿀잠 직행을 위해 수면 30분 전에는 SNS 멀리하기 등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면 루틴이 만들어지고 매일의 습관이 된다.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





HOME SPA RITUAL

은은하게 퍼지는 향과 분위기에 취한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그곳이 바로 헤븐. **EDITOR JO HAE RI**

추운 겨울이면 스파가 유독 간절해진다. 이맘때 부기와 수족 냉증이 심하다면 아묻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보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것이다. 목욕은 신장으로 흘러드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며 배뇨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몸속 노폐물 배출이 활성화되면 디톡스 효과가 나타나 피부 톤은 맑아지고 은은한 생기가 돌게 된다. 무엇보다 뜨끈한 입욕의 가장 큰 매력은 하루 동안 지치고 피로해진 심신의 안정 아닐까? 이러한 점들이 바로 우리가 올겨울에 홈 스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MAKE YOUR BATH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홈 스파 레시피 4가지

아로마 배스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가장 쉽고 일반적인 입욕법. 냉증을 개선하고 싶다면 로즈메리, 독소 배출에는 주니퍼베리, 심신 안정에는 블랙 페퍼 오일을 추천한다. 입욕 시 에센셜 오일의 양은 최대 6방울, 반신욕이라면 4방울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해조류 배스 아일랜드의 전통 스파법. 해조류의 끈끈한 점액질 속 알긴산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피부와 모발에 윤기와 영양을 더한다.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미역이나 다시마 등을 흐르는 물에 씻어 염분기를 제거하고 불린 뒤 욕조에 넣는다. 불린 해조류를 잘게 잘라 망에 담아 활용해도 되지만 치우기 좀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욕조에 담그면 물의 움직임을 따라 살랑살랑 피부에 닿는 촉감으로 리추얼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다.

엡섬솔트 배스 황산 마그네슘으로도 알려진 엡섬솔트는 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염분 없는 미네랄 결정체로 입욕 시 사용하면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배출을 돕는다. 40°C의 뜨거운 물에 엡섬솔트를 250g 정도 넣고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다. 결정이 다 녹으면 15~20분간 욕조에 몸을 담근 다음 수분 섭취와 함께 5분 정도 휴식하고, 다시 15분 정도 입욕하면 한눈에 봐도 부기가 쫙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콜드 플런지 커피계에 '얼죽아'가 있다면 스파계에는 '콜드 플런지'가 있다. 최근 블랙핑크 제니가 즐겨 한다고 소개하며 다시금 주목받은 목욕법으로 10°C 이하의 차가운 물에 일정 시간 동안 몸을 담그는 수치료법. 찬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건 물론 신체의 긴장을 완화해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 처음 시도 시에는 2분 이하로 짧게 진행하고, 이후 물속에 머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간을 조절한다. 특히 물에 들어갈 때 깊고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

입욕 시 반드시 확인할 것들!

입욕 전 체크리스트

☑ **식후 30분 이후** 목욕은 소화에 방해가 되니 음식 섭취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즐길 것. 단, 목욕은 많은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공복이거나 배가 많이 고플 때는 두유나 단백질 셰이크 등으로 가볍게 배를 채워주는 걸 추천한다.

☑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 목욕 시 체내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며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체온에 맞춘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하다.

☑ **운동 후 목욕 절대 금지** 에너지 소모가 큰 근력 운동을 했다면 가벼운 샤워가 바람직하다. 입욕 자체도 에너지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체내 수분 손실을 가중시켜 탈수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 **음주 특별 주의** 알코올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입욕 중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촉진돼 알코올이 몸에 빠르게 퍼질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심한 경우 실신 위험이 있다.

☑ **일정 체온 유지** 입욕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샤워 가운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자.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어지럼증과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꼼꼼한 보습 관리** 목욕 중 스크럽을 했거나 소금 입욕제를 사용했다면 물기를 가볍게 제거한 뒤 보디로션을 충분히 발라 보습막을 형성하자. 만약 피부가 유독 건조하다면 오일을 섞어 바르는 것도 방법. C

입욕물 온도 체크

15°C 이하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춰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38°C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안정감을 주고, 몸을 이완시켜 피로를 풀어준다.

40°C 혈관과 림프관을 확장해 혈류량을 늘리고, 신체를 각성시켜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

42°C 이상 공복감이 줄어들며 식욕을 억제해 과식을 방지한다.

1 따뜻한 허니서클 향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센티드 캔들 허니서클 14만원 **Loewe**. 2 화이트 머스크와 허니 향이 조화를 이룬 보디 오일. 레 젝스클루시프 드 샤넬 1957 바디 오일 39만원 **Chanel Beauty**. 3 동명의 향수를 보디 크림으로 담아낸 제품. 풍부한 보습력은 물론 우디한 로즈 향이 은은하게 감돈다. 루체 디 로사 바디 크림 10만8천원 **Acqua di Parma**. 4 머드와 소금, 당근 등이 각질 관리와 함께 피부에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을 공급한다. 바디 스무디 스크럽 2만8천원 **Treecell**. 5 젤 제형이 물에 닿으면 가벼운 거품으로 변해 노폐물을 씻어낸다. 머스크에 아이리스 노트가 더해져 포근한 느낌을 선사한다. 플레르 드 뽀 핸드 앤 바디젤 7만7천원 **Diptyque**. 6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마사지 바. 통카와 바닐라 향이 포근한 여운을 남기며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든다. 코코넛 드렌치 2만3천원 **Lush**. 7 그레이프시드와 퓨마이스 성분이 거칠어진 피부 결을 정돈해 보다 매끄럽게 가꿔준다. 폴리시 바 솝 2만5천원 **Aēsop**. 8 유기농 식물성 오일과 버터, 천연 착색제, 물로 만든 비누 바. 푸릇푸릇한 자연의 향이 매력적이다. 보스키 비누 5만1천원 **Carrière Frères**. 9 피부 본연의 pH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알칼리 솔트. 바다소금, 보리, 천연 소다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세정하며, 감초 뿌리 추출물이 붉은 기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킨다. 알칼리 솔트 7만9천원 **Susanne Kaufmann**. 10 이집트 나일강 변에서 영감받은 그린 망고, 연꽃 노트가 조화를 이루는 향이 돋보인다. 운 자르뎅 수 르 닐 헤어 앤 바디 드라이 오일 7만8천원 **Hermès Perf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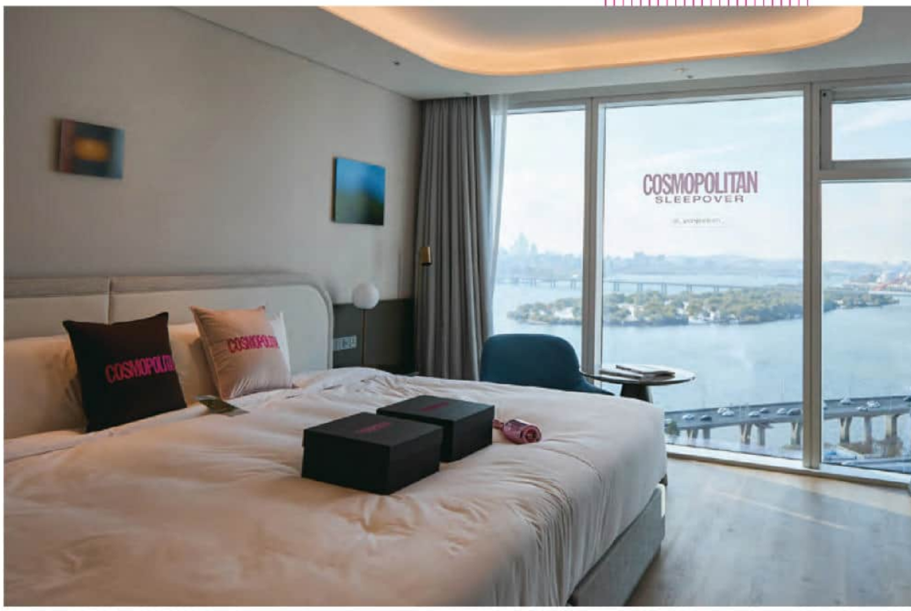
1 유니크한 컬러와 아름다운 무늬를 입은 세라믹 보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기 다른 4가지 향의 퍼퓸 캔들로 공간에 독창적인 감성을 불어넣는다. 퍼퓸 캔들 미니세트 14만8천원 **Tamburins**. 2 강렬한 오렌지 노트와 포근한 앰버 향이 녹아들며 마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골든 앰버 앤 오렌지 타운하우스 캔들 20만2천원 **Jo Malone London**. 3 극동 지역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따스하고 달콤한 통 카빈 향의 캔들. 장인이 수작업으로 브랜드의 로고를 새긴 보틀에 담아 소장 가치를 높였다. 포셀린 캔들 버마우드 18만원 **Trudon**.



art designer KIM JI EUN/photo by YANG JOONG SAN/advice JEONG JI HYUN(러쉬코리아 압구정 스파점 매니저&트레이너), HAN SO JUNG(트리셀 전략마케팅팀 대리) /reference book <목욕 다이어트>(팬덤북스),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위한 목욕 건강 30분>(가림출판사), <발 지압과 발 목욕법>(서림문화사)

슬립오버는 프랑스와 스페인, 체코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열리는 <코스모폴리탄>만의 시그너처 프로젝트로 매년 글로벌 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다. 한국에서는 올해가 첫 회! 그만큼 무려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버전의 힐링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이번 행사의 주요 키워드는 #건강한아름다움 #마인드풀니스 #웰니스 #뷰티로 <코스모폴리탄>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 내면과 외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비워내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면서 뷰티 케어의 의미를 되새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여느 행사와 달리 1박 2일이라는 여정으로 기획된 것도, 'Sleepover'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코스모 슬립오버만을 위해 세팅된 특별한 공간에 있다. 대망의 <코스모폴리탄> 첫 슬립오버 행사 장소는 한강 뷰로 유명한 호텔 나루 서울-엠갤러리가 선정됐다. 이곳은 서울이 지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호텔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물의 단열과 차양, 빗물 저장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갖췄을 만큼 환경보호에 찐심이다. 이러니 코스모가 야심 차게 기획한 웰니스 여정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코스모 슬립오버 참석자들을 위해 가장 공들인 스폿은 바로 객실이다. 참석객 모두 전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밤섬 전망을 오롯이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을 배정했을 뿐 아니라 1박 2일간 머무는 만큼 온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회복과 치유에



<코스모폴리탄>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켄드인과 함께 제작한 쿠션, 다양한 굿즈가 들어간 웰컴 박스, 샴페인이 준비된 슬립오버 전용 객실.

COSMOPOLITAN 슬립오버

이날만 기다렸다! 탁 트인 한강 뷰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호텔 나루 서울-엠갤러리에서 누린 꿈같았던 1박 2일간의 뷰티 여정. 지난 2024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1회 코스모 슬립오버 이벤트는 올해의 나를 되돌아보자는 취지 아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코스모폴리탄>의 슬로건으로부터 시작됐다. EDITOR **JEONG EU 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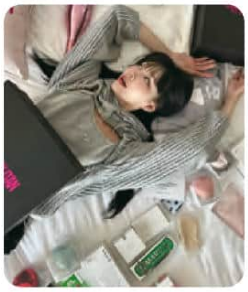
1



2



@wo.0z





3



4

@soyppi



1 슬립오버 전용 객실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며 즐기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2 슬립오버 이벤트 리셉션 앞에서 웰컴 박스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인플루언서.
3 크리에이터 60인을 위해 준비한 웰컴 패키지. 4 도심 속 리커버리 요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 5 뷰티 유튜버 희소와 함께하는 홀리데이 메이크업 클래스.
6 호텔 22층 부아쟁의 디너 요리.
7 탁 트인 한강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객실.
8 모닝 리프트 괄사 프로그램을 위한 리파의 카사 M1 롤러 디바이스와 가히 M1 바운싱 크림.



5

6





7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KIM TAE WOO, INSTAGRAM/cooperation REFA

집중할 수 있게 공간 곳곳에 릴랙싱 포인트를 담았다. 특히 멀티밤 신드롬을 일으킨 가히와 하트 브러시로 유명한 리파의 협찬은 이번 행사에 특별함을 더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객실에 한해 욕실의 샤워기는 일명 #뷰티샤워기로 불리는 '리파 파인 버블 샤워기'로 세팅했을 뿐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켄드인'과 함께 직접 제작한 폭신한 베딩 쿠션, 오끼드 파자마 세트부터 가히의 클렌징 폼, 미스트 앰플, 리파 하트 브러쉬, 러쉬의 입욕제 등이 들어 있는 웰컴 박스와 핑크빛 샴페인까지! 그야말로 뷰티, 밸런스, 디톡스, 숙면까지 올 어바웃으로 케어하고 호캉스를 즐기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첫눈이 온 슬립오버의 첫날. 오후 3시 본격 체크인을 시작으로 웰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60인을 엄선해 초청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이틀간의 여정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저녁 6시부터 호텔 22층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부아쟁에서의 황홀한 디너 파티가 시작됐다. 해가 저무는 아름다운 석양 뷰를 바라보며 최상급의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와 생선 파피요트 등의 요리를 맛보며 달콤한 시간을 즐긴 후에는 꿀잠과 평온한 휴식을 위해 준비된 '도심 속 리커버리 요가 클래스'가 이어졌다. 빈야사와 근력 요가 동작을 함께 해보며 몸의 에너지를 깨우고, 리파의 '하트 브러쉬 포 스칼프'를 활용한 간단 마사지 리추얼을 끝으로 슬립오버의 하루는 저물었다.

둘째 날 아침, 긍정의 맑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기운을 충전시키는 명상 클래스가 시작됐다. 먼저 리파와 가히에서 모든 참가자를 위해 준비해 준 카사 M1 롤러 디바이스와 가히의 M1 바운싱 크림을 이용해 자는 동안 굳은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마사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명상·싱잉볼·아로마 전문가이자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겸임 교수인 연은정 강사가 싱잉볼의 독특한 소리와 울림으로 진동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명상의 세계로 안내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과 거리두기를 한 채 잠시나마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싱잉볼 명상은 슬립오버에 참석한 이들에게 여유로운 힐링 시간을 선사했다. 아침을 깨우는 모닝 리프트 괄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22층에 준비된 조식을 즐긴 뒤 마지막 프로그램인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경험해보는 뷰티 클래스가 진행됐다. 뷰티 전문 유튜버 희소와 함께 립 플럼퍼, 하이라이터 제품을 활용해 연말 시즌에 쉽고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메이크업 테크닉과 팁을 배웠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크리에이터들은 "호캉스를 즐길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에너지를 얻어 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위로하며 다독이는 값진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휴식이나 리추얼 같은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천은 안 하고 매번 다음만 기약하죠. 슬립오버를 통해 제대로! 동기부여를 얻고 갑니다", "뷰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틀간의 호사가 너무 행복했어요. 1박 2일 동안 쓰기에는 벅찰 만큼 다양하고 많은 릴랙싱 뷰티 케어 제품을 선물해주셨는데 그것도 감동이었고요. 대체 왜! 이제야 슬립오버를 론칭한 거예요! 약속해주세요. 내년에 또 초대해주실 거죠?"라는 다양한 리뷰를 남겼다. 이렇듯 코스모의 슬립오버를 응원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코스모는 2025년에도 새로운 모습의 슬립오버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자 모두에게 쉼과 휴식, 비움과 채움, 열정과 재미를 되찾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됐기를 바라며, 2025년에 또 만나요! C

8





1

WELCOME TO WONDERLAND

수많은 눈꽃들과 함께 펼쳐지는 샤넬의 윈터 판타지,
황홀한 동화 속같은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로 초대한다.

EDITOR **JO YOON SEO (MEDIA LAB)**





하얀 겨울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게 한다. 유난히 화려한 이 계절, 샤넬 역시 황홀한 눈꽃 세계가 펼쳐지는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를 발 빠르게 오픈하며 겨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지난 11월 2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광장에서 첫 공개된 이곳은 샤넬의 아이코닉한 컬러인 골드와 화이트를 더해, 보는 것만으로도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아이스링크 중앙에는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까멜리아, 꼬메뜨, 숫자 ‘5’ 등의 디테일이 장식되어 있어 샤넬만의 코드를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여성 향수의 아이콘 샤넬 N°5와 라운드 보틀이 매력적인 샹스,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 등 다양한 샤넬의 향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황홀하면서도 신비로움이 가득한 겨울 왕국을 보여준다. 연말의 홀리데이 무드 가득한 아이스링크지만 이 모든 것은 친환경 인공 아이스링크장으로 만들어졌다. 지속가능성과 선한 영향력을 위한 샤넬의 꾸준한 노력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휴식을 선사하는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는 이 외에도 샤넬 눈꽃이 내리는 사진과 영상 필터, 이미지 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연말부터 모두를 들썩이게 한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는 2025년 1월 12일까지 열리니 2025년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1 수많은 눈꽃들과 함께 펼쳐지는 황홀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한 샤넬의 향기로운 세계.
2 샤넬이 그려낸 새하얀 동화 속 판타지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은 다채로움이 가득하다.
3 아름다운 겨울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는 밤이 되면 더욱 빛이난다.
4 샤넬의 다양한 코드로 장식된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


2


3


4

NEW, NEED, NOW!

새해를 맞이해 화장대 리뉴얼을 준비한다면 참고하시길.
코스모 뷰벤저스가 직접 써본 1월의 뷰티 신상 리스트가 여기 있으니까요!

ASSISTANT EDITOR **KANG DA SOL**

1 Aveda 스칼프 솔루션 하이드레이팅 헤어 앤 스칼프 마스크 6만8천원대
추천 대상 히터 밑에서 푸석해진 모발에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면. 체크 포인트 스쿠알렌 성분이 모발과 두피에 수분감을 부여하는 크림 타입 헤어 마스크. 써봤더니 폭망 머릿결에 컨디셔너 대용으로도 딱! 두피가 자주 가려웠는데 헹궈내면 시원하고 진정되는 느낌이다. -강다솔

2 Realbarrier 레티니올 모공 타이트닝 세럼 3만2천원
추천 대상 느슨해진 나비존에 긴장감을 주고 싶다면. 체크 포인트 고함량의 순수 레티놀 성분이 늘어진 모공과 주름까지 개선한다. 써봤더니 며칠 만에 모공이 확 줄어든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확실히 전보다 피부가 쫀쫀! 모공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짝 조여주는 기분이 든다. -정혜미

3 (왼쪽부터)Armani Beauty 립 마에스트로 파시오네 214 앤틱 피치, 321 미드 웜 로즈우드 각각 6만2천원대
추천 대상 고혹적인 패키지를 놓칠 수 없다면. 체크 포인트 로즈 베이지 톤 벨벳 립 틴트를 한정판 블랙&레드 그러데이션 패키지로 출시한다. 써봤더니 차분한 장밋빛 베이지 컬러와 적당한 광택감이 포인트! 부드럽게 슬라이딩되며 발려 건조한 입술에도 부담 없다. -송예인

4 Laneige 워터뱅크 블루HA 클렌징 젤 2만7천원
추천 대상 세수하자마자 피부가 땅기는 건성 김미연. 체크 포인트 약산성 세안제에 알란토인 성분을 추가해 수분감과 장벽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써봤더니 거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편. 뽀득한 잔여감이 아닌 피부 땅김이 덜 느껴지는 촉촉파 클렌저로 인정! -정유진

5 Chanel 루쥬 코코 밤 샤인 758 블러싱 핑크 5만1천원
추천 대상 입술에 빛나는 터치를 원하는 당신. 체크 포인트 촉촉한 수분감으로 인한 샤인 피니시가 돋보이는 소프트 핑크 컬러 립밤. 써봤더니 촉촉하게 반짝여 각질이 있는 상태에서 덧발라도 입술이 더 깔끔하고 정돈돼 보인다. -조해리

6 Dior Beauty 디올쇼 5 꿀뢰르 812 핑크매니아 글로우매니아 리미티드 에디션 10만4천원대
추천 대상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즐기는 핑덕이라면. 체크 포인트 파스텔 톤 핑크와 라군 블루 등의 컬러를 시머·매트·펄의 다채로운 텍스처로 담은 섀도 팔레트. 써봤더니 은은한 연보랏빛 시머 펄이 취저. 포인트 컬러는 진달래 핑크빛이라 색 조합 천재인 쿨톤들이 사용해보길 추천한다. -강다솔

7 La Mer 더 나이트 리커버리 컨센트레이트 96만5천원대
추천 대상 피부를 위한 슈퍼 플렉스가 아깝지 않다면. 체크 포인트 세럼을 크림 마스크로 구현한 제품. 발효 해초 추출 성분이 피부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준다. 써봤더니 촉촉하게 스며드는데 곧바로 보송하게 마무리된다. 피부가 리셋된 듯 즉각 피부 변화가 눈에 보이니 이게 바로 금융 치료! -조해리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LEE HO HYUN

8 Gucci Beauty 마스카라 르 마그네티즘 이브 블랙 6만6천원
추천 대상 마스카라로 드라마틱한 눈매를 연출하고 싶다면. 체크 포인트 블랙과 블루 피그먼트를 배합해 깊이감을 더해줘 풍성한 속눈썹을 만든다. 써봤더니 동그랗게 말린 모양의 브러시가 깔끔하게 속눈썹만 터치해줘 언더 마스카라할 때도 애굣살에 묻지 않는다. 촘촘한 빗 같아 뭉치지 않게 한 올 한 올 잡아주는 점도 굳! –정혜미

9 Hera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21N1 바닐라 6만원
추천 대상 투명한 미니멀 피부가 추구미라면. 체크 포인트 스킨케어링 성분을 75% 함유해 투명한 광채를 연출하는 쿠션. 써봤더니 바른 직후엔 세미매트한 느낌이라 '이게 글로 쿠션?'이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점점 피부 본연의 유분과 어우러져 속광이 뿜뿜! –조해리

10 Sulhwasoo 윤조에센스 뱀의 해 리미티드 에디션 120ml 17만원
추천 대상 작품 같은 신년 한정템이 탐난다면. 체크 포인트 뱀의 비늘을 표현한 골드 패턴이 새겨진 안티에이징 에센스가 대용량으로 출시된다. 써봤더니 워낙 가볍고 촉촉해 첫 단계에 이 제품 하나만 발라도 확실히 피부가 편안! 한정판 패키지라 소중한 지인을 위한 선물로도 제격이다. –정유진

11 Clé De Peau Beauté 프레셔스 골드 바이탈리티 세럼 35만원
추천 대상 지친 피부에 금빛 활력을 더하고 싶다면. 체크 포인트 광채와 생기를 더해주는 세럼은 24K 골드와 레티놀 오일 캡슐을 함유해 노화 징후를 즉각 케어한다. 써봤더니 산뜻하게 발리지만 유·수분감은 오래 남아 혹한에 건성 피부가 쓰기 제격일 듯. –송예인

12 Hourglass 팬텀 볼류마이징 글로시 밤 RED 0 가격미정
추천 대상 컬러와 패키지 모두 기승전'레드'만 찾는다면. 체크 포인트 톤을 타지 않는 레드 컬러의 비건 틴티드 립밤으로, 빨간 패키지를 적용했다. 써봤더니 약간의 체리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로 발색된다. 강한 플럼핑 효과가 아니라 적당히 시원한 느낌이라 부담 제로. –강다솔

13 Espoir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SPF27 PA++ 3C 웨딩피치 4만2천원
추천 대상 늘 밀착력이 아쉬웠던 강경 글로파라면. 체크 포인트 하루 종일 유지되는 수분감에도 초밀착·초경량 커버력까지 겸비한 파데. 써봤더니 피부에 얇게 착붙되는데, 생각보다 건조하지 않고 답답함이 1도 없다. 찐 내 피부 같은 은은한 광과 아주 연한 핑크라 톤 업 효과도 확실~. –정혜미

14 Kiehl's 울트라 바디 메가 모이스처 스쿠알란 크림 8만4천원대
추천 대상 메마른 피부에도 끈적임은 못 참는 산뜻파. 체크 포인트 3초 만에 흡수되는 바디 크림은 -4°C에서도 유지되는 극강의 보습감을 자랑한다. 써봤더니 생크림 제형이 빠르게 쏙 흡수되고 뭉침 없이 잘 발려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듬뿍듬뿍 바를 수 있어 정착템으로 인정! –송예인 C



SPORTS

들숨에 건강을, 날숨에 걱정을. 요가 한 스푼이 가져온 개운한 하루.

EDITOR **SEO JI HYUN** PHOTOGRAPHER **JANG HAN BIT**

BREATHE, STRETCH, SMILE

홀터 탱크톱 4만2천원, 브라톱 3만8천원 모두 **Ozez**. 플레어 레깅스 가격 미정 **Nike**. 귀고리 59만원 **Ferragamo**. 캐시미어 양말 가격 미정 **Guest In Residence**. 헤드밴드 에디터 소장품.

art designer JANG SEOK YOUNG



코튼 스판 브라톱 4만8천원 **Movewarm**. 니트 조거 팬츠 17만8천원 **Open Yy**. 캐시미어 스카프 1백5만원 **Burberry**. 이어 머프, 슬라이드 모두 가격 미정 **Celine by Hedi Slimane**.



니트 보디슈트 39만원 **RVN**. 니트 장갑 6만9천원 **Moondal**. 헤어핀, 레그 워머,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브라톱 9만3천원 **Lululemon**. 요가 팬츠 6만6천원 **Movewarm**.
발라클라바 **Philosophy**. 목걸이 가격미정 **Celine by Hedi Slimane**. 암 워머, 어그 부츠 에디터 소장품.



컷아웃 포인트 볼레로 35만2천원 **RVN**. 롱 슬리브 톱 11만8천원 **Nylora**. 헤어리 소재 팬츠 17만8천원 **Le Sonnet**.

레그 워머 4만8천원 **Repetto**. 플러피 발레 플랫 슈즈 1백25만원 **Ferragamo**.

MODEL 박가은
HAIR 안미연
MAKEUP 오미영
ASSISTANT 강아형



울 양말 5만9천원 **Patagonia**.



장미 참 비니 가격미정 **Eenk**.



리버서블 매트 7만8천원 **Lululemon**.



셔링 튜브톱 3만8천원 **Ozez**.

YOGA CORE

요가하러 가는 길. 새해 첫 수련은 장비 점검부터.

EDITOR **SEO JI HYUN**



셔링 홀터 톱 가격미정 **Ozez**.



헤드밴드 4만5천원 **Patagonia**.



스모킹 팬츠 5만8천원 **Ozez**.



후드 스카프 가격미정 **Cos**.



브라톱 13만원 **Nylora**.



헤어 클로 69만원 **Celine by Hedi Slimane**.



레그 워머 4만8천원 **Repetto**.



탱크톱 5만6천원 **Movewarm**.



하프 레깅스 7만8천원 **Lululemon**.



미니 짐볼 각각 5천9백원
모두 **Andar**.



오버핏 팬츠 8만7천원
Movewarm.



브라톱 가격미정 **Nike**.



헤드밴드 57만원 **Celine by Hedi Slimane**.

랩 카디건 4만5천원 **Andar**.



요가 핸드 타월 1만5천원 **Ganesha Yoga Props**.



집업 스웨트셔츠 가격미정
Polo Ralph Lauren.



니트 볼레로 35만2천원
R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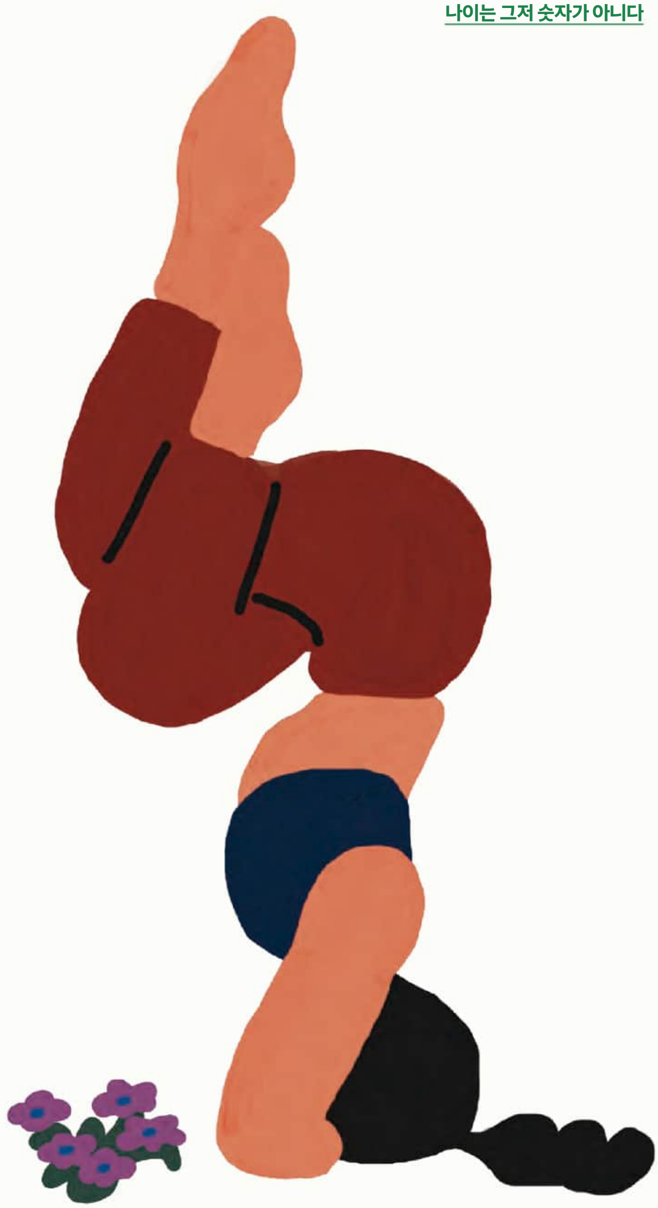
art designer KIM JI EUN/photo by JANG HAN BIT

‘WELL-AGING’ ATTITUDE



ESSAY

나이는 그저 숫자가 아니다



이맘때면 몰려오던 불안감과 허무함, 이른바 ‘존재통’이 쏙 들어갔다. 요샌 내가 죽으면 투표용지가 하나 줄어드니까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버틴다. 실제로 컨디션이 떨어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요즘 들어 내원하는 환자들이 확 늘었어요.”

언제인가부터 ‘저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닌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그러는 사이에 어른은 완성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모범 답안이라고 여겨온 부모님을 창피하다고 느낄 때, 대단하게 보이던 어른에게서 ‘구림’을 발견할 때 아이는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어간다. 그 시간을 거쳐 어른이 된 나는 툭하면 생각한다. 어떻게 나이 먹어야 할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걸까.

전업 작가가 되기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다. 줄곧 동경해 왔기에 대학 졸업반 때부터 어떻게든 업계에 뛰어들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닮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 선배들에게서 내 미래가 보였다. 이 일을 계속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나 역시 누군가의 미래가 돼 있었다.

‘되고 싶은 사람을 옆에 두세요’. 언젠가부터 자주 들리는 말이다. 이 말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며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답인 양 알려준다. 하지만 되고 싶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내가 먼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좋은 환경을 원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고 있을까.

젊은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래가 암담했던 환경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치는 일에도 체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언젠가부터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다. 사소한 것들에 일일이 짜증이 난다. 살려고 운동해 늘린 근육은 주로 누워서 신세한탄하는 데 쓰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 취지로 악착같이 키운 근육은 생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근근이 쓰일 뿐이다.

하지만 진짜 나이 듦의 증거는 허무주의다. 모든 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걸 알아버렸기에 주어진 임무는 생존뿐이라는 생각. 아니나 다를까 주변 지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다. 그래 놓고도 절대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버티는 느낌. 나를 포함한 지금의 어른들은 그야말로 살기 위해 살고 있다.

몇 년 전, 삶에 대한 허무함과 우울감이 극에 달했을 때 여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과 특성상(!) 그들의 허무주의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문창과였다), 학생들 사이에 있으면서 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다. 툭하면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울고 웃고, 함께 모여 여러 일을 도모하

2025년 달력의 첫 장을 펼치고 한숨부터 나왔다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때. 나의 삶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속도는? 한 살 더 먹었다는 사실에 지레 겁먹지 않고, 무용한 허무감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그리고 '잘' 나이 드는 법에 대하여. **EDITOR CHEON IL HONG**



는 모습에 꺼진 지 한참 지나 굳은 심지에 미세하게 불이 붙는 느낌이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나는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 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조금씩 몸이 일으켜졌다. 늘 방바닥에 누워있던 사람에서 하루 걸러 하루만 누워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후 젊은 여성들이 분노하는 자리에 조금씩 나가게 되었다. 일단 머릿수나 채워보자는 심정으로 '불편한 용기' 시위에 처음 나갔을 때를 잊지 못한다. 어림잡아 내 딸뻘 되는 여성들 사이에 끼어 앉아 어색함에 허둥대던 기억. '다시 만난 세계'를 힘차게 부르는 목소리에 울컥해 애써 눈물을 삼키던 기억.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여기에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구나. 결국 이 나이 먹도록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좋은 환경을 또 찾아오고 만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내온 102030 여성들이 이제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기성세대들은 이제서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났다며 기특해(!)하지만, 그동안 젊은 여성들은 분노의 현장마다 존재해왔다. 세월호 진상규명의 현장,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추모 집회,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도 자리를 지켰다. 이후 촉발된 미투운동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로 인해 사그라들지 않았고, 안희정, 박원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힘 있게 연대했다.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규탄 및 각종 셀 수 없이 벌어지는 여성 혐오 범죄 규탄 집회에서 젊은 여성들은 늘 주체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움직임에 맞서 여대 학생들은 싸우고 있다. 가장 가까운, 혹은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촬영당하고, 폭행당하고, 고소당하고, 살해당함으로써 삭제되거나 강제 종료되는 삶을 젊은 여성 스스로 멈춰야 한다고 울부짖은 지는 오래되었다.

이번 겨울, 국회 앞에서 그들 사이에 또 한 번 끼어 앉으면서 이제는 나부터 좋은 환경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가진 숫자만큼 태만해 온 시간이 지금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리터럴리'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 나이는 한 사람이 쌓아온 경험이자 역사이고, 누군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며 세상에 대해 갖는 책임감이다. 내가 가진 나이는 나라는 환경을 만들어온 시간이다. 그러니 기성세대가 더 몰두해야 할 것은 외모 안티에이징이 아닌 세상에 대한 안티에이징이 아니겠는가. 40·50대가 아무리 외모를 관리하고 숱 많은 가발을 쓴다고 해서 결코 20대처럼 보이지 않는다. 20대처럼 보이려 애쓰는 40·50대로 보일 뿐이다. 연예 뉴스에 툭하면 등장하는 '진짜 50대 맞아?'라는 질문 아닌 질문의 답은 빈틈없이 가꾼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군, 삶이라는 환경이어야 한다.

Writer 김신회
작가. 에세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아무튼, 여름>을 썼다.
최신작으로는 장편소설 <친애하는 나의 술>이 있다.



INTERVIEW

요가, 비건 지향, 사유. 3가지 키워드를 삶의 모토 삼아 매일 '웰에이징'을 실천하는 세 여성의 매일의 궤적,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채우는 몇 가지 물건들.



WELL-AGING ITEM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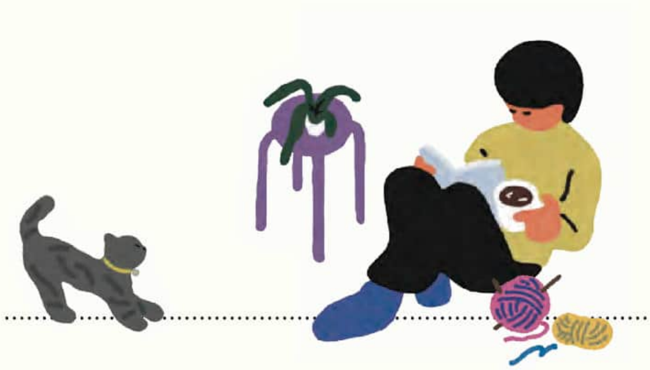


1 '오늘 뭐 입지?' 매일의 고민을 덜어줘 급성 노화를 예방해주는 브라이언 두들 셋업 셔츠 18만원, 팬츠 13만8천원. **2** 오랫동안 잊고 있던 '쓰는 맛'을 일깨워준 페이퍼 디바이스. 기록이 훨씬 즐거워졌다. 리마커블 2 페이퍼 태블릿 가격미정. **3**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마시기 좋은 포터블 티 세트. 다도를 삶에 들이고 싶은 입문자와 '찐 덕후'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맥파이앤타이거 티 머그 세트 5만원대.

양다솔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아무튼, 친구> <적당한 실례>를 쓴 에세이스트이자, 비건 지향인. 글방지기로서 한 주에 한 편씩 글을 써야 하는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good.dasol

보통의 하루 일과 날마다 다양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그 시작이 몇 시가 되든 일어나면 바로 찻상에 앉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뜯어 우리기 시작해 한두 시간은 차만 마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장 외출해야 하는 날이라면 커다란 주전자 가득 차를 팔팔 끓여 보온병에 담아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뜨끈한 차를 나눠 마셔요. 어떻게 그러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술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없듯 저 또한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종교가 다도라고 하거나, 제 몸에 피 대신 차가 흐른다고 말하기도 해요.(웃음) **'웰에이징'을 위해 꼭 지키는 루틴** 저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는 다도입니다. 그냥 좋아서 매일 해왔을 뿐인데 벌써 16년이 됐네요. 오래 다도를 해오며 몸도 천천히 변해왔지만, 사실 매일의 마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차와 함께 시작하는 일은 머리를 빗는 것처럼 하루를 정갈하게 빗고, 숨을 쉬는 일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날마다 조금씩 볕 쬐기, 조금씩 땀 흘리기, 조금씩 읽고 보기 등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같이 몸과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줘야지, 단순히 시간이 간다고 해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몸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마음만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내 몸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이자, 이전의 나와 그다음의 나를 구분하는 전환의 행위가 된다고 생각해요. **비건을 지향하며 찾아온 변화** 어느 날 친구들과 식사하러 모였는데, 한 친구가 근래 재밌게 본 책이라며 한 권씩 돌렸습니다. 제목을 보니 김한민 작가의 <아무튼, 비건>이었어요. 별말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친구가 비건이 됐다는 선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앞으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누군가의 뜻에 함께하는 것은 동의보다는 동행이기에 책을 받자마자 "나도 할게"라고 말했고, 그렇게 비건이 됐어요. 비건을 시작하고 나선 몸이 항상 산뜻하고 가볍습니다. 식사 후 몰려오던 나른함과 졸음도 덜해졌고, 자잘한 잔병치레도 많이 없어졌고, 몸무게도 변함없이 일정하고, 생리통도 적어졌어요. 먹을 것이 야채뿐이라 원재료 자체의 신선도, 제철 재료 등을 신경 쓰게 되니 자연히 더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뜻밖이었던 건 충치도 적어졌다는 점이에요. 질긴 음식을 잘 먹지 않다 보니 이가 과로할 일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웃음) **'비건 지향인'으로서 가진 철학**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하는 일에 늘 막막함을 느껴왔는데요, 직업이나 출신, 나이 같은 것이 딱히 저를 잘 설명해준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 제게 비건은 가장 멋진 자기소개입니다. 비건은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종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종평등을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네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분리되고, 단절되고, 각자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이 혐오의 시대에 비건은 희귀하다 할 만큼 넓은 사랑의 단어입니다. 저를 비건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내가 정의하는 '웰에이징'** 꼭 이맘때 즈음에는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2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나는 이 세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얼마나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나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와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나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시간을 보낸다는 건 나 외에 많은 것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슬프고 기쁘고 사랑하고 상처 입고 투병하고 투쟁하고 재생하고 끝내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를 외우고 살아가고 싶어요. 둘째, 나는 나를 얼마큼 신나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이 신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눈처럼 녹아 사라집니다. 때때로 아주 신이 나면 시간과 공간도 힘을 잃고 모습을 감추죠. 전 살아갈수록 제 스스로가 신나는 일을 많이 만나고 만들며, 그것에 뛰어드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해요. 몸과 마음이 어떤 것에 진동하고 춤추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신날 수 있는가. 늘 저에게 물으며 나이 들 것 같아요. **나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란** 의식주를 포함해 자신이 언제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 즐거워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



WELL-AGING ITEM



1 명상과 수련할 때 사용하는 링지 싱잉볼 38만원대. 2 수련을 마친 후 샤워할 때 꼭 쓰는 아로마티카 솔트 바디 매그놀리아&샌달우드 3만8천원. 3 수련 전에 사용하는 미스트. 아베다 차크라 7 밸런싱 퓨어 품 미스트 5만2천원. 4 도자기와 우드 소재의 브라운즈 차판 5만2천원.

희선

브이로그 채널 <Gmlsunny희선>을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요가 안내자. 취미로 요가를 시작해 꾸준히 수련을 이어온 그는 현재 줌 플랫폼을 통해 새벽에 온라인 요가를 안내하고 있다. **@gmlsunny**

보통의 하루 일과 새벽에 요가 수업이 있어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짧은 명상을 마치고 6시부터 새벽 요가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개인 수련을 하며 맑아진 정신으로 일과를 시작해요. 요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재미에 빠져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으로 식탁을 꾸리죠.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편집 등 보통 집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요. 모든 업무를 마친 저녁 시간엔 남편과 함께 저녁을 요리해 먹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웰에이징'을 위해 꼭 지키는 루틴** 저에게 있어 건강한 삶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것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저만의 루틴을 세웠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 제가 만들어놓은 루틴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가와 명상을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나면 나를 잘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스스로 대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니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일상에서 내가 세운 작은 루틴으로 자존감을 키워주고 있어요. **요가가 가져다준 즐거움과 성취** 원래 요가는 몸이 좋지 않아 시작한 운동이었어요. 단순히 몸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이 시작되면 고요하게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하루 중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요가를 통해 단단한 등 근육과 하체를 얻었지만, 무엇보다 한결 차분해진 감정이 찾아왔다는 걸 느껴요.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안함을 잘 느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죠. 요가원에서 여러 도반과 함께 수련하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모두가 요가로 하나가 된 것 같아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곤 해요. **내가 정의하는 '웰에이징'** 과거나 미래보단 현재에 살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따뜻한 안부 묻기, 바쁜 일상에서도 사랑과 다정함 찾기. 나이가 들수록 다정하고 똑똑한 어른이고 싶어요. 멈춰 있는 것보단 끊임없이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며 지금의 내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꿈꿔요. **나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란** 모두에게 웃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나리

배우,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소재 아티스트 레지던시이자 북 스테이 공간 '모티프원'의 호스트&큐레이터. 배우로선 극 중 인물을 연기하며 사람과 사회에 대한 소통의 갈망을 해소하고, 모티프원의 호스트로서 게스트와 내면의 번민과 희열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naa.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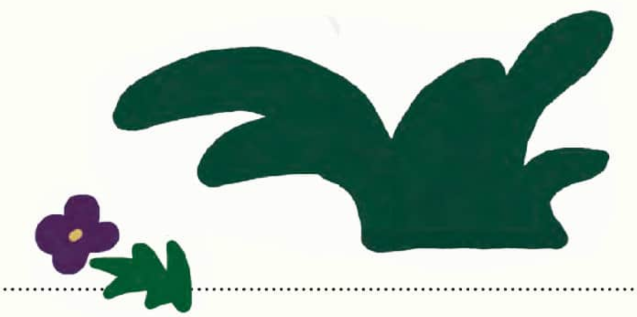
보통의 하루 일과 하는 일의 특성상 매일이 다른 일과로 흘러가지만, 모티프원을 찾아주신 게스트분들을 환대하고 환송하는 일,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는 일과만큼은 매일 변함없어요. **'웰에이징'을 위해 꼭 지키는 루틴** 오전에는 사과와 땅콩버터를 챙겨 먹습니다. 모티프원 동료가 소개해준 아침 식사인데,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커피만 마시다가 가볍게 과일을 먹으니 한층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녁엔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 전에 간단한 요가로 하루의 긴장감을 이완하는 것도 잊지 않죠. **모티프원의 호스트로서 느끼는 성취** 모티프원에서의 시간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창작의 원천이 될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떠난 게스트분께서 모티프원에서 쓴 글을 책으로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하고, 프랑스 일러스트 작가가 모티프원 모습에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을 한국으로 여행 왔을 때 직접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모티프원을 통해 불쑥 끌어올려지는 창의력이 누군가의 삶에 한 조각으로 남는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게스트와 웃으며 "또 만나요" 하고 애정 깊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순간도 참 행복합니다. **삶의 제1동기, 모티프원의 의미**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남기고 간 방명록을 통해, 매일 달라지는 창밖의 자연을 통해, 흐드러져 있는 책의 틈새에서,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변화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동기가 되길 바라요. 또한 모티프원에 오시는 수많은 게스트 역시 자신의 삶을 아끼고 돌보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도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보며 제 삶 역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모티프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보내는 매 순간 스스로 삶의 동기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더 믿게 됐고, 시도와 도전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정의하는 '웰에이징'** '보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각자가 생각하는 보통의 정도가 모두 다를 거예요. 저는 저만의 흐름과 나이 듦이 나에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평균에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무의식중에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사라져요. 개인이 모두 고유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티프원의 호스트를 통해, 연극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나 역시 고유한 나만의 삶을 개척해나간다는 것, 그것이 웰에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란** 나의 고유성.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내 속의 다이아몬드이지요. **C**

WELL-AGING ITEM

1



1 특정한 물건을 아끼거나 집착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떤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저 나에게 그 순간 필요한 물건이면 된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매일 챙기고 찾는 물건이 있다면 연필입니다. 책을 읽을 때, 대본을 읽을 때도 항상 펜이 아닌 연필을 이용합니다. 연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기도 하지만, 지우지 않는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흔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art designer JIN NAM HYUK/illustration by LIMOOO

BATTER UP

'커리어 하이'를 찍은 신선도 100% 젊은 타자. 38개의 홈런과 40개의 도루를 달성하며 리그 최고의 타자로 거듭난 김도영의 시즌은 이제 막 개막했다.

Fashion Editor
JEON SO HEE

Feature Editor
KIM MEE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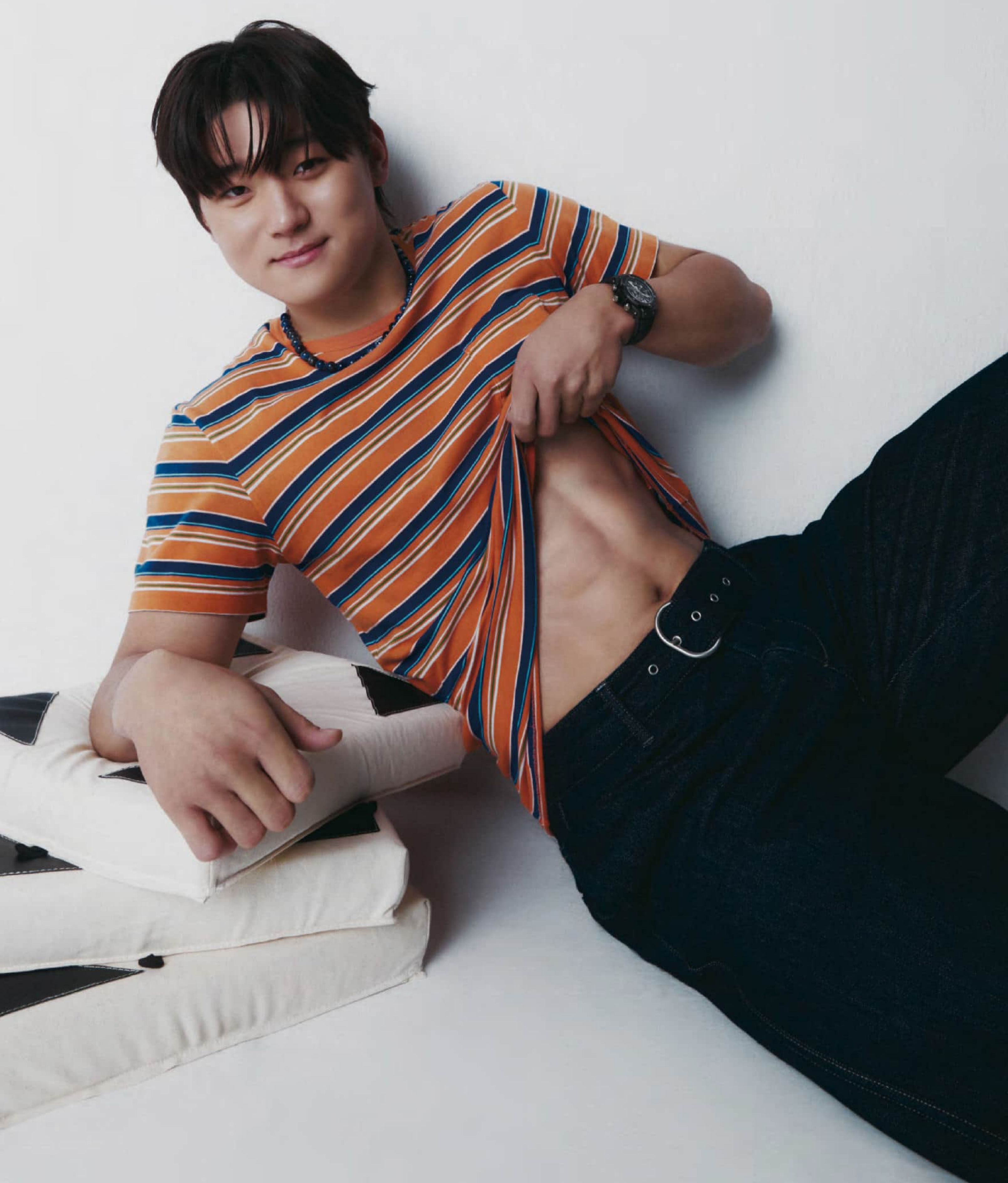
Photographer
KWAK KI GON





높은 강도와 경량성을 겸비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소재를 적용한
스피릿 오브 빅뱅 매직 사파이어 워치
1억원대 **Hublot**.
탱크톱, 데님 팬츠,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매트 질감의 모노톤 세라믹이 시크한 빅뱅 유니코 블랙 매직 워치 3천만원대 **Hublot**.
티셔츠 **Polo Ralph Lauren by Paramount Pickers**. 팬츠, 벨트 모두 **Jil Sander**. 목걸이 **Charlotte Kim**.





시선을 사로잡는 옐로 컬러를 보디 전체에 적용한 빅뱅 유니코 옐로우 매직 워치 4천만원대 **Hublot**. 데님 베스트, 데님 팬츠 모두 **1017 Alyx 9sm**. 목걸이 **Scudo**.

블루 세라믹 베젤과 티타늄 케이스가 스포티하게 어우러진 빅뱅 유니코 티타늄 블루 세라믹 워치 3천만원대 **Hublot**.
아우터, 탱크톱, 팬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투명한 요소들의 매치가
인상적인 빅뱅 유니코 사파이어
워치 1억원대 **Hublot**.
니트 베스트, 볼캡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18K 킹 골드 소재의 컬러가 화려한 위용을 뽐내는 스피릿 오브 빅뱅 킹 골드 워치 6천만원대 **Hublot**. 재킷 **Palm Angels**. 이너 톱 **Coach**.





사각 케이스가 안정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스퀘어뱅 유니코 킹 골드 블루 워치 6천만원대 **Hublot**. 티셔츠 **Vivienne Westwood**. 목걸이 **Charlotte Kim**. 팬츠,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와
매트한 블랙 디스크가 강렬한 대조를
이루는 스피릿 오브 빅뱅 매직
사파이어 워치 1억원대 **Hublot**.
탱크톱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인덱스와 핸즈의 아웃라인까지 블루
컬러를 적용한 빅뱅 유니코 블루 매직
워치 3천만원대 **Hublot**.
아우터, 탱크톱, 데님 팬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속 매커니즘이 보이는 빅뱅 유니코 사파이어 워치 1억원대 **Hublot**. 팬츠 **Taiga Takahashi**. 니트 베스트,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블루 세라믹 베젤이 매력적인 빅뱅
유니코 티타늄 블루 세라믹 워치
3천만원대 **Hublot**.
티셔츠 **Coach**. 목걸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세라믹만의 우윳빛 컬러와
매끄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스피릿
오브 빅뱅 화이트 세라믹 워치
4천만원대 **Hublot**.
니트 톱 **Amiri**.

HAIR & MAKEUP 이소연
STYLIST 박태일
SET STYLIST 이예슬
ASSISTANT 강아형

인생 첫 화보를 무려 커버로 장식했네요.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라 어색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돼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웃음) **연말 시상식을 휩쓸고 있어요. 특히 MVP는 40년 만에 만장일치가 나올 뻔했죠.** 아쉬웠어요.(웃음) 덕분에 동기부여가 됐죠. 저도 언젠간 만장일치로 MVP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MVP를 받고 자신의 '밈'을 활용한 수상 소감도 화제였는데, 미리 준비한 건가요?**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상식이 워낙 큰 행사라 수상 소감을 미리 준비해서 가긴 했어요. 외워서 말하려다 보니 오히려 어색했던 것 같은데 팬분들이 좋아해주셔서 다행이에요. **광주를 대표하는 차세대 에이스가 된 건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시즌이었죠. 프로야구가 1천만 관중을 달성한 해에 팀이 우승했고, MVP를 수상했고, 그래서 저의 스타성도 알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웃음) **되게 쑥스러워하네요. 야구 선수로서 스타성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얼마 전 뉴진스 하니로 분장해 열창한 '푸른 산호초' 무대에서 증명하기도 했잖아요. 아이디어도 직접 냈다고요.** 맞아요.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의상까지 파격적으로 준비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예요.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소문난 '버니즈'(뉴진스의 팬덤명)이죠? 하니 씨도 그 영상을 봤다면 좋겠네요.** 지금 아마 외국에 계셔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요.(웃음) 초라한 저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지난 시즌은 데뷔 후 첫 풀타임 시즌이기도 했죠.** 데뷔하고 3년 동안 갈망하던 목표였는데 이렇게 이룰 수 있어 더 뜻깊었죠. **게다가 첫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했어요.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규 시즌 우승까지는 저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시리즈에선 큰 활약을 못 했어요. 9명 중에 제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차 대비 도움이 아예 안 된 건 아니니까…(웃음) 15% 정도로 할게요. **솔직해서 좋네요! 여러 기록도 갈아 치웠는데 아무래도 30홈런-30도루가 가장 기억에 남겠죠? 40홈런-40도루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나요?** 솔직히 크게 없어요. 진짜로! 39-40 정도였으면 너무 아쉬웠을 텐데, 홈런을 2개나 남긴 채로 시즌이 끝나서 그냥 후련하기만 했어요.(웃음) **어떻게 단숨에 리그 최고의 타자가 된 거죠? 타격 메커니즘에 어떤 변화를 준 건가요?** 메커닉에 손을 대기보다는 훈련 루틴을 많이 바꿨어요. 공의 면을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부상 없이 훈련과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광주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죠. 광주에서 나고 자란 '로컬 보이'로서 어떻게 보답할 생각이에요?** 제가 야구로 핫한 도시인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팬들은 아무래도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걸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구 외에 다른 방식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웃음) **데뷔 전부터 KIA 타이거즈 팬들에게 '제2의 이종범'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이종범 선배님은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갈 수도 없고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찾아가려고요. 넘어서기보다는 오래도록 가슴속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KIA 타이거즈는 김도영 보유 구단이라 좋겠어요. 프리미어12가 끝나고 9개 구단 팬들이 '김도영 체험판 종료'라는 말을 쓰던데요.(웃음) 그만큼 활약이 대단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프리미어12는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프로야구가 2024년에 첫 1천만 관중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팬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정규 시즌 때 팀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태극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또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하죠. 돌아오는 국제 대회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인데, 그땐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어요. **최정, 송성문, 문보경, 노시환 등 KBO 리그 3루는 '핫 코너'답게 3루수들이 유난히 핫해요. 그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빠른 발?(웃음) 다들 워낙 홈런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이라 제가 장타나 홈런으로 그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는 기대는 못 했는데, '도루'와 '홈런' 기록을 모두 챙길 수 있어 특별한 시즌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 골든글러브' 3루수상을 거머쥘 수 있었나 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골든글러브가 이번 시즌 마지막 시상식이거든요. 훈훈한 마무리를 한 덕분에 연말을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은 어떻게 보낼 생각이에요?**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낼 생각이에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하고 놀아요?** 그냥 평범한 20대들처럼 노는 것 같아요. **평범한 20대들이 낚시를 하며 놀지는 않잖아요.(웃음)** 아, 낚시만 빼면요! 낚시는 취미까지는 아니고요,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손맛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프로 데뷔 3년 차지만, 야구를 한 지는 어느새 10년이 넘었죠. 그 시간 동안 얻은 것이 있다면요?** 실패하는 방법과 다시 올라오는 방법. 그 과정에서 몇 년간 쓸 타격 폼도 얻고, 훌륭한 선배님들과 같은 리그에서 뛰며 몸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죠. **특히 김도영에게 많은 영향을 준 선배 선수도 있나요?** 지금 주장인 (김)선빈 선배님과 (나)성범 선배님이요.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장점이 확실하셔서 선배님들이 플레이할 때 유심히 관찰해요. 보다 보면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 특출난 강점을 가지고 계셔서 신기해요. **야구 선수는 결혼도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상형은 뭐예요?**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요. 성격 좋고, 경제관념도 저와 잘 맞으면 더 좋겠죠. **10년 뒤엔 어떤 선수가 돼 있을 것 같나요?** 서른둘 정도 됐겠네요. 더 큰 리그에서 자리 잡은 선수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도 되니, 적응 잘하고 자리만 잘 잡고 있어도 성공일 것 같아요. **더 큰 리그로 가려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웃음)** 아직 시작은 못 했는데 얼른 하고 싶어요. 영어도, 일본어도. 꼭 메이저리그 진출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 멋있잖아요.(웃음) **한 시상식에서 "이 상에 더 어울리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운동선수로서의 행동 모두 진짜 잘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죠.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붙임성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빈말 안 하고 솔직한 제 모습에 만족해하며 살았죠. '사회생활'이 필요한 순간에도 우두커니 있으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요. 그 모습이 되게 미숙한 모습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작년보다는 올해 더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고, 개선해나가고 싶은 부분이에요. **프로 선수로서 꼭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나요?** 핑계 대지 않기, 뒷말하지 않기. 둘 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라 저도 안 하려고 해요. 직업 특성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평가도 가차 없이 받는데 주변 말은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해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의 성적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자극제로 삼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상 당연하다 생각하고 제가 이겨내야 할 부분이죠. '악플'과 '질타'에 연연하다 보면 야구 선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가 인정하는 '광주의 아들'이자, 리그 최고의 타자인데 질타를 받을 일이 그렇게 많나요?** 하하하. 야구가 팬이 많은 만큼 욕도 많이 먹어요.(웃음) 저는 DM도 안 막아놨고, 댓글도 다 읽는 편인데 보다 보면 재밌어요. '내가 진짜 야구 선수가 됐구나' 하고 실감도 나고요.(웃음) **김도영 인생에서 야구란?** 인생 그 자체다! 이제 제 삶에서 야구를 했던 시간이 더 기네요. 야구를 안 하던 시절의 김도영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하루 종일 야구 생각만 해요. C

"태극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또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하죠. 돌아오는 국제 대회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인데, 그땐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어요."

art designer BYUN EUN JI/cooperation HUBLOT



GLOW & FLOW

둥근 해가 떴습니다. 좋은 기운만 입장하세요.

Fashion Editor SEO JI HYUN
Photographer KIM SIN AE



THIS PAGE
실크 시폰 셔츠 2백65만원, 브라톱 87만원,
스커트 2백10만원, 진주 메탈 초커 1백13만원
모두 **Gucci**.

OPPOSITE PAGE
코튼 캔버스 재킷 3백60만원, 미디스커트
2백15만원, 톱 핸들 백 4백30만원, 메리제인
발레리나 슈즈 1백42만원 모두 **Gucci**.



레더 재킷 1천60만원, 카디건 2백85만원, 조젯 스커트 4백10만원, 진주 메탈 초커 2백81만원, 톱 핸들 백 4백30만원, 메리제인 발레리나 슈즈 1백42만원 모두 **Gucci**.

스웨이드 크롭트 재킷 7백80만원, 실크 시폰 셔츠 2백10만원, 스웨이드 팬츠 5백60만원, 숄더백 가격미정, 메리제인 발레리나 슈즈 1백42만원 모두 **Gucci**.



스웨이드 재킷 1천3백20만원, 실크 시폰
셔츠 2백85만원, 데님 팬츠 가격미정,
숄더백 4백80만원 모두 **Gucci**.





스웨이드 케이프 8백90만원, 실크
시폰 셔츠 2백65만원, 스웨이드 쇼츠
4백40만원, 숄더백 4백80만원, 새틴
발레리나 슈즈 1백26만원 모두 **Gucci**.



셔츠 1백55만원, 실크 브라톱 1백70만원,
데님 팬츠 2백10만원, 숄더백 가격미정,
스웨이드 발레리나 슈즈 1백26만원 모두
Gucci. 509 로소 앙코라 루즈 아 레브르
매트 립스틱 6만3천원 **Gucci Beauty**.

싱글브레스티드 코트 6백20만원,
튤 스커트 4백10만원, 팔찌 1백7만원,
숄더백 4백80만원, 메리제인 발레리나
슈즈 1백42만원 모두 **Gucci**.



코튼 데님 드레스 3백10만원,
엠브로이더리 스커트 1천2백90만원,
숄더백 4백80만원, 스웨이드 발레리나
슈즈 1백26만원 모두 **Gucci**.





art designer BYUN EUN JI/cooperation Gucci

트렌치코트 6백20만원, 실크 브라톱 1백70만원, 데님 팬츠 8백70만원, 벨트 가격미정, 진주 메탈 초커 2백81만원, 스웨이드 발레리나 슈즈 1백26만원 모두 **Gucci**.

MODEL 배윤영
HAIR 홍현승
MAKEUP 박수연
SET STYLIST 김경민
ASSISTANT 강아형

Ski Couture

뚜렷한 존재감으로 설원을 장악할
스키 룩의 파워풀한 순간.

Freelance Editor
KIM MI KANG

Photographer
SHIN SUN HYE



플리스 재킷, 팬츠
모두 가격미정 **Louis Vuitton**. 스키 장갑
1백20만원 **Moncler Grenoble**. 스노 부츠
49만8천원 **Repetto**.
이너 톱, 고글 에디터
소장품.



보디슈트, 미니스커트,
소매 장식, 장갑, 펌프스
모두 가격미정 **Alaïa**.



다운 재킷 3백87만원, 보디슈트 가격미정, 팬츠 가격미정 모두 **Moncler × Willow Smith**, 시어링 부츠 가격미정 **Louis Vuitton**.



스키 슈트 20만9천원대 **Zara**. 퍼 트루퍼 해트 23만9천원 **Q Millinery**. 부츠 가격미정 **McQueen by Seán McGirr**.



다운 재킷 96만원, 부츠컷
팬츠 29만원 모두 **YCH**.
고글 가격미정 **Celine by**
Hedi Slimane. 스노 부츠
가격미정 **Moon Boot**.



니트 드레스 가격미정 **Sportmax**. 선글라스 가격미정 **Moncler Lunettes**. 워커 부츠 1백49만원 **Moncler × Willow Smith**.



저지 탱크톱, 미니스커트,
저지 팬츠 모두 가격미정
Prada. 퍼 부츠
가격미정 **Versace**.
고글 에디터 소장품.



퍼 코트 가격미정 **Gabriela Hearst**. 보디슈트 가격미정 **Alaïa**. 퍼 롱부츠 3백48만원 **Gianvito Rossi**.

MODEL 자기
HAIR 장해인
MAKEUP 임정인
ASSISTANT 조희지

Fashion Editor
KIM SO YEON

Photographer
AN SANG MI



Keep It Clean

오늘은 새해맞이 대청소하는 날.



THIS PAGE
시어링 재킷, 플랫폼 뮬 모두 가격미정 **Celine by Hedi Slimane**. 탱크톱 1만7천원대 **Zara**. 복서 쇼츠, 양말 에디터 소장품.

OPPOSITE PAGE
드레스, 니삭스, 플랫 슈즈 모두 가격미정 **Dior**. 헤어핀 헤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미디스커트 가격미정 **Marine Serre**. 뮬 가격미정 **Bottega Veneta**. 보디슈트 에디터 소장품.



레더 톱, 레더 스커트
모두 가격미정
Bottega Veneta.
발레리나 슈즈
가격미정 **Marni**.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플라워 장식 드레스,
저지 팬츠 모두
가격미정 **Prada**.



자카드 블라우스
5백40만원, 펌프스
1백33만원 모두
Dolce&Gabbana.
브라렛, 브리프,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코튼 셔츠, 코튼 스커트, 샌들 모두 가격미정 **Jil Sander**. 손에 들고 있는 셔츠 가격미정 **Bottega Veneta**. 양말 에디터 소장품.

티셔츠 가격미정 **Jil Sander**. 브리프,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MODEL 이서연
HAIR 홍현승
MAKEUP 황희정
ASSISTANT 이슬은



art designer **JIN NAM HYUK**



THIS PAGE
페이크 퍼 재킷 54만8천원 **Recto**. 페이크 퍼 해트 29만원대 **Q Millinery**.

OPPOSITE PAGE
무톤 퍼 코트, 크롭트 데님 재킷 모두 가격미정 **Miu Miu**. 데님 팬츠, 퍼 벨트 모두 가격미정 **We11done**. 스트랩 힐 가격미정 **Dolce&Gabbana**.

Fashion Editor
KIM SO YEON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렬함.

Photographer
JANG DUK HWA

Furry & Furious



크롭트 퍼 재킷 가격미정
Sportmax. 새틴
베스트 1백86만원,
레이스 브라렛 87만원,
팬츠 2백13만원 모두
Dolce&Gabbana.





스커트처럼 연출한
퍼 재킷 가격미정
Prada. 드레스
가격미정 **Ferragamo**.
벨트, 사이하이
부츠 모두 가격미정
Chloé. 장갑 44만원
Dolce&Gabbana.

시어링 퍼 재킷
6백30만원
Acne Studios.





시어링 퍼 장식 재킷,
니트 톱 모두 가격미정
McQueen by Seán McGirr. 장갑 가격미정
Miu Miu. 샌들 힐
가격미정 **Tom Ford.**
스타킹 에디터 소장품.

섀기 퍼 재킷 가격미정
Diesel.



보디슈트, 데님 팬츠, 소매
장식, 뱅글, 앵클부츠 모두
가격미정 **Alaïa**.



시어링 케이프 가격미정 **Ferragamo**. 팬츠 79만원 **Philosophy**. 귀고리 1백19만원, 뱅글 3백42만원 모두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맥시 퍼 코트
42만원대 **Sculptor**.
브리프 가격미정,
스타킹 23만원 모두
Dolce&Gabbana.
슬링백 가격미정
Givenchy.

MODEL 엘리스
HAIR 이에녹
MAKEUP 이준성
ASSISTANT 강아형

art designer **KIM JI EUN**



퍼 재킷 Topshop.

HAPPY NEW GABEE'S YEAR!

2025년을 맞이하는 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비의 마인드로!

Photographer CHANG KI PYUNG
Feature Editor CHEON IL HONG









THIS PAGE 보디슈트 **Blackup**. 쇼츠 **Trooel**. 벨트,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반지 본인 소장품.
OPPOSITE PAGE 드레스 **L'Eau Et**. 안경 **Chrome Hearts**.



THIS PAGE 톱 **Gateless**.
OPPOSITE PAGE 드레스, 벨트 모두 **Lilysilk**. 귀고리 **Jean Paul Clarisse**. 목걸이 **Portrait Report**. 슈즈 **Lost in Echo**.



마침내! <코스모폴리탄>과 가비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요! 화보 사진도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마침내'라는 표현을 쓴 건 코스모가 지향하는 'Fun Fearless Female'의 모습과 가비는 맞닿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편집부에서도 'FFF에 어울리는 여성'으로 입을 모아 가비라고 말해왔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고소공포증 같은 현실적인 두려움 빼곤(웃음) 인생에서 늘 겁 없이 선택을 해온 편이라, 저와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선 꽤 용감한 여자죠. **지난 9월 <코스모폴리탄>의 창간 24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기사 '올해의 여성 24인'에 가비를 선정했어요. "다양성을 포용하고 건강한 바이브를 전하며,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자"라고 썼죠. 저희가 맞게 봤나요?(웃음)** (놀라며) 와, 엄청 감동이다…! 과분한 칭찬 같지만,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 예쁘고 멋진 여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들과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어떠한 기준점에 맞춰서 상대를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전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모두가 무작정 그 아름다움을 좇는 게 너무 기괴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스스로 깨닫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선 늘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해요. **언젠가 인터뷰를 통해 "난 60kg이 넘지만, 근육도 많고 탄력도 많고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한 것도 그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었겠네요. 마른 몸이 최고라고 여기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마른 몸을 추구할 때도 전 제 몸이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춤을 더 많이 출 때라서 몸이 더 탄탄하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제 몸을 보면서 뚱뚱하다고 하든 뭐라 하든 제 몸이 좋았죠. 물론 저 역시 살이 쪘을 당시 자존감이 낮아지고 괴로웠던 때가 있었지만, 무조건 날씬하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하며 빼야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몸을 살피면서도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찍이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부럽기도, 놀랍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 사람처럼 예뻐지고 싶고, 저 사람처럼 화려해지고 싶다고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질 게 뻔한데, 그럴 바엔 내가 나 걸 찾자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가진 이 아름다움과 에너지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만 좇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문득 김이나 작사가가 내준 숙제에 썼던 가비 씨의 글귀가 떠올라요. 친구들에게 '월드 스타'라고 불렸던 어린 시절, 의지가 넘쳤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소녀라고 썼죠. 근원부터 역시 남달랐어요.** 하하. 그때의 저는 막연히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관종'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무대에 선

art designer BYUN EUN JI/photo by KIM HO YEON/문의

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꿈꿨죠. 그때만 해도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 여겼고, 분명히 나는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갈수록 그 모습이 점점 나와는 멀게만 느껴졌어요. 댄서로 활동할 때도 물론 무대에 서고 연예인들도 많이 보곤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으니까요. 그치만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 또한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른이 넘어서 갑자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되니, 너무 놀라워요. 사실 댄서로서의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더 잘되면 저 아티스트와 작업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제 삶은 어린 시절의 제가 꿈꿨던 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참 재미있어요. **소녀 가비가 꿈꿨던 '월드 스타'의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닮아 있어요?** 80% 정도? 아직 채우지 못한 20%는 영어 인터뷰를 '되게 유창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의 <엘렌 드제너러스 쇼>나 지미 키엘의 <레이트 나이트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에 나가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웃음) **3년 전 개명을 했죠. 좋을 가(嘉), 다스릴 비(庀). 스스로 지은 이름인가요?** 네. 돈 주고 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이지만(웃음), 그 또한 제 선택이니까 제가 지은 이름이나 다름없죠! **맞아요. 어떤 마음을 담은 이름이에요?** '신지원'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제 의지를 닮은 비범한 이름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개명했던 건데, 하고 보니 '신지원'과 '신가비'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지원은 부여받은 삶이고, 신가비는 제가 부여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부여한 신가비의 삶을 더 사랑해요. 물론 지원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가비는 없었을 테고 신지원으로 살아온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것도 많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부여한 '가비'의 삶에서는 주저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선물한 삶,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마치 '크루엘라'처럼요.** 어, 맞네요! 크루엘라예요 저는.(웃음) **가비로 살고 있는 이 삶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아. 그전에도 전 자아가 강한 사람이긴 했지만, '가비'는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자아인 거잖아요. 확실하게 빚고 다듬어서 만든. '가비'는 가명이 아니라 본명, 제 이름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활동하는 저와 인간 '신가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요. 가비도, 신가비도, 그리고 제 부캐인 유튜버 퀸가비도요. 그만큼 '가비'라는 이름은 제 자아 그 자체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가비'를 지키기 위해 너무 한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지기도 해요. **'가비'의 자아와 '지원'의 자아는 많이 다른가요?**심지는 같은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본래 성격은 그때와 변함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는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과 같진 않았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주변에서 함께 힘을 합쳐 프로젝트에 몰두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가비가 그 시절 시행착오를 겪던 지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넌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여드름은 없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웃음) **2024년은 가비의 수많은 면면을 볼 수 있던 한 해였어요. 한 해의 끝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은 언제예요?** 아, 올해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참 많았잖아요. 라치카로서도 한 건 했고, 재쓰비로서도 활동했고, 유튜브 채널 <퀸가비>도 그렇고요. 그래도 전 <퀸가비>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패리스 은지 튼튼'이 나와서 조회 수 200만을 찍었던 그 순간, 제일 짜릿했어요. **보는 저희도 짜릿했습니다.(웃음)**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때였거든요. 그 시점이 베스트 모멘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전까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느낌이었어요. 뭐든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2024년은 이것저것 막 하는 시점이었는데, 무엇 하나 뚜렷하게 이룬 것이 없는 기분에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패리스 은지 튼튼'과의 에피소드가 터졌고, 그 이후로 제 삶이 또 한 번 후루룩 바뀐 느낌이에요. 은지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미국의 어느 시트콤이나 MTV에서 봤던 페이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막 튀쳐나온 듯한 생생한 캐릭터 퀸가비가 압권이에요. 사람을 관찰하고 캐치하는 능력이 예사롭지 않다 싶었죠.** 사람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말씀하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속 스타들의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민 걸(Mean Girl)'의 모멘트들 말이죠. 너무 웃기고 재미있지 않아요?(웃음) 워낙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했어서 퀸가비도 물 흐르듯 표현할 수 있었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서도 뭐랄까 빌런스러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또한 대단한 능력이죠. 퀸가비를 더욱 빛나게 하는 캐릭터들과의 합도 너무나 완벽해요. 단순히 대본에 적힌 대로 읽고 연기해서 나오는 합이 아닐 텐데요.** 맞아요. 대본 없이 캐릭터에 몰입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언니, 쏘 루드", "선풍기 매니절~"과 같은 대사도 마찬가지죠. 눈만 봐도 합이 딱딱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그저 행운인 것 같아요. 사실 <퀸가비>를 <스우파>가 끝난 직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바로 시작하지 못했던 건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이 PD님이 없으면 이 콘텐츠는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저만큼 이 채널의 큰 정체성을 이루는 사람이죠. 평소에 종종 "김태호, 나영석 다음에 여슬픔 당신이야!"라고 장난치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웃음) 워낙 타고난 말재간과 센스가 있는 분이죠. "한국에서 그렇게 잡도리하시면 안 돼요"라는 말도 미리 짜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 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퀸가비>로 어떤 그림까지 그려봤나요?** <순풍산부인과>나 <거침없이 하이킥>처럼 따뜻하고 재미있는 시트콤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된다면 좋겠어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찾아보고 추억으로 남아 있는 한 장면처럼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약하지만, 본업을 놓지 않는 점도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라치카로서 한 건 했고', 가수로 데뷔까지 했어요.** 여한이 없습니다.(웃음) 가수 데뷔는 재쓰비라서 가능했어요 정말.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본업도 스스로 당당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가비 언니는 예전만큼 춤 안 추잖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의 춤을 사랑해주시고 따라 춰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춤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 자부심을 오래 잃지 않으려면 본업을 더더욱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전 이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댄서거든요. 사실 제 이름 앞에 방송인, 유튜버, 가수 등의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그보다 댄서라는 정체성이 단단하게 제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댄서 외에 다른 일들도 더 인정받을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하나둘 펼쳐놓고 보니 가비가 보여준 행보는 도전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르지 않는 도전의 동력은 어디서 오나요?** 어쩌면 결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재 언니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언니가 말하길 스타성은 결핍에서 나오는 거래요.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몰랐는데, 결국 무언가를 갈구하는 결핍에서 스타성이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우파> 이후에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던 것도, 지금 본업과 유튜브 등 다양한 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제 안의 결핍을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 결핍이 제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강한 큰 원동력이 됐잖아요. **댄서, 가수, 유튜버 이 다양한 타이틀은 가비에게 성취로 남은 셈이네요.** 맞아요. 재고 따지는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다는 징표기도 하니까 적어도 후회는 없죠. 많은 일을 해왔고, 감사하게 결과도 좋았으니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됐어요. 키자니아라고 하나요? 직업 체험을 30대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로워요.(웃음) **이렇게 숨 가쁘게 달리고 있는데, 전혀 지치는 법이 없군요.** 네. 지금까지 지친 적은 없어요. 사실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 재미있어서 큰일이에요. **<코스모폴리탄>에 'Fun', 'Fearless'라는 표현이 붙는 것처럼 가비 앞엔 어떤 수식이 올까요?** 강인한, 그리고 단순한. 그게 저 같아요. 단순하지만 심지가 굳고 강한 사람. **이상 강인하고 단순한, 2025년의 첫 FFF 가비였습니다.(웃음) 2025년을 여는 가비의 마음을 코스모 걸들에게 전해주세요.** 'What you're not changing, you're choosing.' 그러니까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당신의 선택이다. 이것이 2025년에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용감하게 바꾸자. 그렇지 않았다면 더 이상 탓하지 말자. 그 또한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고쳐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혹시 2025년엔 '퀸' 말고 '킹' 그 자체가 돼볼 생각은 없나요?(웃음)** 워낙 '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좋은데요? 언젠가 퀸가비의 최상급 표현으로 쓰는 거죠. 킹가비!

art designer JANG SEOK YOUNG



HAIR 우기 by 오버마스
MAKEUP 주연 by 오버마스
STYLIST 안두호
ASSISTANT 이나라

니트 톱, 니트 스커트 모두 **Push Button**. 반지 (오른손)모두 **Cos**. (왼손)모두 **Silipin**. 슈즈 **Zara**. 양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위에서 왼쪽부터, 민희)재킷, 이너 톱, 팬츠 모두 **Dior Men**. 목걸이 **Portrait Report**. 이어 커프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태영)니트 톱, 이너 셔츠 모두 **Bottega Veneta**. 이어 커프 **Portrait Report**.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원진)코트 **Bottega Veneta**. 목걸이 **Portrait Report**. 니트 톱, 팔찌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우빈)니트 톱, 레더 셔츠, 팬츠 모두 **Bottega Veneta**.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정모)코트, 이너 톱, 팬츠 모두 **Ferragamo**. 목걸이 **Abyb**. 시계 **Vintage Patek Philippe by Beantique**.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형준)셔츠, 팬츠, 스커트 모두 **Wooyoungmi**. 목걸이 **Swarovski**. 이어 커프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성민)카디건, 티셔츠, 쇼츠 모두 **Ferragamo**. 골드 체인 목걸이 **Portrait Report**. 펄 체인 목걸이 **Abyb**.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세림)트위드 재킷, 그레이 재킷 모두 **Wooyoungmi**. 목걸이 **Swarovski**. 이너 톱,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앨런)레더 재킷, 이너 셔츠, 쇼츠 모두 **Dior Men**. 목걸이 **Abyb**. 이어폰 모양 목걸이 **Portrait Report**.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Feature Editor CHEON IL HONG

Photographer YOON SONG YI

BOYHOOD ADVENTURES

<로드 투 킹덤: ACE OF ACE> 최종 우승, 일곱 번째 미니 앨범 <FIND THE ORBIT>으로 초동 자체 최고 판매량 달성과 함께 지상파 음악 방송 첫 1위까지 거머쥔 아홉 소년, 지금 가장 찬란한 크래비티의 호시절.

(민희)코트 **Dries Van Noten**. 목걸이 **Abyb**. 이너 톱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형준)셔츠 **Arket**. 재킷, 이어 커프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위부터, 성민)니트 터틀넥 **Eenk**. 팬츠, 벨트,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립 커프 에디터 소장품. (세림)재킷 **Stu Office**. 데님 팬츠 **Oy**. 이어 커프, 목걸이 모두 **Portrait Report**. 티셔츠, 벨트,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원진)재킷 **Eenk**. 이너 톱 **Vivienne Westwood**. 터틀넥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왼쪽부터, 정모)재킷 **Iro**. 데님 팬츠 **Acne Studios**. 이너 톱, 벨트, 목걸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성민)레더 재킷 **Ffeff Studio**. 니트 톱, 팬츠,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태영)셔츠, 팬츠, 타이 모두 **Bottega Veneta**.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왼쪽부터, 태영)재킷, 팬츠 모두 **Entire Studios × Luisaviaroma**. 안경 **Gentle Monster**. 목걸이 모두 **Abyb**. 팔찌 **Swarovski**. 이너 톱, 벨트,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형준)레더 재킷 **Ffeff Studio**. 니트 베스트 **Heute**. 셔츠 **Arket**. 쇼츠, 타이, 이어 커프, 양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민희)레더 재킷 **Acne Studios**. 데님 팬츠 **Stu Office**. 체인 목걸이, 큐빅 목걸이 모두 **Abyb**. 이너 톱, 벨트, 립 커프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위부터, 우빈)데님 팬츠 **Acne Studios**. 팔찌 **Portrait Report**. 레더 재킷, 니트 톱, 반지,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앨런)셔츠 **Heute**. 시계 **Vintage Cartier by Beanique**. 니트 톱, 팬츠, 벨트,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정모)바시티 재킷, 셔츠, 팬츠 모두 **Off-white**. 니트 베스트 **JuunJ**. 타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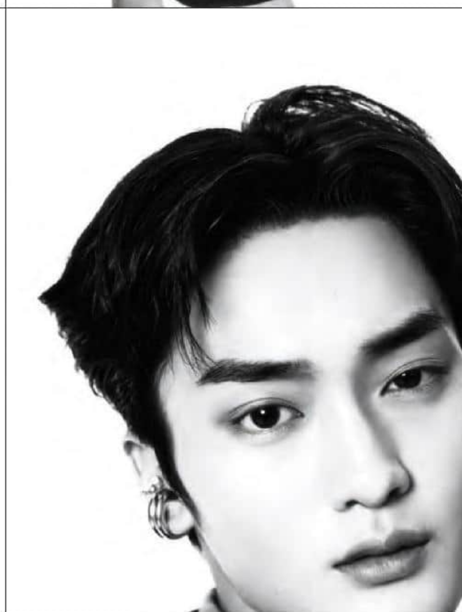
(위에서 왼쪽부터, 세림)트위드 재킷, 그레이 재킷, 팬츠 모두 **Wooyoungmi**. 목걸이 **Swarovski**. 이너 톱, 반지, 벨트,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앨런)재킷, 이너 셔츠, 쇼츠 모두 **Dior Men**. 큐빅 목걸이 **Abyb**. 이어폰 모양 목걸이 **Portrait Report**.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형준)이어 커프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원진)코트, 슈즈 모두 **Bottega Veneta**. 목걸이 **Portrait Report**. 이너 톱, 팬츠, 벨트, 팔찌,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태영)이어 커프 **Portrait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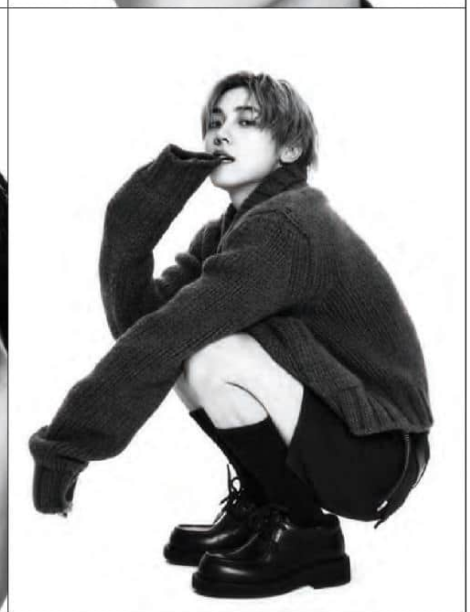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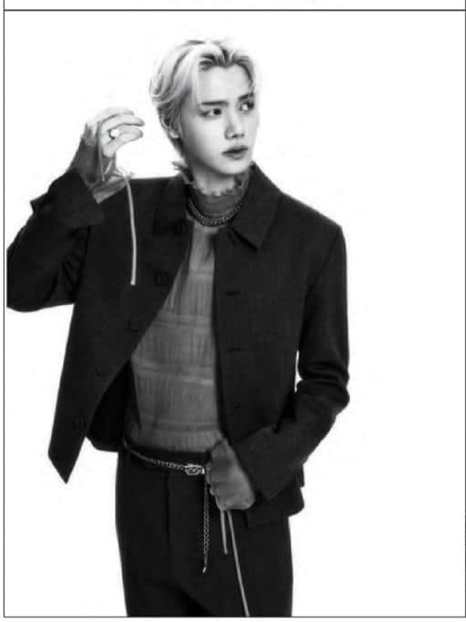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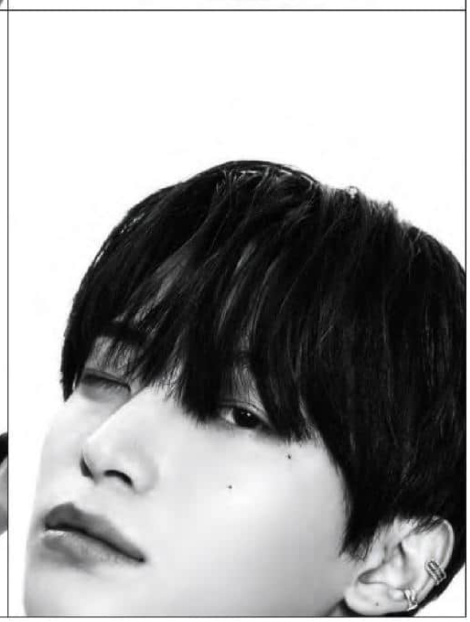












(성민)카디건, 쇼츠, 슈즈 모두 **Ferragamo**. 니삭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민희)재킷, 이너 톱, 팬츠 모두 **Dior Men**. 목걸이 **Portrait Report**. 벨트, 이어 커프,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우빈)니트, 레더 셔츠, 팬츠, 슈즈 모두 **Bottega Veneta**. 반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정모)이어 커프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왼쪽부터, 앨런)재킷 **Stu Office**. 셔츠 **Heute**. 레더 팬츠, 타이, 벨트,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우빈)셔츠, 팬츠, 타이,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세림)셔츠 **Bottega Veneta**. 팬츠 **Oy**. 니트 터틀넥,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귀고리 본인 소장품.
(원진)코트 **Juun.J**. 벨벳 팬츠 **Eenk**. 터틀넥, 슈즈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HAIR 배경화, 안형규
MAKEUP 안세영, 유혜수
STYLIST 박선용
ASSISTANT 이나라

세림 SE RIM **<FIND THE ORBIT>** 오랜만의 국내 컴백이라 음악 방송에서 '러비티'(크래비티 팬덤명)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대됐어요. 특히 타이틀곡 'Now or Never'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애착 가는 곡이기도 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노래 제목은 크래비티의 상황에도 잘 맞는 것 같고, 리스너분들께도 공감 가는 포인트가 많은 곡이 될 거라 생각해요. **생애 가장 큰 도전** 축구 선수의 길을 포기한 것. 축구 선수를 꿈꿨던 어린 시절 제 삶엔 축구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뿐인 걸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일생일대의 모험이자 도전이었죠. 사실 포기한다는 슬픔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신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잖아요. 그 자체가 제겐 큰 극복이 됐어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격투기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3년 동안 복싱을 한 적도 있고, 격투기 경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보는 편이에요. 보면서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아, 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절대 다치지 않고요.(웃음) **<로드 투 킹덤: ACE OF ACE>(이하 <로드 투 킹덤>)가 남긴 것** '크래비티'라는 팀에 대한 자부심. 물론 멤버로서 팀에 가지는 애정과 자부심은 늘 있었지만, <로드 투 킹덤>을 계기로 그 마음이 훨씬 커진 느낌이에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천생 리더'의 리더십** 멤버들이 저를 제일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멤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최대한 멤버들 편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정모, 우빈) 천생 리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저는 아무래도 어른 섹시 에이스지 않을까요?(웃음)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저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인데 유일하게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순간이 있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밤에 눈이 왔었는데, 엄마와 함께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해 소망** 저는 제 자작곡을 꼭 앨범에 넣고 싶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온 목표지만, 내년에는 꼭 제 자작곡을 러비티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크래비티는** 가족. **앨런 ALLEN** **<FIND THE ORBIT>** 10개월 만에 돌아온 만큼 러비티의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는 앨범이 되길 바라요. 앨범 제목처럼 저희도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각자가 하나의 소행성이라 생각하고, 나만의 궤도를 그려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앨범 제작 비하인드** 'Now or Never' 뮤직비디오를 보면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우주에 간 건 아니지만, 우주 헬멧도 써보고 촬영하는 내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앨런이 정의하는 크래비티의 음악**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 그게 크래비티의 음악을 설명하는 말이라 생각해요.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음악에 도전해왔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화 가능한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 래퍼만의 파워풀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크래비티로 활동한 모든 순간. 사실 전 지금까지 제 모든 '포카'를 모으고 있거든요.(웃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돼도 크래비티로 가장 멋지게 활동했던 시절을 추억하고 싶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무대** 저희가 팬데믹 기간에 데뷔해서 활동 초반엔 텅 빈 객석을 보며 무대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2021년 11월에 'CRAVITY COLLECTION:C-DELIVERY'라는 팬미팅 무대에서 처음으로 러비티와 마주했는데, 그 순간 설레면서도 뭉클했던 감정이 잊히지 않아요. **새해 소망** 제 고향 LA에 있는 '크립토 아레나'에서 크래비티 단독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나에게 크래비티란** 별.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자, 나의 가장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존재거든요. **정모 JUNG MO** **<FIND THE ORBIT>** 발을 다치는 바람에 앉아서 무대를 하고 있는데, 팬분들의 표정을 한 명 한 명 유심히 보게 돼요. 엄청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오죠. 빨리 나아서 멤버들과 다 같이 하는 무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앨범 제작 비하인드**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전까지 <로드 투 킹덤>도 함께 하고 있던 터라 계속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자연에 나가 촬영했는데, 초록색 풍경에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힐링하면서 기분 좋게 촬영했습니다. **생애 가장 큰 도전** 스타쉽 입사! 열심히 공부하다가 캐스팅돼서 인생의 진로를 단번에 바꾼 케이스거든요. 제 인생의 꽤나 큰 도전이었죠. 처음엔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잘못 왔나 싶었는데(웃음)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크래비티로 멋지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최근에 숙소에서 태영이가 배낭여행을 검색하는 걸 우연히 보고 저도 흥미가 생겼어요. 먼 나라도 혼자 훌쩍 떠나보고 싶은데, 일단은 가까운 곳부터 도전해보려고요. **<로드 투 킹덤>이 남긴 것** 경연을 거듭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전혀 힘든 티 내지 않고 모두가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해준 멤버들에게 고마워요. 모두 힘들 테니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끈끈해졌다는 걸 느끼죠.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어요. '장신즈' 멤버들끼리 페어 안무를 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 주로 2절 도입부를 맡았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1절 후렴이 끝나고 저만의 비주얼로 곡의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살았던 평범한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 기억을 다시 불러와 잊히지 않게 담아두고 싶어요. **새해 소망** 이번 앨범이 제 '최애' 앨범이기도 한데요,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저희의 앨범과 음악으로 '최애' 앨범을 갱신하고 싶어요. 러비티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무대도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요. **나에게 크래비티란** 내 20대 청춘. **우빈 WOO BIN** **<FIND THE ORBIT>** '최애'곡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제가 만든 곡인 'Horizon'인 것 같아요. <로드 투 킹덤>을 하면서 가사를 썼던 곡이라,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우승한 <로드 투 킹덤> 무대들을 정주행하시고, 이 앨범을 들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생애 가장 큰 도전** 음… 저는 서가앤쿡 메뉴 혼자 다 먹기! 지금껏 경험해온 것들은 사실 도전했다기보단 재미있어서 해왔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그런 마인드로 살아왔죠.(웃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조개구이 대(大)자 혼자 먹기? 너무 음식에 진심인가요?(웃음)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팀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선 라이브 잘하는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보컬리스트로서의 '나'** 사실 제 목소리 자체는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음역대가 다양한 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재즈, 스윙 장르의 곡을 좀 더 연마하고 싶어요.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전 그 순간을 과거에 두지 않으려고요. 과거에 지나간 일은 과거로 남겨두고, 잊어버리자는 주의예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도전도, 행복한 경험도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겠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무대** 저희의 첫 월드 투어였던 'MASTERPIECE'의 서울 공연이요. 음악 방송 무대와는 다르게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한 첫 번째 콘서트였죠. 그때 했던 무대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새해 소망** 사실 전 목표를 정하고 사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제 인생의 모토가 '현재를 살아가자'거든요. 어떤 시련이든 전 모두 즐길 준비가 돼 있어요. 무엇이 온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죠. 2025년에 크래비티가 해나갈 미션들도요. **나에게 크래비티란** 내 음악의 원천. **원진 WON JIN** **<FIND THE ORBIT>** 이렇게 길게 공백을 가져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러비티와 떨어져 있는 게 실감나서 늘 팬분들이 그리웠어요.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러비티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죠. 이번 앨범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요? 무대 영상과 꼭 함께 즐겨주세요! 곳곳에 포인트 안무도 많지만,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희가 표현하는 동작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해요. **생애 가장 큰 도전**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시작한 것. 제 안에 자리한 불안이나 고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내 짐을 회피하는 것 같기도, 상대방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게 하는 행동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래서 고민과 걱정은 늘 마음속에 쌓아뒀었죠.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얻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결국 저에게 큰 힘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내면의 강함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연기에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 장르가 있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역할도 해보고 싶고 일본어로 더빙 연기도 해보고 싶어요.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무대를 즐기는 것만큼은 제일 자신 있어요. 무대에서의 제 에너지를 함께하는 멤버들과 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제 에너지로 인해 힘을 받아 가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맛집 크래비티의**

비결 팀워크! 저희 팀만큼 가깝게 지내는 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무대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연습실 분위기도 늘 밝고 화기애애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바이브가 무대에서 멤버들 간의 합과 케미로 이어지죠.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부모님의 30대 모습을 기록해 두고 싶어요. 명절이나 휴가 때 본가에 가서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볼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야구장 갔었던 사진이나 데뷔 초 때 같이 찍은 사진만 봐도 '와, 이때 부모님 되게 젊으셨구나' 하고 새삼 느끼거든요. 그때로 돌아가 부모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2024년의 순간** 가장 최근에 했던 팬 콘서트 <BEYOND YOUR MEMORIES>. 오랜만에 만난 러비티 덕분에 벅차기도 했고, 무엇보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한 기분이 들었던 무대였어요. 그곳엔 온전히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대가 안식처 같았어요. **새해 소망** 2025년엔 더 많이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쓴 노래, 커버곡 할 거 없이 러비티분들에게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크래비티란** 행운. 제 삶에 가장 큰 원동력이 돼준 팀을 만난 건 제겐 너무나 큰 행운이에요. **민희 MIN HEE** **앨범 작업 비하인드** 저도 뮤직비디오 촬영 때가 기억에 남아요. 이번엔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도한 것 같은데, 특히 연기를 했던 장면들!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서 뿌듯해요. **생애 가장 큰 도전** 멤버들에 비해 제 도전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웃음) 초등학생 때 한창 불닭볶음면이 유행이었어요. 매운 걸 정~말 못 먹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기롭게 도전해봤는데! 아, 괜히 먹었다 싶었어요. 너무 맵더라고요.(웃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악기를 다뤄보고 싶어요. 아직 어떤 악기를 배워볼지 정하진 않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저에게 잘 어울리는 악기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열심히 배워서 무대에서 러비티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러비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제 입으로 말하려니 좀 부끄러운데… 짧은 몇 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괜찮지 않나(웃음)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고등학생 때 너무 무심하게 살았는지 사진 한 장 없더라고요. 물론 졸업 전에 데뷔해서 데뷔 이후엔 여러 사진이 남아 있지만, 학교 다니는 일상 사진, 친구들과 놀다가 찍은 사진을 많이 남겨둘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무대** <로드 투 킹덤>에서 했던 'Sugar Rush Ride' 무대. 살면서 가장 긴장하고 떨었던 무대였어요. 그때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긴장한 상태로 무대를 해서 그런지 내려와서도 몸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널 무대에서 우승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몸이 기억해서일까요? **러비티에게 하고 싶은 말** 러비티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저희 크래비티의 삶보다 더 고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이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직장에서 일하는 러비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러비티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멋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에게 크래비티란** 사춘기. 인생에 쉽게 찾아오지 않는, 한 번쯤 겪어봐야 하는 특별한 시기. 전 크래비티로서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형준 HYEONG JUN** **생애 가장 큰 도전**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자체가 큰 도전이었어요. 오디션을 보고 처음 서울에 올라왔는데, 낯선 도시가 그때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었죠. 지금 돌아보면 두 번 다시 경험해보지 못할 도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최근에 관심 있는 게 생겼어요.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특히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자격증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2025년에 따는 걸 목표로 배워보려고요. **춤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나라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유일한 행위. **퍼포먼스 맛집 크래비티의 비결** 하나의 목표를 두고 무대를 하지만, 멤버들만의 개성과 해석 또한 다채로운 것이 크래비티만의 퍼포먼스예요. 예를 들어 어떤 멤버는 '감동'을 아련하게 표현한다면, 누군가는 파워풀하고 섹시하게 풀어내기도 하죠. 그 '다름'이 크래비티의 퍼포먼스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무대** 케이콘을 미국에 가서 처음 해봤는데, 그때 공연장이 360도 무대였거든요. 앞뒤, 좌우로 K팝을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저희를 향해 환호해주시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국내에서 하던 무대와는 다르게 해외 관객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K팝 자체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한 팀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 자체를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2024년의 순간** 누나들이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누나들이랑 여행을 가는 게 가능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행 가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재미있게 놀다 온 기억밖에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새해 소망**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보내고 싶어요. **나에게 크래비티란** 청춘.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크래비티로 활동하는 지금일 거라고 생각해요. **태영 TAE YOUNG** **<FINE THE ORBIT>** 컴백 직전에 팬 콘서트로 러비티를 만나긴 했지만, 앨범을 내고 팬분들을 무대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더라고요. 보고 싶었던 러비티를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앨범 제작 비하인드** 콘서트 일정으로 홍콩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번 앨범 재킷과 필름들을 촬영했어요. 이국적인 해외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도 기억나요. 멤버들과 달리는 신이 많았는데, 그야말로 '발' 연기에 신경 썼죠.(웃음) **생애 가장 큰 도전** 지난 휴가 때 항공편부터 호텔까지 모두 혼자 준비해서 누나와 발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뿌듯했어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새해가 되면 매번 마음먹는 게 있어요. 작곡.(웃음) '올해는 꼭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실천하지 못했는데, 새해인 2025년엔 꼭 제대로 시작해볼게요! 장비도 다 준비해뒀기 때문에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의 갭 차이? 무대 위에선 강렬하고 멋진 모습이라면, 무대가 아닌 곳에서의 저는 귀엽죠.(웃음) **'태플리'가 추천하는 연말에 듣기 좋은 노래** 퇴근하고 나서 재즈를 들을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특히 요즘은 쳇 베이커의 노래를 많이 듣는데, 언제나 첫 곡은 'I Fall in Love Too Easily'예요. 그다음은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재즈를 랜덤 재생으로 듣죠. **새해 소망** 이제 데뷔 5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난 휴가 때는 누나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지만, 다음엔 더 먼 곳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고 싶기도 하고, 제 자작곡도 러비티에게 들려드리고 싶고, 단독 화보도 찍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 모두 다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크래비티란** 인생. 크래비티로 활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있고, 지금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성민 SEONG MIN** **<FINE THE ORBIT>** 오랜만에 좋은 곡으로 러비티에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준비하는 내내 너무나 설렜어요. 그리고 연말을 무대 위에서 러비티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생애 가장 큰 도전** <로드 투 킹덤>에 출연한 것. 경연을 앞두고 처음엔 겁을 좀 많이 먹었는데, 경연 무대를 하나둘 거치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깨나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죽지 않는 법이요.(웃음) 스스로 기죽거나 움츠러들지 않으려고 연습을 배로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편집 앱을 다운받아서 혼자 이리저리 해보며 연구하고 있어요. 회사 직원분들께 좀 더 배워서 2025년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해보고 싶어요. **무대 위 '나'의 에이스적인 면모** 전 제 목소리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파트만큼은 모두 킬링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기록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 전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기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남겨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무대** 저희 첫 번째 월드 투어인 'MASTERPIECE' 때 푸에르토리코에서 공연을 한 적 있어요. 인이어를 뚫고 들어올 정도로 팬분들이 환호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강렬해서 순간 멍해질 정도였어요. 팬분들의 환호와 응원 덕분에 월드 투어도 잘 마칠 수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2024년의 순간** <로드 투 킹덤> 파이널 날, 우승하고 숙소로 돌아와 아무 걱정 없이 잤던 하루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할 것 하나 없이 그저 마음 편하게 잤던 기억! **새해 소망** <코스모폴리탄> 커버 촬영하고 싶습니다!(웃음) **나에게 크래비티란** 학교. 멤버들이라는 친구를 만나 같이 활동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거든요. 음악 활동하느라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지 제게 크래비티는 또 다른 학교와도 같아요. C

art designer JIN NAM HYUK

Pieces of You



<킬러들의 쇼핑몰> '지안', <구경이> '케이', <킹덤> '계비 조씨'….
무한한 서사를 담아내는 김혜준의 말간 얼굴을 마주했다.

Freelance Editor LEE YOUNG WOO
Photographer JANG DUK HWA



THIS PAGE 퍼 코트, 미디 부츠 모두 **Michael Michael Kors**. 드레스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OPPOSITE PAGE 코트 **YCH**. 셔츠 **N°21**. 미니스커트 **MCM**. 레이스업 슈즈 **Max Mara**. 타이, 양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슬리브리스 니트 톱, 스커트, 펌프스 모두 Givenchy.





장갑이 달린 숄 **Moschino**. 레이어드 디자인의 데님 팬츠 **Pushbutton**. 안경 **Burberry by EssilorLuxottica**. 앵클부츠 **Jil Sander**. 슬리브리스 톱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퍼 코트 Michael Michael Kors.



베스트, 티셔츠 모두 **Vivienne Westwood**. 벨벳 팬츠, 펌프스 모두 **Ferragamo**. 목걸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을 보면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뭔가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나에게 서운하더라고요. 왜 이것도 기억을 못 하지? 그래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문득 지난 기록들을 펼쳐봤는데, 평소보다 더 기쁘거나 슬펐던, 감정이 유독 크게 느껴졌던 순간들을 적어뒀더라고요. 기억에서 흐려진 순간들을 열어보는 게 위로가 됐죠. '나한테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았다고? 근데 기억하는 건 하나도 없네? 그럼 언젠가 다가올 힘듦도 다 지나가겠지' 이런 위안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도 좋아하나 봐요. 필름 사진을 많이 찍던데, 가장 셔터를 누르고 싶은 순간은 언제예요?** 오늘도 한 장 남겼어요.(웃음)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찍지만,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건 찍어둬야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순간을 추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남기고 싶을 때나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이때가 생각나겠다 싶을 때예요. 최근 촬영을 마친 작품 <캐셔로>의 마지막 촬영 현장에선 다 같이 작업한 사람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세트 구석구석도 찍어놨죠. **그래서 SNS에 스태프들, 동료 배우들 등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많은 거군요. 근데 필카 찍는 거, 현상해서 데이터로 받아 보기까지 은근히 손도, 시간도 많이 가는 일이지 않아요?** 저도 찍고서 인화 맡기는 걸 까먹어서, 지금 쌓인 롤이 열 개는 되는 것 같아요.(웃음) 필름이 쌓이면 연례행사처럼 가서 맡기고 그래요. 결과물을 기다리는 재미도 있죠. **참,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혜준 씨 별명이 '햄토리'던데요?** 오, 저에게 그렇게 귀여운 별명이? 근데 주변에서는 저를 그런 귀여운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아요.(웃음) **그런데 막상 귀여운 이미지랑은 상반되는 센 캐릭터를 많이 맡았네요. 드라마 <킬러들의 쇼핑몰> '지안', <구경이> '케이', <커넥트> '최이랑', <킹덤> '계비 조씨'까지. 저마다 다채롭게 독특한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저도 강한 캐릭터를 많이 만나게 돼서 신기했는데요, 첫인상만으로는 캐릭터의 광기 어린 이면까지 모두 파악되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평범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게 됐을 때 더 짜릿하잖아요. 해맑음 속에 있는 '서늘함'이라든지, 순수한 모습 속에 감춰진 '잔혹함' 같은. 감독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알아봐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론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장르도 찍어보고 싶다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장르라서요. 다양하게 해보고 싶거든요. 로코는 볼 때마다 감정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평소 성격이 좀 발랄한 편이라, 주변에서도 "너 로코 하면 잘할 것 같은데"라고도 해요. **맞아요, 로맨스 코미디 속 주인공을 연기하는 혜준 씨의 모습도 보고 싶네요.** 로코도 좋고, 또 복잡한 감정을 그리는 정통 멜로도 해보고 싶어요.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처럼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모순적이기도 한 인간의 내면을 사랑을 기반으로 그려가거든요. 캐릭터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차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가 후반 작업 중이라고 들었어요. 2025년 공개 예정이죠?** 초능력자가 나오는 웹툰 원작의 작품이라 촬영할 때도 새로웠어요. 초능력을 표현하는 신이 많다 보니 CG가 많이 들어갈 예정이죠. 그래서 크랭크인 전까지 준비할 것도 많았고, 슛 들어간 후에는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많이 했어요. 후반 작업까지 입힌 최종 결과물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예상이 안 가고, 저도 너무 기대돼요. **벌써 새해예요. 2025년은 혜준 씨가 만으로 서른 살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30대 출발점에 선 소감이 어때요?** 주변에서 "서른이면 다 컸네, 어른이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30대는 어른의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내심 '30대엔 더 여유 있고 멋진 어른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냥 몇 개월 더 산 김혜준이잖아요. 어제에서 오늘 된 거고요. 내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허무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자 하는 여유가 생긴 거죠.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즐겁고, 반대로 오늘 즐거워도 내일은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소소한 삶이 반복돼 쌓이면, 언젠가는 제게도 그 모든 걸 잘 흘러가게 둘 수 있는 연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일상을 성실히 살아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과 함께요.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이번엔 시점을 1년 후로 옮겨볼까요? 2026년의 내가 2025년의 나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이건 참 잘했다' 칭찬도 하고 싶을까요?** 매년 느끼는 건데요, '편하게 생각할걸, 그때 더 놀아둘걸'.(웃음) 연말이면 항상 한 것보다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들더라고요. 그래도 매년 올해도 잘 넘겼다, 이런 점은 스스로 기특하게 생각해요. 거창한 뭔가를 잘해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거나 무너지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웃으면서 잘 버텨냈다. 2025년의 끝에서 저를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더 바랄 게 없죠. 매년 대단한 성취를 보여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지치는 일이잖아요. 올해 이만큼 하면, 그다음엔 이만큼(큰 원을 그리며) 해야 성취일 거고, 그다음 해엔 또 이만큼(더 큰 원을 그리며) 해야 성취라고 느껴질 텐데, 그걸 벗어나면 되죠. 작년엔 이걸 했으니 올해는 이걸 해야지, 다음엔 저거 해야지. 크기를 재는 성취보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뤄나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크기보다 카테고리, 너무 좋은 말인데요? 지혜가 가득한 답변이에요.** 하하. 그러다가도 괴로울 땐 또 엄마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어떡해~"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숨통을 좀 트고 나면 다시 살아갈 원동력을 얻죠. 전 그거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C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즐겁고, 반대로 오늘 즐거워도 내일은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소소한 삶이 반복돼 쌓이면, 언젠가는 제게도 그 모든 걸 잘 흘러가게 둘 수 있는 연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일상을 성실히 살아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과 함께요."

editor KIM MEE NA/art designer KIM JI WON



니트 톱 **Marc Jacobs**. 스커트 **YCH**. 초커 **Vivienne Westwood**.

HAIR 이일중
MAKEUP 이봄
STYLIST 김지원 by
1VISUAL
ASSISTANT 이진경



CATCH ME IF YOU CAN

관능적이고, 강인하며, 관객을 눈물짓게 하는 뭉클함까지. 솔라가 연기하는 희대의 스파이, '마타하리'엔 아이돌부터 솔로 아티스트, 뮤지컬 배우로 활로를 넓혀온 솔라의 고군분투가 담겨 있다.

Feature Editor
KIM MEE NA

Photographer
CHAE DAE HAN



THIS PAGE
재킷 **Son Jung Wan**. 블라우스 **Recto**. 스커트 **Philosophy**. 퍼 부츠 **Gianvito Rossi**. 레더 장갑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OPPOSITE PAGE
퍼 톱, 선글라스 모두 **Eenk**. 레더 미니스커트 **Vivienne Westwood**. 스타킹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THIS PAGE
재킷 **Weekend Max Mara**. 셔츠 **MSGM**. 데님 팬츠 **Veronica Beard**. 미디 부츠 **Michael Kors**. 벨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OPPOSITE PAGE
트렌치코트 **Bonbom**. 쇼츠 **Weekend Max Mara**. 선글라스 **Gentle Monster**. 이너 톱, 스타킹, 롱부츠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블랙 스포츠카 **Ferrari**.









레더 재킷, 레더 스커트
모두 **Recto**.
스틸레토 힐
Ferragamo. 이너
톱, 귀고리, 스타킹,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HAIR 장해인
MAKEUP 정재은
STYLIST 박성배
ASSISTANT 이나라



지난 시즌에 워낙 '찰떡'으로 소화해서 이번에도 꼭 솔라의 <마타하리>를 보고 싶었어요. 3연에 이어 4연에도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때요? 기회가 다시 와서 정말 영광이에요.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준비했죠. 확실히 3연보다는 여유가 생겼어요. 연습할 때도 그랬지만 무대에서도요. 지난 시즌은 눈앞에 놓인 대사와 넘버들을 쳐내기 급급했는데 이번 시즌엔 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지난 시즌에 '솔타하리'(솔라가 연기하는 '마타하리')를 봤더라도 재관람할 이유가 확실하네요?** 맞아요. 춤과 노래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농익었달까요? 연출님 그리고 함께 출연하는 배우분들도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예요.(웃음) **공연을 보면서 느낀 건데, 춤과 노래가 만만치 않은 작품이라 무대가 끝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할 때는 너무 재밌어서 힘든 줄도 모르는데 공연을 끝내면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관객분들이 좋아해주시고 함께 무대를 즐기는 게 느껴져서 뿌듯해요. **가장 좋아하는 넘버를 꼽는다면요?** '사원의 춤'과 '마지막 순간'요. '사원의 춤'은 신비로운 무희 '마타하리'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때묻지 않은 마타하리 본연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마타하리가 사랑하는 남자 '아르망'을 두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부르는 곡이에요. 인간 '마가레타'(극 중 마타하리의 본명)의 진심이 느껴지는 넘버죠. 그 장면을 노래할 때면 늘 감정이 벅차올라요. **저도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뮤지컬을 보면서 운 건 처음인데, 솔라 씨가 마가레타에 온전히 이입했기 때문에 그 진심이 객석까지 닿은 거겠죠?** 저도 늘 눈물을 가까스로 삼켜내는 장면이에요. 울면 목이 잠겨 노래를 망칠 걸 아니까.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쏙 들어가기도 해요. 뒷부분에 고음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웃음) **<마타하리>를 초연부터 열연해온 옥주현 배우에게 배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라 배울 점도 많고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옥주현) 언니가 목에 좋다고 추천해준 오미자도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뮤지컬 '필수템'이 됐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피드백을 주세요. 이를테면 노래할 때 '제일'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단어를 '가장'으로 바꿔서 불러보라고 하셨죠. 발음 차이로 소리가 더 예쁘게 들릴 거라고요.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꿀팁'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옥주현 배우의 <마타하리> 무대를 실제로 보면 어때요?** 언니는 거의 모든 대사를 자기 입에 잘 붙게 조금씩 변형해서 연기해요. 그래서인지 훨씬 자연스럽고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언니 무대를 보며 저만의 방식으로 대사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옥타하리'(옥주현이 연기하는 '마타하리')는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섹시한 마타하리죠.(웃음) **옥주현, 김소향, 차지연까지 그동안 마타하리를 맡아온 배우들은 정말 쟁쟁하고, 자기만의 색깔도 뚜렷해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솔타하리'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전 마타하리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그동안 선배님들이 구축해 온 탄탄한 캐릭터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요. 시야를 넓혀 좀 더 다르게 해석해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자유분방한 '솔타하리'를 만들었죠.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나면 자기 관리에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다쳐도 안 되고, 감기에 걸려서도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감기 걸릴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약은 언제나 구비해두고, 오미자도 열심히 먹어요! 제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에게 민폐가 될 것을 아니까 더 조심하게 되죠. **뮤지컬을 시작하기 전부터 솔라는 자기 관리의 귀재였잖아요. 무대에서 상의를 찢고 복근을 노출하는 퍼포먼스나 폴댄스 같은 고난도 운동에도 진심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마무로 바쁘게 활동하던 시기에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무대에서 춤을 못 추니까 모두에게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 같아요. 재활과 운동으로 디스크를 극복했고, 그때부터 건강에 되게 민감해졌어요. **지금 뮤지컬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건 뭐예요?** 요즘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활동을 위해 중국과 대만에 갈 일이 있기도 하고 대만 팬분들과도 소통하고 싶어서요. **그럼 뭘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해지나요?** 자기 전에 <돌비공포라디오>를 꼭 들으면서 자는데, 그때 가장 힐링돼요. **온갖 괴담과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무섭진 않아요?** 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돌비공포라디오>를 보지 않을 땐 바람 소리, 빗소리 등을 모아놓은 백색소음 ASMR을 들어요. **워낙 작사, 작곡에도 많이 참여해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곡 작업할 때도, 뮤지컬을 할 때도 음악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일상에서는 음가가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싫더라고요.(웃음) **<마타하리>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뮤지컬은 물론 솔로 아티스트로서 활약하는 솔라 씨의 모습도 정말 빛나요. 얼마 전 <뮤직뱅크 인 마드리드>에선 솔로곡 'Blues'로 무대를 꽉 채웠죠.** 애정하는 곡이에요.(웃음) 제목 그대로 블루스 장르인데, 현장에서 팬분들의 호응에 저도 취해 더 흥분됐던 것 같아요. **데뷔하고 나서는 연말과 연초를 늘 바쁘게 보냈죠? 가끔은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연말이 그리울 것 같아요.** 데뷔 후 연말에는 늘 시상식 참석과 각종 무대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던 것 같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싶기도 했죠. 근데 저도 이제 데뷔한 지 11년이 됐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되면서 연말에 스케줄이 줄었어요. 늘 제가 가 있던 시상식이며 연말 무대를 집에서 TV로 보니까 그게 또 속상한 거예요. 스스로가 짠하게 느껴지고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동안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번 연말연시는 <마타하리> 공연 일정으로 꽉 차서 다른 생각은 잘 안 들겠어요.** 맞아요. <마타하리>가 전부죠.(웃음) 공연이 끝나는 3월까지는 푹 빠져 있을 생각이에요. **<마타하리>를 잘 마치고 나면 또 어떤 작품에 도전하고 싶나요?** 뮤지컬이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든데 공연을 시작하면 힘든 게 눈 녹듯 사르르 녹아요. 재밌고 뿌듯한 감정만 남죠. 그래서 뮤지컬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시카고> '록시'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물랑루즈!>와 <아이다>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죠. 모두 참여해보고 싶은 작품들이에요. **'푼수끼'가 있는 섹시한 스타, 록시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새롭게 세운 신년 계획도 있어요?** 조금 식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열심히 살자'는 마음을 항상 가슴에 새겨요. 2025년에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목표예요.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질까 봐 <마타하리>가 끝나고도 '냅다' 달리려고요. **어떤 방식으로 '냅다' 달릴 예정이죠?**음… 컴백이요?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웃음) C

"뮤지컬이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든데 공연을 시작하면 힘든 게 눈 녹듯 사르르 녹아요. 재밌고 뿌듯한 감정만 남죠. 그래서 뮤지컬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art designer KIM JI EUN

LIFE

세상이 흔들리고 눈앞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계속돼야 하기에, 새해 새날을 기다리며 내일의 고요와 평온을 그립니다. 당신에게 띄우는 이 편지와 함께. **EDITOR CHEON IL HONG**

NEW YEAR'S CAKE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불기 전 느끼는 설렘처럼 2025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의 케이크를 그렸습니다. Happy new year! **Illustration by KYUHANA**



art designer **KIM JI EUN**

YOUR BODY IS YOUR HOME



So let it be. 온전한 몸과 온건한 마음. 새로운 시작이 가져다줄 우리의 큰 선물이길 바라요. 몸은 당신의 집. 집이란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 새해에도 늘 건강하세요! **Message from 박참새(시인)**

새해가 되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뒤로하고 다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 힘은 자신을 믿고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솟아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가장 단단한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시각화했습니다. **Illustration by 김다혜(스튜디오 알트)**

우리가 시대다



새해에는 용기를 말할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이 시대를 저버리지 않을 용기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 용기에 동참합니다. **Message from 고선경(시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대다'라는 문장의 응원봉을 의미하는 오브제를 작업하여 있는 힘껏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세대의 강함과 반짝거림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Typography by 김영선, 이하경**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시작은 설렘도 주지만 고민과 두려움도 동반하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과 걱정이 들더라도 일단 하고 나면 달라지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해를 잘 시작해보자는 마음을 담아 보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단 해봅시다! **Message from 신스(래퍼)**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승리를 이끈 것은 자신감과 약간의 엉뚱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하장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디자인했습니다. **Illustration by 배수진(멀티플)**

DEAR. FUN FEARLESS FEMALE!



유쾌하고 용감한 여성들의 메시지 하면 저는 바로 교환 일기가 떠오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는 교환 일기, 러브장, 우정장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해왔지요. 구할 수 있는 각종 재료를 동원해 한 땀 한 땀 정성껏 꾸며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에도 교환 일기가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합니다. 이 교환 일기의 모든 장이 사랑스럽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페이지를 오마주한 연하장으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Illustration by 백나은**

art designer KIM JI EUN



A B C 디지털 디톡스

'애플 풀코스'로 차려진 디지털 진수성찬을 뒤로하고 A(App), B(Browser), C(Contents)로부터 자유를 얻는 신박한 방법. EDITOR KIM MEE NA

이번 디지털 디톡스 경험의 의미는 단순히 IT 기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으로부터 잃었던 의지와 사유와 감각을 찾는 과정에 있었다. 스마트폰 대신 더 스마트한 나를 믿고, 내 나름의 감각과 의지와 사유로 스마트한 선택을 해보자는 것.

예전에 그런 밈을 본 적이 있다. 워낙 많은 SNS를 돌려가며 보는 탓에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은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급기야 전원이 꺼져버리자 입은 옷은 중세 시대의 의복으로 돌아가고, 촛불을 켜고 문명이 없는 시대의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모습이 우스웠다. 물론 과장이 있지만 현대인이라면 십분 공감하는 영상이다. 스마트폰에 대한 현대인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대목이자, 문명의 실익이 모두 스마트폰에 몰려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밈은 그래도 기억을 어느 정도 해내어 다행이다. 요새는 허구한 날 기억이 날 듯 말 듯 가물가물하고, 검색해야 하는 키워드조차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한다. 간단한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면 이게 혹시 노화의 한 부분일까 혹은 정말 '영츠하이머'인가 의심하게 된다.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늘 어제보다 조금씩 아둔해져간다는 생각만큼은 명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지털 디톡스' 체험에 관한 글을 청탁받았다. 청탁 메일이 도착했을 당시 내 책상 위 풍경은 그야말로 '디지털 아사리판'이었다. 바로 앞에 있는 맥북 모니터에는 웹 브라우저 창이 촘촘히 열려 있었고, 그 뒤 아이패드에서는 알고리즘이 알아서 재생해주는 영상의 소리가 의미 없이 허공을 메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애플 워치와 에어팟이 함께 충전되고 있는 3 in 1 충전기에, 맥 세이프로 충전 중인 아이폰의 화면으로 여러 가지 앱 알림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다.

'흔한 앱등이의 책상. jpg'라 명명할 만했다. '디지털 옆에 디지털 그리고 또 디지털'이 병렬적으로 산재하는 모습이 어지러워 보였다. 하드웨어 속의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면, 앱(App)과 브라우저(Browser)와 콘텐츠(Contents)가 수도 없이 지껄이고 떠들어 재끼는 모양새였다. 융숭하다 못해 과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에 날아든 청탁 메일 한 통은 마치 디지털 단식원으로부터 받은 전갈 같았다. 갖가지 콘텐츠와 갖은 양념과 소스로 절여진 도파민의 진수성찬을 뒤로하고, 소박하게 삶아낸 구황작물 한 덩이를 달랑달랑 들고 자유로이 걷는, 현대 문명 없던 어느 시절의 옛날 사람. 나한테 디지털 디톡스의 이미지는 그런 심상이었다. 이미 디지털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사람이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이마저 '검색'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머리보다 손이 빠르게 상황을 타진했다. 가장 많이들 설명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라는 것이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출근도 퇴근도 없는 콘텐츠업자 프리랜서에게 조금은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었다. 언제 절체절명의 이슈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카톡, DM, 이메일, 전화 등등 갖은 연락망을 활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어떤 공간에서는 와이파이나 어떤 전자기기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원룸이라 이 또한 패스다. 그렇다면 작은 공간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박스에 휴대폰을 일정 시간 넣어놓는 것이다.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열 수 없게 만든 상자에 휴대폰을 넣어놓는 것. 그러나 아이클라우드로 연동된 디지털 기기 과식자에게 이는 그다지 뾰족한 방법이 될 수는 없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다며 빠져나갈 핑계만 만들어 '디지털 디톡스'라는 과업마저 미루고 미루던 중 의도치 않게 디지털 디톡스를 실행하게 됐다. '영츠하이머'를 역이용하게 된 것. 다시 말해 기억력 저하가 디지털 디톡스를 가능하게 했다. 전말인즉 화장실에 휴대폰을 가져갔다가 두고 나온 줄도 모르고 네 시간씩이나 휴대폰 없이 있었다. 물론 랩톱으로 메신저나 업무에 필요한 검색은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네 시간 동안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주하게 된 옛날 드라마 클립이랄지, 인도 신부 메이크업 챌린지랄지, 알고 싶지 않았던 연예계 소식 등을 꼬리의 꼬리를 물며 보느라 허비하는 시간은 없었다는 것.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스크롤을 당겨 바라보게 되는 릴스와 숏츠로 허송세월을 보내본 사람이면 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족의 발전인지. 식이요법으로 치면, 백색 밀가루 정도는 끊게 된 것 아닐까?

이후 의도적으로 화장실 선반에 종종 휴대폰을 두고 시간을 보내봤다. 소감은,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따로 돈을 들여 '금욕 상자', '휴대폰 감옥'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공간을 분리한 효과가 있었을뿐더러, 다시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시간의 공백이 있으니 몸의 생리 주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시간을 정한 효과까지 있었다. 영츠하이머를 역으로 이용했던 케이스는 꽤나 효과적이었다.

영츠하이머 덕분에 얼렁뚱땅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했다면, 그다음은 의지의 영역이다.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디지털 디톡스를 정의해보고자 했다. 디톡스 주스로 유명한 ABC주스가 'Apple(사과)', 'Beet(비트)', 'Carrot(당근)'을 의미한다면, 나의 디지털 디톡스는 '앱(App)'과 '브라우저(Browser)'와 '콘텐츠(Contents)'로 이뤄진 ABC를 하나씩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일단 의미 없는 스크롤을 당기게 만들었던 휴대폰이 화장실에 있어준 덕분에 앱은 우선적으로 해결한 셈. 두 번째 스텝은 콘텐츠를 줄여가는 일이었다. 1인 가구의 헛헛함을 메우려고 아이패드를 켜두는 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요함이 잔잔히 흐르는 집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적적함보다는 그곳에 깔린 'FOMO(Fear of Missing Out)'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는 실시간으로 알아야 하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들도 체크해야 한다는 강박. 나는 그런 시류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애쓰며,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콘텐츠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 멀티태스킹은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기보다 디지털의 도가니 속에서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닐까? 오랜만에 머릿속에 여러 질문과 문장이 떠올랐다. 스스로 사유를 하게 됐다는 자각이 든 것.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나의 사유는 영상 속 사람의 생각, 또 댓글 속 사람의 생각에 의존했는지도 모른다. 간만에 머리에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고요함이 가져다준 공백의 바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고유함을 데려왔다. 그다음은 모니터에 촘촘하게 켜져 있던 웹 브라우저와 탭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으로 너저분해진 디지털 공간. 고개를 들어 방을 살펴보니 꼬라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니터 속 환경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모니터 밖의 집도 새롭게 정리할 결심을 했다. 미뤄왔던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까지 하니 한참이 걸렸다. 허기가 느껴졌다. 명색이 디지털 디톡스로 시작한 이 정리에서 배달 앱을 켜는 건 무의미한 결정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양배추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요리할 때면 유튜브 선생님에게 의지하곤 했지만, 이번엔 검색을 잠시 뒤로하고 기억에 의존해보기로 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배우 문소리가 한 대사가 떠올랐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잘 안 하는 선택이지만 양배추를 가벼운 드레싱이나 어떤 양념도 없이 생으로 씹어봤다. 달고도 매운맛이 났다. 찌고 볶아 먹을 땐 모르던 맛이다. 며칠 그렇게 먹으니 생으로 먹는, 조리 없이 먹는다는 것이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디톡스가 다이어트까지 야기할 줄이야!

디톡스 주스 며칠 마셨다고 금방 다이어트가 되지 않듯, 디지털 디톡스도 요 며칠 시도했다고 해서 바로 새 삶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혼란을 부르는 디지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상인 덕분에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 느닷없이 벌어지는 참담한 사건에 분노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가정식 요리법을 구경할 수도 있고, 간밤에 갑자기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금방 예약할 수 있는 것도 이 디지털 세상이 만든 자명한 편리함이다. 그 편리한 세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디지털 디톡스 경험의 의미는 단순히 IT 기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으로부터 잃었던 의지와 사유와 감각을 찾는 과정에 있었다. 스마트폰 대신 더 스마트한 나를 믿고, 내 나름의 감각과 의지와 사유로 스마트한 선택을 해보자는 것. 결국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의 의존도를 조절하는 주체가 다시 내가 돼보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C

Writer 에리카 팕(작가 겸 카피라이터)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LEE HO HYUN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2024년을 동동 유영하며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던 각종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의 존폐를 점쳐본다. 챗GPT, MBTI, 갓생, 텍스트힙… 지금 젠지들의 필수 덕목과도 같은 기세는 과연 2025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EDITOR **CHEON IL HONG**

TOPIC ❶ | 텍스트힙

YES — 잠깐, 텍스트힙의 존폐를 논하기 전에 '텍스트힙'이란 무엇인지 그 뜻부터 검색해봤다. 단어만 생소할 뿐 익숙하게 보아온 거다. 생각해보면 트렌드라는 건 그렇다. 듣도 보도 못 하던 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때도 있지만, 대체로 존재하던 것이 별안간 유난스러워지는 일 같다. 텍스트힙을 알고, 취하고 행해온 이들을 떠올려본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그는 늘 책을 끼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다. 말을 타고 가며 책을 읽었단 소문도 있고. 심지어 전쟁통에서는 책을 수레에 실어 끌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읽었다고 한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책 읽는 사람만 봐도 눈길이 꽂히는데 말 위에서 독서하는 장군이라니(힙하다!). 나폴레옹도 어느 정도는 '책 읽는 나'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 "전쟁터에서도 책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나, 정말 멋져!" 하고 말이다. 영화 <금발이 너무해>의 주인공으로 얼굴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리즈 위더스푼 또한 한 시절 텍스트힙에 불을 지핀 인물 중 하나일 테다. 위더스푼은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이 읽은 책들을 소개해왔는데 이는 점차 인기를 얻어 비즈니스 '리즈의 북클럽'으로 발전했다. 여성이 서사의 주체로서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작품들을 직접 선정해 소개하는 그는 일찍이 다독가로 알려져왔다. 할리우드 스타가 추천하는 책은 도서 시장에도 엄연한 영향력을 미쳤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20주 이상 연속으로 오르는 건 기본, 인쇄된 책 기준 평균 2만 권 정도가 판매된다는 소식에 나 또한 그가 소개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주문한 기억이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연일 절판이 이어지고 서점가는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뉴스를 보았다. 어린 시절 <해리 포터> 시리즈 신권이 나오는 날이면 서점에 일찌감치 가서 매대를 서성이곤 했는데, 그런 기억 이후로 이런 현상은 정말 오랜만이다. 멋지고 좋은 것. 사람들은 그런 것에 순수하게 동화된다. 책은 멋지다. 심지어 좋다. 책벌레 나폴레옹이, 여성 도서를 선정하는 위더스푼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이 책으로의 포문을 열어주었고 사람들은 그 안으로 가볍게 편승하여 텍스트힙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책은 독서 여부와는 별개로, 손에 쥐는 행위만으로도 고양감을 선사한다. 그러니까 방 한쪽에 책 기둥을 쌓아두곤 흡족해하는 거겠지. 감히 예견해본다. 종이책이 사양길이라고 했던가? 수십 년 전부터 떠돌던 괴소문이 실제가 되어 어느 날 종이책이 전부 사라지게 된대도 텍스트힙은 남아 있을 테다. 어떤 미래가 찾아온대도 텍스트힙은 폐(廢)하지도, 패(敗)하지도 않을 거라 본다. 책이 없어져도 누군가는 책 기둥으로 방을 지탱하고 있을 테니까.

— 이주연/산책방 (에디터, 기획·편집자)

YES — "독서는 멋져."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 사이에 불어오는 텍스트힙은 단순히 독서를 즐기는 애호의 의미 이상으로 특정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이 있을 것만 같고, 명확한 취향을 지녔을 것만 같고, 진중한 멋을 지닌 것만 같은. 지금까지 텍스트힙이 이미지로서 기능했다면 2025년부터는 실질적 독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점으로 독서를 향한 전 세대의 호기심과 관심도가 높아졌다. 갑작스러운 서점 오픈런이라니. 생소하고도 반가운 풍경이었다. 한강 작가의 열풍은 며칠간의 짧은 호응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노벨 문학상 수상 자리에 선 모습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인터뷰와 강연 자리에서 한 말들이 온라인 구석구석으로 널리, 오래 퍼졌다. 이제 문학과 독서는 고고한 명예까지 얻었다. 2025년에도 텍스트힙의 열기는 뭉근하게 지속될 것이다. 특히 MBC가 웹 예능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부활시킬 거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중은 더 넓게, 더 실질적으로 책과 가까워질 예정이다.

— 이자연(<씨네21>기자,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TOPIC ❷ | 숏폼

MAYBE — 옥스퍼드대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편집부가 2024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brain rot)'을 선정했다. 편집부에 따른 사전적 정의는 '사소하고 의미 없는 자료,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과잉 소비하면서 개인의 정신 또는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정신을 보다 더 맑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인터넷에 덜 접속하라는 요구는 이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느껴진다. 동시대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중 아무도 그런 경험을 성공적으로 해낸 적이 없으면서 서로에게 공허한 희망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 전격 도입 또는 스마트폰을 꺼두고 진짜 책 한 권 읽는 시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모은 것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데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온라인 세상에 접속해 있는 와중에 뇌의 신선도가 걱정된다면, 계속해서 귀여운 동물 영상,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응집한 아이돌의 킬링 파트 숏츠, 얼마 전 릴스 만들기에 도전한 내 지인의 다소 매가리 없는 내레이션이 곁들여진 릴스를 보시길. 그것은 언제나 롱폼으로 된 가짜 뉴스 한 편을 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 서해인 (<콘텐츠 로그>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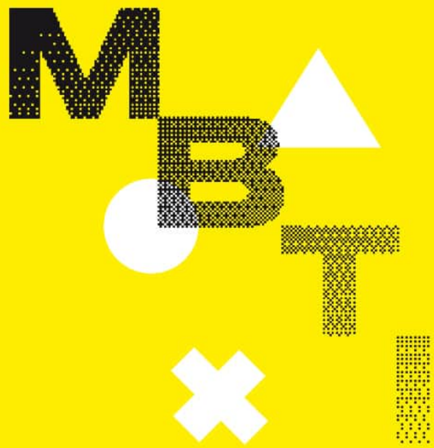
YES — 손가락을 튕길 때마다 새로운 스테이지가 시작된다는 짜릿함 때문에 숏폼 콘텐츠는 늘 슈팅 게임에 비유된다. 숏폼의 인기는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극을 추구한다는 형식적 특성에만 있지는 않다. 1~2초 사이에 영상을 즉각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의 오락성. 사람들은 이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선택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감각 또한 얻는다. 영상의 내용이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몰입인 셈이다. 그래서 숏폼을 한때 유행하고 사라질 단순한 비디오 포맷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숏폼의 재생 방식이 지닌 이러한 중독성은 상호작용보다 노출되는 것이 더 중요한 '광고'에 가장 적합한 형태다. 지금도 숏폼에서 광고 영상을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 매체를 더욱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시청자들은 자신이 소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독을 쉽게 끊지 못할 것이다. 결국 숏폼 콘텐츠의 미래는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달려 있다. 과연 우리는 숏폼이 만드는 허무한 쾌감과 달콤한 자극을 멀리할 수 있을까? 만약 숏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 그 논의의 대상은 사회가 부추기는 자극, 중독, 소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 복길(자유 기고가)**

TOPIC ❸ | 갓생

YES —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신입생 후배들의 일과에 놀란 적 있다. 내가 신입생일 때와 달리 후배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 A+ 학점을 챙기는 건 기본이고, 동아리 2개에 대외 활동까지 꽉 찬 나날을 보냈다. 물론 알바도 뛰며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다. 2014년의 일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지난 직장에서는 팀장 역할을 했다. 1년에 한 번은 인턴 에디터를 채용하기 위해 이력서를 검토했다. 지원자들의 이력은 짱짱했다. 학교에 다니며 쌓은 경험에 더해 인턴 경력 두세 곳을 거치며 '경력직' 인턴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 지원자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추렸다. 10년 전 후배들이나 2020년대 사회 초년생만의 일은 아니다. 30대 중반인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열에 아홉과는 정신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자주 보든 오랜만에 만나든 상관없다. 번아웃 치료 경험을 나누고, 퇴사하고 몇 달을 쉬었다는 이야기에 "나도 나도" 하며 말을 보태기 바쁘다. 퇴근 후 전화 영어를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눈다. 갓생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거치며 기업은 채용을 줄였고, 신입이든 경력이든 '확실한' 사람만을 뽑으려는 현상이 불안의 근간이 됐다. 이런 현상은 젊은 층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해결책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부지런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도록 일과를 세팅한다. 같은 현상을 대체하는 다른 말이 생기더라도 갓생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다. 20대에는 갓생을, 30대에는 번아웃을 겪는 삶의 패턴도 자리 잡을 것 같다. 비상계엄령 사태 여파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데, 갓생이 계속된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입이 쓰다. **– 최창근(영상 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메이아이' 콘텐츠 에디터, 전 '뉴닉' 콘텐츠 리드)**



YES — 갓생 키워드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갓생의 의미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갓생이 생산성, 효율성, 근면 성실함을 지향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했다면 앞으로는 일상 유지, 정서적 안정성, 자기 돌봄에 포커스를 맞출 듯하다. 과도한 경쟁 사회와 오랜 경기 불황은 전반적으로 은은한 우울감을 지속시켰다. 그리고 그 불안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극에 달했다. 분 단위로 쏟아지는 '속보'에 사람들은 업무와 학업 등 본래 일상을 채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온라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드론 사격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전파되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혐오와 오해를 뒤섞은 성별·세대별 갈등이 쏟아진다. 2025년에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가치는 이어지겠지만 그 방향은 자신의 정서적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런 양태는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덕질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별거 아닌 이유로 기념일을 만들어 홈 파티를 열거나, 혁명을 소망하는 집회에서 응원봉을 가지고 오는 어린 세대의 모습이 그렇다. 나아가 안정의 정의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특히 자기 주도적 결정이 중요한 Z세대는 남들에겐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 눈에 아늑하고 선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선택한다. 100인 100색에서 1인 100색으로 나노화된 취향 트렌드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 이자연(<씨네21> 기자,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TOPIC ❹ | MBTI

MAYBE — MBTI의 등장은 정말이지 대단했다. 16개 유형만으로 모든 인간을 단번에 파악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니, 별자리와 혈액형으로 서로를 알아가던 그 시절의 풍습이 우스워지는 순간이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두고 사람들은 과학이라 추앙했고 MBTI는 어딜 가든 이름, 나이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기본 정보값이 됐다. 업무 미팅을 하든 소개팅을 하든, 면접을 보든 모든 TPO를 가볍게 무시하는 게 바로 MBTI라는 말이다. 물론 내게도 MBTI에 완전히 빠져든 때가 있었다. 기본 MBTI 검사부터 시작해 MBTI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심리 테스트를 발견할 때마다 친구와 동료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 여기저기에 퍼 나르고 서로의 결과값을 공유하며 감탄하기 바빴다. 사찰이라도 한 듯 어쩜 내 성격을 그대로 써놨을 수 있나며, 어쩌면 MBTI는 이 시대 최고의 발견일지도 모른다는 진심 섞인 농담도 주고받았다. 웬만한 테스트를 다 섭렵했을 즈음 MBTI는 더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론도, 도파민 솟게 하는 놀잇감도 아니게 된 것 같았다. 되레 'T'와 'F'의 성향 차이를 희화화해 그들의 간극을 더 넓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60억 명의 인간을 단 16개 종류로 구분할 수 있겠냐며 섣부른 일반화를 부른다는 의견도 생겼다. 한술 더 떠 스스로 MBTI에 정의되지 않겠다 선언하며 테스트도 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는 이들이 힙해 보인다는 선망의 시선을 받기도 한다. 그 틈을

비집고 '과민한 사람 테스트(HSP)'라는 새로운 유형 검사까지 나타났다. 모든 것이 빠르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MBTI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나 싶었지만, 흥미롭게도 MBTI는 여전히 우리 도처에 있다. MBTI 성향에 맞는 채용관이 열리는가 하면 성격을 취향과 연결하는 타깃형 마케팅의 수단으로 MBTI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으로 쓰인다. 내 MBTI에 맞는 향수, 디저트, 여행, 심지어는 보험과 체성분 유형까지, 이 세계는 변주의 변주를 거듭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소위 말해 MBTI는 아직 먹힌다는 뜻이기도 하다. MBTI는 장수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신선도가 떨어진 상품은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 아니겠는가. 2024년과 2025년의 길목에서, MBTI는 그저 얼마간의 수명을 연명했을 뿐이다.

— 천일홍(<코스모폴리탄> 피처 에디터)

NO — 14년 전, 전문가에게 MBTI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수 시간째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목에 답하면서 끝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막막함을 느낀 기억이 난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항목당 하나의 답만 선택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 모습도 '나'이면서 저런 모습도 '나'인 바람에 선택에 꽤 애를 먹었다. 긴 시간이 흘러 받아든 검사지에는 난생처음 보는 알파벳 조합이 적혀 있었다. 새로웠다. 돌아보면 그땐 누구도 내게 MBTI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트렌드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MBTI로 대화의 포문을 여는 사람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한참 휘몰아치던 초창기엔 MBTI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궁금해서 MBTI를 묻기보단 MBTI를 더 잘 알고 싶어서 피험자 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인간에게는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다. 한때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 유형을 나누던 것도 비슷한 욕구였으리라. 혈액형 때만 돌아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람도 많았고, 맹신하듯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의 MBTI가 그런 것처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도구가 나타난다면 MBTI도 혈액형처럼 시간의 뒤안길로 넘어갈 것이다. 체계적인 성격 유형 검사가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MBTI가 살아 있는 건 사람을 제법 적당한 개수의 범주로 일반화할 수 있고, 꽤 직관적이라는 특성 때문일 거다. 인간 군상을 16개로 구분하는 건 혈액형 4개로 일반화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보이고, 개개인의 성격을 서술형으로 묘사하는 구체적인 검사 결과보다는 훨씬 그럴싸하니까. 어쩌면 숏츠가 유행하는 맥락과도 비슷할지 모르겠다. 사사건건 겪어가며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단 MBTI 네 글자로 요약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래도 난 "MBTI가 뭐예요?"라는 질문보다 "취미가 뭐예요?"라는 질문이 훨씬 좋다. 취미를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MBTI는 절대적인 검사값으로 타인의 성격을 고정해버리는 면이 없지 않으니까. 취미는 밥을 먹여줄 수 있지만, MBTI는 밥을 먹여줄 수 없다.

— 이주연/산책방 (에디터, 기획·편집자)

요리 예능

TOPIC ❺ | 요리 예능

YES — 잘 살아남을 것이다. 2019년 <냉장고를 부탁해>의 종영 이후 스타 셰프들의 예능 출연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요리 예능'이라는 불씨만큼은 백종원의 인기와 영향력에 의해 보존됐왔다. 그리고 2024년 그 불씨는 누구도 흥행을 예측할 수 없었던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으로 인해 활활 타올랐다. 아주 오랜만에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예능의 등장이었다. 검은 안대를 착용한 채 오직 맛으로만 요리를 평가하겠다는 그 이상한 고집은 결국 다른 분야 서바이벌 예능과의 차이를 만들었고, 흑과 백으로 나눠진 계급적 도식은 '미각'이라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무너지면서 새로운 스타들의 얼굴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흑백요리사>의 뜨거운 인기가 만든 갈증은 10년 전 종영한 <마스터셰프 코리아>와 <한식대첩> 같은 명작 요리 예능들을 소환했다. 그리고 이러한 열기를 포착한 <흑백요리사>의 제작사 JTBC는 <냉장고를 부탁해>를 부활시켰고, 심사위원이었던 백종원은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과 함께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새 요리 리얼리티를 론칭했다. 요리 예능은 시청자에게 그 맛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기에 반드시 평가의 시선이 개입한다. 전문가들의 솔루션 예능에 익숙한 지금 한국 대중은 그 시선 위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얹고 그것을 공유하며 논쟁하는 것을 즐긴다. 저마다의 혹독한 수련을 거친 요리사들이 자신의 서사를 요리에 담아내면, 시청자들은 기술이면서 예술이면서 동시에 그저 끼니일 뿐인 요리를 다양하게 해석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2025년 방영이 예정된 <흑백요리사 시즌2>가 지금의 화제성과 그에 따른 비판을 잘 흡수한다면 한동안 요리 예능은 순항하지 않을까?

— 복길(자유 기고가)

YES — 한때는 '냉털'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프로 자취로서의 바로미터가 됐다. 시든 재료를 버릴 때만큼 가구주로서 초심이 초라해지는 순간은 없으므로. 냉털이 우리 모두의 숙제처럼 느껴졌던 시기에는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를 게스트의 육중한 냉장고 속 재료들이 셰프들에게 토스돼 약 15분 만에 먹을 만한 한 상으로 탈바꿈되는 걸 보는 쾌감이 있었다. 그사이 우리는 다종 분화된 밀키트와 신속한 배달 음식이 가져다주는 편의에 녹아들었으나, 지난 12월 <냉장고를 부탁해 since 2014>가 돌연 부활한 건 팔 할이 <흑백요리사>가 쏘아 올린 요리 예능 붐 덕분이다. 오로지 미각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안대 심사'는 비주얼적으로는 기묘했지만 적어도 이 경연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탄단지가 고루 균형을 이루는 식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두부 요리가 27종이나 펼쳐지는 마지막 미션을 보며 혀를 내두르게 됐다. 이 프로그램의 교훈은 다름 아닌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마스터셰프 코리아> <한식대첩> <흑백요리사>까지 이어진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조리 후 깔끔한 뒤처리로 위생적인 주방을 자랑하던 참가자들의 인성과 사생활 논란은 순식간에 도마 위에 올랐다. 그들이 완벽한 한 그릇을 내어놓기 전까지 중간중간 얼마나 자신의 도마를 깔끔하게 세척하는가와는 무관하다는 듯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왔던 것이다. 결국 요리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여전히 빈 그릇에 '무엇'이 담길지보다는 '누가' 주방에서 물과 불을 쓰는지가 더 궁금하다. 약간은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은 채로 요리 예능을 지켜보는 이유다. **— 서해인(<콘텐츠 로그> 발행인)**

챗GPT

TOPIC ❻ | 챗GPT

YES — 챗GPT는 한때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다. 기술의 연장선이다. 이 기술의 기반은 대규모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기술이다. 그게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대다. AI로 대표되는 'LLM'은 네트워크로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중 하나다. 그것이 검색-결과 표시로 요약되는 챗봇형 AI로 만들어진다. 그 시장에는 '매그니피센트 7'로 묶이는 대형 회사 7개가 있다. 오픈 AI는 그 회사 중 하나이며, 챗GPT는 그 회사의 서비스 중 하나다. 챗GPT가 주춤할 수는 있다. 투자 회수가 어렵다. 지금 AI 시장에 투입된 투자 금액은 약 600조원이라 추정된다. 반면 오픈 AI의 2023년 매출은 아직 4조 6000억원 수준이다. 손해다. 그런데도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해야 한다. 기약 없이. "AI 시장에 거품이 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은 거품이 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소 CTO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이동근은 현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챗GPT의 미래에 대해 해야 할 질문은 "이게 트렌드냐"를 넘어선다. 중요한 건 그다음이다. 지금 이미 AI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넣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 AI 혹은 오퍼레이터인 인간이 얼마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챗GPT가 아무리 대세가 돼도 인간의 어떤 영역은 여전할 것 같다. 포토샵이 발전한다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챗GPT가 아무리 점쟁이 같다 해도 신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AI라는 게 생기기 시작할 때 들은 이야기가 있다. "본능을 모으면 지능이 되지만, 지능을 모은다고 본능이 되는 건 아니다." **– 박찬용(칼럼니스트)**

YES — 스타트업에서 유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우리 서비스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할 것 같나요?" 이때 상상하기도 싫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면 '큰 혁신을 만들겠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이미 혁신을 시작했고, 챗GPT는 출시 약 2년 만에 대중화됐다고 평가받는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생활에 뿌리내릴지가 더 중요해졌다. 3가지 측면에서 짚어보자. 첫 번째 상황, 'GPT-4o'의 등장이다. GPT-4o는 영화 <그녀>의 '사만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텍스트로만 대화가 가능했던 초기 모델과 달리, 음성과 영상까지 결합해 영상 통화하듯 활용 가능해진 것이다. '멀티모달 AI'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사용자가 챗GPT에 타이핑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었다. 출력 속도도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됐다. 두 번째 상황, 여러 검색형 AI와의 경쟁 체제. 요즘 대세는 '퍼플렉시티'다. 최신 정보를 답변할 수 있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강점이다. 챗GPT와 차별점이 생기는 부분이다. 국내에서 퍼플렉시티를 이용하는 사람은 2024년 3월 3425명이었지만, 11월에 29만 명(스마트폰 접속 기준)을 돌파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챗GPT의 단점을 파고들어 이용자를 잡은 것이다. 세 번째 상황, '온디바이스 AI'의 상용화다. 2024년 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를 공개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기기 내에서 실시간 번역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애플도 음성비서 시리에 GPT-4o를 통합하며 추격 중이다. 온디바이스 AI의 등장은 나만의 AI의 시대, AI의 일상생활을 기대하게 한다. 타이핑, 최신 정보, 인터넷 연결. 챗GPT 트렌드는 혁신을 거듭하며 계속될 것이다. **– 최창근(영상 처리 인공지능 스타트업 '메이아이' 콘텐츠 에디터, 전 '뉴닉' 콘텐츠 리드)**

레트로

TOPIC ❼ | 레트로

YES — 지금 우리 곁의 모든 것은 미래에 레트로가 될 것이다. 지금의 레트로는 어젠가의 최신 문물이다. 문명 자체가 수많은 레트로를 만들어내는 기계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약 15년쯤 후의 레트로가 누군가의 최신 상품으로 출시돼 있을 것이다. 레트로는 앞으로 더더욱 성행할 것이다. 클라우드 기술 덕이다. 레트로와 최신 기술은 상극 같지만 사실은 반대다. 레트로는 기술을 통해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은 이제 온갖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온갖 중고품과 그것의 수리 부품도 전자상거래로 손쉽게 살 수 있다. 그 결과 홍콩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1990년대 홍콩의 이미지만 보고 홍콩풍 식당을 만들어 성공한다. 이런 레트로가 버젓이 생겨나는 게 21세기 서울이다. 레트로는 심리적으로도 성행할 것이다.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사라졌으니까.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없는 가상의 뭔가를 꿈꾸며 살아간다. 21세기 초까지는 미래의 희망이 있었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결하면 삶은 나아지고 세상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기대는 여러 변수와 함께 점점 사라져간다. 그러니 사람들은 돌아볼 수밖에 없다. 레트로는 연차만 바꿔가며 계속될 것이다. 1990년대와 00년대 레트로를 지나 2010년대도 레트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모두 하염없이 지난날을 바라볼 것이다. **– 박찬용(칼럼니스트)** C

art designer JANG SEOK YOUNG

고구마의 환생

삶고 찌면 끝인 줄 알았던 겨울 간식의 대명사, 고구마가 다시 태어났다. 지금 가장 힙한 디저트의 옷을 입고 달고도 고소한, 층층이 쌓인 섬세한 맛을 무장한 채!

EDITOR CHEON IL HONG

1

주말 아침, 늘어지게 단잠을 자고 일어나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 한가로운 테이블을 상상하며 오픈한 브런치 카페 비캔드. 이곳의 오너 김남은이 고구마로 새롭게 디저트를 고안한 건 우연히 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때문이었다. "<흑백요리사>를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정지선 셰프님의 '빠스'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고구마는 워낙 대중적인 재료기도 하잖아요. 고구마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렇게 탄생한 고구마 브륄레 프렌치토스트는 촉촉하게 우유를 적셔 구워낸 브리오슈 빵 위에 고구마 무스를 올리고, 그 위에 또 한 번 빵을 올린 뒤 고구마 크림을 듬뿍 바르고 고구마 맛탕과 흑임자를 올려 완성한 메뉴다. 자칫 퍽퍽할 수 있는 고구마의 식감을 고구마 크림과 무스가 부드럽게 감싸고, 갓 튀겨낸 고구마 맛탕과 바삭한 식감까지 선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안을 가득 채우는 고구마의 맛은 말할 것도 없고. 1만4천9백원 by 비캔드 @beekend.seoul

COSMO SAYS | 고구마 프렌치토스트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디저트다. 찐 고구마에 버터 10g을 넣고 곱게 으깬 뒤, 마요네즈나 그릭 요거트 2스푼, 꿀과 소량의 소금을 넣고 고루 섞어주면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단맛의 고구마 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때 호두, 피칸과 같은 견과류나 건과일을 잘게 썰어 곁들이면 보다 고급스러운 풍미의 고구마 무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고구마 브륄레 프렌치 토스트





자색 고구마 스콘

2

연남동을 시작으로 합정동, 홍대, 신사 등 여러 곳의 분점을 낸 어엿한 전문 베이커리 카페답게 카페 공명의 자색 고구마 스콘은 개발부터 치열한 고민과 연구 끝에 메뉴에 오른 디저트다. "처음 크림을 가미한 '크림 스콘'을 준비하며 염두에 뒀던 건 색감이 다양한 스콘 라인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자색 고구마 가루로 보랏빛 컬러의 스콘을 만들면 어떨까 싶었죠. 고구마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재료인 만큼 호불호가 적은 디저트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히 고구마 컬러만 띤 스콘이라고 생각하면 서운하다. 100% 동물성 생크림의 진한 맛과 고구마 무스를 함께 샌드해 고구마 본연의 맛을 품고 있는데, 웬걸 달지도, 그렇다고 안 달지도 않은 은은한 단맛이 자꾸만 포크를 부른다. 여기서 포인트, 디저트를 향한 한국인 최고의 칭찬이 "그렇게 안 달다!"라는 것. 카페 공명의 자색 고구마 스콘이 그렇다. 6천5백원 by 카페 공명 @cafegm_

COSMO SAYS | 스콘은 딱딱하기만 하고, 별다른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 오너피셜 구황작물 러버, 디저트에 생소한 중장년층에게도 두루 사랑받는 메뉴라고.

고구마
티라미수



3

'티라미수가 이렇게 올망졸망할 수도 있구나.' 트렘 서울의 고구마 티라미수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접시가 아닌 와인잔에 고구마 원물 맛 가득한 고구마 퓌레, 수제로 만든 마스카포네 치즈, 에스프레소 향을 머금은 크럼블, 코코아 파우더를 층층이 쌓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즐길 수 있는 영특하고도 특별한 티라미수를 만든 것.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쉬이 식지 않는 지금, 밤 티라미수처럼 구황작물 고구마를 활용한 디저트가 사랑받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하지만 트렘 서울표 고구마 티라미수의 진가는 스푼을 깊이 뜰수록 드러난다. "고구마 퓌레, 크럼블, 마스카포네 치즈 3가지의 조화로운 맛을 한 번에 즐기길 권해요. 겨울의 맛 그 자체일 겁니다."
8천5백원 by 트램 서울 @trem_seoul

COSMO SAYS | 나폴리 맛피아의 밤 티라미수를 고구마로 변형해 나만의 고구마 티라미수를 만들어봐도 좋다. 맛밤 대신 원물 비율이 높은 고구마 스틱 과자를 우유와 함께 끓인 뒤 믹서기에 갈면 고구마 퓌레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시판 커피에 적신 다이제로 크럼블을 대신하고, 마스카포네 치즈를 층층이 레이어하면 손쉽게 고구마 티라미수 완성!

4

워낙 일본식 디저트를 좋아해 과일이 들어간 산도를 즐겨 먹는다는 보케 정현채 오너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고구마 브륄레 산도. "과일이 아닌 고구마를 넣어 달콤함은 물론이고 포만감까지 주는 디저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일 산도에 비해 당도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고구마의 단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무리로 설탕을 뿌려 브륄레 처리를 했죠." 반응은 성공적이었다. 출시하자마자 손님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덕분에 하루 종일 고구마를 구울 정도로 바빴다고. 새롭게 선보인 메뉴가 카페를 대표하는 메뉴가 된 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통으로 들어간 고구마와 동물성 크림, 거기에 소량의 후추로 묘한 풍미를 더한 오너의 킥까지, 맛도 풍미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가득 넣었는데 1만원이 넘지 않는 착한 가격은 덤!
8천원 by 보케 @bokeh_coffeebar

COSMO SAYS | 기교 부리지 않은 담백한 맛의 찐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빵도 포기할 수 없고, 포만감까지 든든히 챙기고 싶은 이라면 주저 없이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고구마 브륄레 산도를 선택하자.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면, 호박고구마보단 적당한 당도와 너무 무르지 않는 식감의 밤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구마
브륄레
산도

art designer JIN NAM HYUK/photo by LEE HO HYUN/assistant LEE NA RA

LOVE ❤ TAROT 카운슬링



물병자리 — THE DEVIL

올해 연애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야. 평소에도 '회사-집'만 오가는 인생이라면 더더욱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해. 외롭다고 '혼술'을 하거나 TV 앞에서 리모컨만 끌어안고 있으면 2025년 연애는 다 한 거다? 그러니 주변을 빠르게 '스캔'해서 네 눈에 들어오는 남자를 찾는 것이 좋겠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햇살인 거 알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고 너무 적극적인 대시는 금물이야. 은은한 터치와 은근한 미소, 센스 있는 작은 선물 정도면 너에게 빠르게 호감을 갖게 될 거야. 그와의 연애에 골인했다면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후반전을 준비해야 해. 적극적인 터치와 정열적인 키스! 썸 탈 때는 보지 못했던 너의 반전 매력을 어필할 시간이야. 화려한 호텔에서 분위기 잡아보는 건 어때? 너의 리드에 상대는 정신 못 차리고 더 깊이 빠져들 거야.

LOVE DAY 4월 19일 **LOVE ITEM**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양자리 — THE MAGICIAN

친구들과 '번개'가 잡혔다고 대충 주워 입고 나가는 건 금물이야. 우연히 간 곳에서 네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거든. 특히 2025년 상반기에! 피해야 하는 남자도 알려줄게. 바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남자들! 나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어린 남자를 조심해야 해. 그들의 목적은 연애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 감질나게 썸만 타다 홀연히 떠나거나, 사랑을 빙자한 '로맨스 스캠'이 시작될지도 몰라. 그러니 꼭 깊은 대화 후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길. 고르고 고른 남자와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야. 그동안 수줍은 모습을 많이 보였더라도 이날만큼은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주도해보자. 혹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더라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도록. 첫 데이트 전에 매력적인 OOTD는 물론, 속옷까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고!

LOVE DAY 8월 5일 **LOVE ITEM** 진주 목걸이



쌍둥이자리 — THE CHARIOT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해를 보내겠어. 그렇다고 사랑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 실망하지 말자! 소개팅 자리에서 즐거운 에너지를 듬뿍 받을 운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소개팅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 네가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더라도 연애만큼은 가볍게 마음을 먹어야 해. 상대는 너의 진지하고 경직된 모습보다는 재치와 웃음 포인트, '드립력'에 매력을 느낄 거야. 이 흐름은 연애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 한동안은 이성보단 친한 친구처럼 느껴져 스킨십에 불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애정이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여. 불안해하거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걸 추천해. 한 잔의 레드 와인을 곁들이면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LOVE DAY 11월 1일 **LOVE ITEM** 뱅쇼



물고기자리 — THE LOVERS

혹시 최근에 동창회나 소모임이 잡히진 않았어? 한동안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이번만큼은 나가야 해. 오랜만에 보는 얼굴 중 네 이상형과 딱 맞는 남자가 있을 예정이거든. 그 남자는 이별 직후거나 직전일 가능성이 크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아. 그가 너에게 환승 이별하는지 지켜보며 성품을 체크하기에도 좋은 기회야. 데이트 신청은 '티켓'으로 하길 바라. 영화, 뮤지컬, 콘서트, 스포츠 뭐든 좋아! 그의 취향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달 이내에 연애에 골인하지 못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자. 남자에 너무 목매는 게 연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연애에 막 돌입했다면 '첫날밤'이 가장 큰 화두일 거야. 관계 중에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는 넣어둬~. 그 시간에 스킨십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큰 자극이 될 거야. 2025년의 첫 경험은 네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밤이 될테니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LOVE DAY 1월 3일 **LOVE ITEM** 아로마 오일



황소자리 — THE HIGH PRIESTESS

주변에 귀인을 뒀구나? 지인의 소개팅으로 연애에 성공하겠어. 첫인상으로 호감을 사기보다는 두 번째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줄 확률이 높으니 '애프터'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자. '여사제' 카드는 사랑 표현에 서툴다는 걸 뜻해. 알코올의 힘을 빌려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방법. '마셔라, 부어라' 하며 과음하는 자리 말고, 적당한 알코올 효과로 '취중진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날이 춥다고 꽁꽁 동여매지 말고 목선과 어깨선이 적당히 드러나는 상의를 입어보면 어때? 관계를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미 썸 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솔직함으로 승부해야 할 때야. 괜히 '밀당'을 하다 더 멀어지는 수가 있어. 고백할 타이밍을 잡고 있다면 너무 각 잡는 것보다는 캐주얼한 다이닝이나 바 테이블이 있는 술집이 좋겠어. 농밀한 스킨십 없이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스파크가 튀는 연애가 시작될걸?

LOVE DAY 2월 7일 **LOVE ITEM** 레몬 캔디



게자리 — THE STAR

올해는 남자를 보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길 바라. 예를 들면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 사람들까지도. 네 인생에 단역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남주'로 급부상하게 될 수도 있어. '별' 카드는 네 옆으로 지나가는 재앙을 뜻해.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는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네게 유난히 친절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의 어장엔 물고기가 넘쳐날 거야.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는 공공재라 생각하고 건들지 말자. 연인이 생겼다면 본격 스킨십 스킬을 발동해야 할 때야. 미지근한 스킨십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불타오르는 건 금물이야. 뭉근하게, 가령 진한 키스는 나누되 잠자리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식으로 속도를 조절하자. 상대가 먼저 안달 나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마음이 온전히 너를 향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침대로 끌어들여 사랑의 깊이를 온몸으로 확인해보도록!

LOVE DAY 10월 8일 **LOVE ITEM** 바나나 향 콘돔



사자자리 ———— THE TOWER

지금 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 섹스 파트너로 지내는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남자는 너의 도파민을 잠시 자극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외로워질 거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 거야. 그러니 지금의 파트너와는 선을 긋고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길 바라. '타워' 카드는 우연한 기회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해. 혹시 운전 좋아해? 올해 장거리 연애운이 들었거든. 차가 없다면 KTX 탈 일이 많아질 거야. 연애 초반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도 좋겠어. 조금 서툴러도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치만 스킨십에 있어서는 너무 적극적인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연인 관계라고 무조건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지? 작은 터치도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상대를 안심시키고 매너 있어 보인다는 거 잊지 마!

LOVE DAY 3월 6일 **LOVE ITEM** 산호 액세서리



천칭자리 ———— JUDGEMENT

때로는 노력으로도 이뤄지지 않는 게 있지. 올해는 사랑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가벼운 술자리, 우연한 만남 등 괜찮은 남자를 만날 기회는 많으니 최대한 많이 만나보도록 해.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겐 사랑도 가차 없는 거 알지? 특히 상반기에 절로 불타오르는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언제나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고! 썸을 탈 때는 항상 네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특히 올해는 남자에게 휘둘리기 십상이니 조금이라도 위험한 관계가 되겠다 싶으면 얼른 발 빼야 해. 플랜 B는 일이나 여행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남자와 사귀는 사이가 됐다면 첫날밤을 위한 '더티 토크'를 준비해보면 어때? 너의 자극적인 한마디가 그와의 연애를 더 깊고 강렬하게 만들어 사랑이 전부인 한 해를 보내게 될 거야.

LOVE DAY 7월 4일 **LOVE ITEM** 스카프



사수자리 ———— THE MOON

전 남친에게 아직 미련이 남은 것 같네? 그가 바꾼 카카오톡 프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귀에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건 아니지? 그 남자와 다시 잘될 가능성은 제로야. 애꿎은 전 남친 인스타는 그만 들추고 앞을 보자. 그는 지나간 과거일 뿐. 새해도 됐으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야지! 친구들과 왁자지껄 몰려다니기보다는 분위기 좋은 바에서 '혼술'을 해보는 걸 추천해. 썸이나 짝사랑 상대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남자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너에게 다가온 사람이든, 너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든 용기 내 쟁취해봐. 단, 너무 취한 상태로는 뭐든 금물이야. 연애를 시작한다면 자유로운 영혼을 만날 가능성이 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강렬한 끌림만큼은 확실하지. 황홀한 밤을 보내고 싶다면 그를 위한 특별한 속옷이나 섹시한 슬립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

LOVE DAY 6월 17일 **LOVE ITEM** 가터벨트

"새해에는 남자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첫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 비는 것보다 효과적인 2025년 연애 타로 점! 가슴 설레는 러브 라이프를 위해, 코스모가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타로 카드 전문가와 함께 발 벗고 나섰다. 타로 언니가 들려주는 2025 별자리별 연애 꿀팁 공개! EDITOR **KIM MEE NA**



처녀자리 ———— THE HERMIT

연애 세포가 소멸 직전이네? 그로 인해 우울감이 찾아올지도 몰라.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야. '은둔자' 카드는 꼭 은둔형인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야. 사랑을 기다리며 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기분을 환기시킬 겸 짧은 로드 트립을 떠나보는 것도 추천해.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가벼운 스킨십으로 호감을 표시해보자. 연애 초반엔 언제나 그렇듯,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 특히 첫 기념일은 재즈가 흘러나오는 호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보내는 게 좋겠어. 진한 재즈 선율과 은은한 조명이 서로를 더 사랑스럽게 비출 테니.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 미리 예약해둔 호텔 룸 키를 쓱 내밀어봐. 그와 생애 최고의 밤을 보낼 수 있을걸?

LOVE DAY 5월 3일 **LOVE ITEM** 호텔 룸 키



전갈자리 ———— THE FOOL

두 남자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겠는걸? 그 고민과 번뇌로 넌 밤을 지새울 수 있겠지만. 결혼에 관심이 없다면 육체적으로 더 끌리는 사람에게 집중해봐. 하지만 상대에게 진득하게 정착해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상대를 골라. 고민되는 썸남들이 있다면 아예 화끈하게 둘 다 만나보는 건 어때? 하지만 뭐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 둘을 만나든, 한 명을 만나든 자연스럽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스킨십 또한 의도한 것보다 자연스러운 접촉이 더 큰 설렘으로 다가갈 수 있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됐다면 루틴한 장소보다 이색적인 장소에서 사랑을 나눠보는 걸 추천해. 이를테면 자동차 안, 인적이 드문 해변, 러브 호텔 같은 곳. '바보' 카드는 연인과의 반복되는 데이트가 지겹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거든. 서로의 이색 취향에 대해 탐구해보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야.

LOVE DAY 10월 31일 **LOVE ITEM** 수면 안대



염소자리 ———— TEMPERANCE

'절제' 카드는 사랑에 동요되는 너의 감정을 위해 꼭 필요한 카드야. 특히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릴 때나, 불안함을 느낄 때 행동을 절제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결혼식이 있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꼭 참석하자. 사돈의 팔촌 결혼식이라도 꼭 가는 걸 추천해.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거든. 그 남자는 연하일 가능성이 커. 지금 좋아하거나 썸 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정리하는 게 어때? 질질 끌수록 주변에 소문만 무성해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질 거야. 연인이 있다면 좀처럼 나가지 않는 연애 진도에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어 스킨십에 불을 지필 만한 장치를 마련해보는 것이 좋겠어. 데이트 중에 섹스 토이 숍을 들러보는 건 어때? 잠자리에 도움을 주는 신선한 아이템을 발견하면 커플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거든. C

LOVE DAY 9월 1일 **LOVE ITEM** 입욕 젤

art designer JANG SEOK YOUNG/photo by CREATIVE MARKET/advice LEE MIN A



ROAD OF EUROPE

런던, 옥스퍼드, 마드리드, 앤트워프. 비슷할 것 같지만, 고유의 문화와 개성이 살아 숨 쉬는 서유럽 3개국 4개 도시에서 패션과 미식, 아트, 호스피탤러티의 정수를 맛보다. EDITOR KIM MEE NA



VIP 고객을 위한 '비스터 빌리지'의 아파트먼트.

(유럽 최대의 쇼핑 랜드마크, 'The Bicester Collection')

'비스터 컬렉션'의 환대와 함께 도착한 첫 번째 도시는 런던이었다. 공항 밖은 어둠이 내려앉아 한 치 앞도 안 보였지만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비와 새삼스럽지 않은 듯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이 런던임을 실감했다. 우리는 7일 동안 런던을 시작으로 옥스퍼드, 마드리드, 앤트워프로 이어지는 유럽 여행을 시작한다. 각 도시의 비스터 컬렉션 빌리지들을 둘러보는 것이 주요 일정. 비스터 컬렉션은 패션의 요지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를 비롯해 전 세계 12개의 주요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럭셔리 쇼핑 여행지다. 비스터 빌리지라는 이름이 익숙지 않은 이유는 도시마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탈리아 밀라노 지점은 '피덴자 빌리지', 스페인 마드리드 지점은 '라스로사스 빌리지'라 불린다.



'비스터 빌리지'의 핸즈프리 쇼핑은 짐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옥스퍼드에서 느끼는 20세기 정취, 호텔 'Estelle Manor'

'비스터 빌리지' 방문에 앞서, 런던에서 옥스퍼드까지 약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컨트리 하우스 호텔 '에스텔 매너'가 오늘 머물 곳. 에스텔 매너는 영국 <더 타임스>가 선정한 '머물기 좋은 호텔 톱 100' 중 2위에 오른 곳이다. 디즈니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숲길을 지나 대저택 같은 호텔에 도착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예스러운 풍치와 호텔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럭셔리한 하이퍼 카들의 향연이 생경하고도 아름다웠다. 호텔 게이트 앞에 줄지어 선 여러 대의 호텔 픽업 차량은 모두 영국 태생의 랜드로버 디펜더였고, 로비에 걸어 다니는 투숙객 중 열에 다섯은 바버 재킷에 진흙 묻은 헌터 부츠를 신고 있다는 것까지, 미장센이 뻔한 영국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다. 객실은 아트 피스에 가까운 빈티지 가구들과 조명, 오브제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었다.



©Estelle Manor

런던 쇼핑의 시작과 끝, 'Bicester Village'

호화로운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호텔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대의 쇼핑 빌리지, '비스터 빌리지'로 향했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는 10월이었지만,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나라답게 일찌감치 홀리데이 분위기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VIP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퍼스널 쇼핑과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프라이빗 행사, 쇼핑 어시스턴트가 쇼핑백을 들어주고 옮겨주는 '핸즈프리 쇼핑' 등 비스터 컬렉션의 각종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먼트에서 효율적인 쇼핑을 위한 가이드를 안내받았다. 버버리, 비비안 웨스트우드, 멀버리, 바버 등 로컬 브랜드는 물론이고 입점해 있는 160개가 넘는 글로벌 브랜드는 일 년 내내 최대 6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커다란 빌리지를 바지런히 돌아다니며 쇼핑하다 보면 허기가 지는 법. 비스터 빌리지는 레스토랑 셀렉션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영국의 스타 셰프 요탐 오토렝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오토렝기(Ottolenghi)',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물과 고급스러운 숍이 즐비한 런던의 중심가 메이페어에서 '핫플'로 손꼽히는 정통 이탤리언 레스토랑 '체코니스(Cecconi's)'의 첫 분점, 랄프 로렌의 글로벌 커피 브랜드 '랄프스 커피(Ralph's Coffee)' 등이 입점해 있어 쇼핑 식후경까지 완벽하게 책임진다. 한편 런던 도심 메릴본까지 직행으로 가는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젠지 사이에서 런던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데는 이유가 있는 법.

www.BicesterVillage.com



©1 Hotel Mayfair

지속 가능한 런던, '1 Hotel Mayfair'

비스터 컬렉션 외에도 런던에 왔다면 응당 들러야 하는 스폿들이 있다. 리버티 백화점, 소호 거리, 버킹엄궁전, 피카딜리 스트리트 등. 이 모든 명소를 도보로 둘러볼 수 있으려면 최적의 장소에 호텔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런던에서 가장 럭셔리한 거리에 위치한 '원 호텔 메이페어'가 좋은 선택지가 돼줄 것이다. 지척에 '그린 파크'역이 있어 패딩턴, 노팅힐 등을 관광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좋다. 호텔의 친환경 철학 또한 눈여겨볼 부분. 각 객실엔 페트병에 든 물 대신 정수기가 설치돼 있고, 와인병을 리사이클링해 만든 물컵을 비치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 톨도 허락하지 않은 노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침대와 침구 역시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했으며, 모든 객실엔 요가 매트를 구비해 투숙객의 웰니스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눈에 띄는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건축 방식, 호텔의 협업 파트너 등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 모조리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동시대 호텔답다.

www.1hotels.com/mayfair

패션의 도시 앤트워프에서 'Maasmechelen Village'까지

런던 킹스크로스 역에서 벨기에 브뤼셀까지는 유로스타 열차를 타고 2시간이 소요된다. 브뤼셀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스메켈렌 빌리지'는 브뤼셀과 앤트워프 사이이자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가 국경을 접하는 교차로에 위치했다. 그래서 독일 림부르크와 벨기에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국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100개가 넘는 부티크가 입점해 있고, 레스토랑에선 다양한 벨기에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초콜릿 강국답게 '노이하우스(Neuhaus)' 같은 초콜릿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기념품 쇼핑을 하기에도 제격. 이곳에서 꼭 들러야 하는 '핫코너'는 막스마라 매장이다. 특히 코트와 가방을 큰 폭으로 할인 중이니 꼭 '득템'에 성공하기를!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택스 리펀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것. 하지만 마스메켈렌 빌리지는 계산할 때 각 매장에서 바로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www.MaasmecheleVillage.com



마스메켈렌 빌리지의 전경.

보태니컬 아트의 향연, 호텔 'Botanic Sanctuary Antwerp'

15세기 수도원을 리모델링해 예스러운 외관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공존하는 호텔. 이름처럼 호텔 전체가 거대한 식물원 같다. 객실은 코지하고 모던한 분위기다. 넓은 욕실과 럭셔리한 욕조가 특히 마음을 사로잡는 곳. 어둠이 내리면 호텔 1층에 위치한 '헨리스 바(Henry's Bar)'에서 특별한 레시피로 내어주는 칵테일 '코스모폴리탄'을 한 잔 마셔보길.


©"Malign Muses: When Fashion Turns Back" in 2004-2005




호텔 '보태닉 생크추어리 앤트워프'의 로비.

'The Jane' 레스토랑의 메인 코스 중 하나인 굴 요리. 캐비어를 얹어 맛과 식감의 조화가 좋다.

앤트워프 식스의 발견, 패션 뮤지엄 'MoMu'

벨기에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 르네 마그리트 등 유명한 화가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드리스 반 노튼, 라프 시몬스 등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탄생한 나라기도 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oMu(Mode Museum)'가 있다. 이곳엔 갤러리가 소유한 앤트워프 식스(드리스 반 노튼, 월터 반 베이렌동크 등 벨기에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6인의 모임)의 의상 컬렉션들이 전시돼 있다. 실험적인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초기 작품, 최신 컬렉션 비디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패션 박물관인 셈. 근처에 앤트워프의 상징과도 같은 드리스 반 노튼 부티크가 있으니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미식과 디자인의 조화, 레스토랑 'The Jane'

제철 해산물로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과거 군 병원의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레스토랑으로 개조했다. 네덜란드 디자인 하우스 '피에트 분'이 디자인한 레스토랑 내부는 모던한 분위기다. 유리 조명과 스틸로 만들어진 독특한 모양의 대형 샹들리에(무려 80kg에 달한다!)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통유리 너머로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안쪽까지 들여다보이는 오픈 키친이 특징이다. 이곳 디너 코스는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20개 이상의 디시가 준비되며 식사하는 데만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방문 전 위는 비우고 마음은 단단히 먹을 것. 저녁 7시 예약이었던 우리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레스토랑을 벗어날 수 있었다.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THE BICESTER COLLECTION/cooperation THE BICESTER COLLECTION





스페인에 가장 빠르게 스며드는 법, 타파스 바

다음 날 브뤼셀에서 스페인 공항까지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마드리는 지금껏 다닌 도시 중 가장 온화한 날씨와 맑은 하늘을 자랑했다. 저녁 시간이 다 돼가도록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던 취재팀은 호텔 근처의 타파스 바 '후루차 마드리드(Jurucha Madrid)'를 찾았다. 타파스 바는 선술집처럼 서서 스몰 디시와 술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스페인 로컬 레스토랑이다. 이곳에서 친절과 서비스 정신을 바라선 안 된다. 북적거리는 인파 사이에서 빈자리를 노리려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수! 서버 역시 거품과 맥주의 비율을 1도 신경 안 쓴 듯 흘러넘치는 맥주를 턱턱 내려놓는다. 항상 바삐 돌아가는 탓에 주문할 때도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주문한 메뉴와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는 '웃픈' 상황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꽤나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먹는 수밖에…! 다행히 세 명이 배 터지게 먹고도 30유로 조금 넘게 나왔으니 착한 가격에 너그럽게 넘어가기로 한다.

스페인 정열이 녹아 있는 'Las Rozas Village'

마드리드의 '라스로사스 빌리지'는 마드리드 시내에서 20분 정도 소요됐다. VIP 고객을 위한 라운지, 아파트먼트에선 구찌의 프라이빗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신 컬렉션 라인을 한눈에 담기 제격이었다. 우리는 라스로사스 빌리지의 퍼스널 쇼퍼와 함께 빌리지 전체를 빠르게 둘러보았다. 멕시코 '죽은 자들의 날'을 기념해 곳곳엔 해골과 꽃 장식, 제단 등이 마련돼 있었다.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에서 본 익숙한 풍경이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 '로에베'는 물론이고 요즘 뜨는 젊은 감성의 디자이너 브랜드 '빔바이롤라', 스페인의 넘버원 하몽 브랜드 '호셀리토'에는 이미 인파로 북적였다. 100개 이상의 숍을 부지런히 돌며 쇼핑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질 시간이었다. 라스로사스 빌리지엔 마드리드 최고의 일몰 뷰 포인트가 있다.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뷰 포인트 테라스에 미리 자리를 잡아두길! 마드리드의 황홀한 주홍빛 일몰이 쇼핑의 고단함도 씻겨줄 테니.

www.LasRozasVillage.com



스페인 왕의 보석함, '왕실 컬렉션 갤러리(la Galeria de las Colecciones Reales)'

다음 일정은 갤러리 투어. 2023년에 오픈한 따끈한 갤러리로, 스페인의 여러 왕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림, 태피스트리(자수 장식), 조각품, 무기, 갑옷, 악기, 문서 등을 다양하게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특히 가톨릭 군주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와 부르봉 왕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군주들의 수집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갤러리는 마드리드 왕궁을 마주 보고 있으며 대성당 옆에 위치해 마드리드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돌아보기 좋다. 주요 작품으로는 1670년대에 펠리페 4세의 두 번째 부인 마리아나가 타던 검은 마차와 1820년대에 집권한 페르난도 7세가 직접 주문 제작한 황금 마차가 압권이다. 갤러리 밖엔 전망대가 있어 마드리드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González, Julián

왕실 컬렉션 갤러리에 전시된 페르난도 7세의 로얄 크라운 마차(Coche de la Corona Real, 1829-1833).



©Pabblo Casares

마드리드에 위치한 티센 미술관(Thyssen-Bornemisza National Museum)에선 중세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유럽 회화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방대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민속 정신이 깃든, 플라멩코 쇼

마드리드의 중심부에 위치한 '플라멩코 데 레오네스(Flamenco De Leones)'는 플라멩코 쇼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연장 겸 레스토랑이다. 타파스 요리와 음료, 디저트가 준비되고 약 1시간 뒤면 공연이 시작된다. 화려한 기교의 기타 선율에 거친 목소리로 토해내듯 부르는 노래, 격렬한 발놀림과 몸짓으로 춤을 추는 무용수까지, 플라멩코의 요소인 토게(기타 연주), 칸테(노래), 바일레(춤), 팔마스(박수)가 한데 엉켜 무아지경에 이르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그 정열에 혼을 쏙 빼앗긴다.

마드리드의 핫한 바, 'Masaru'

마드리드에서 만나는 일본식 칵테일 바, '마사루'는 일본 위스키와 각종 리큐어를 베이스로 칵테일을 내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 국내 포털사이트에선 정보가 잘 나오지 않는 '찐' 현지인 핫플이라는 사실. 그 명성답게 바 내·외부는 스페인 젊은이들로 그득했다. 이곳에서 맛본 말차 칵테일은 카카오 버터가 섞인 피스코(페루산 리큐어)에 유기농 말차, 생크림을 넣어 달콤하고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 크리스피한 가니시와도 궁합이 좋다. C



이 게임에 '한 번 더' 참가 하시겠습니까?

온 우주가 기대 중인 <오징어 게임 시즌2>! 넷플릭스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스모폴리탄> 영국의 에디터 올리비아 블레어가 충청도에 위치한 세트장에 직접 방문해 시즌 2의 단서를 낱낱이 파헤쳤다.

EDITOR **KIM MEE NA**



제법 추운 서울의 12월, 나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남짓 달려 충청도에 위치한 <오징어 게임> 세트장으로 향했다. 도착 후 첫 관문은 운동화에 덧대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보호용 회색 덧신을 신는 일이었다. 스피커에서는 귀에 익은 기괴한 리코더 소리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주변 풍경을 둘러보며, 이제 막 칠한 페인트가 풍기는 진한 화학약품 냄새를 들이마셨다(페인트는 어린이집처럼 밝은 느낌의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을 띠고 있었다. 그게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3년 전 가을, 넷플릭스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히트작이 등장했다. 어른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액을 걸고 필사적으로 어린 시절의 놀이를 하는 이 한국 드라마 시리즈의 반전은 단 한 명의 승자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마치지 못한 참가자는 잔인하게 살해당한다는 것. <오징어 게임>은 공개 직후엔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다. 공개 후 한 달 동안 94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한 것. 이 기간 중 무려 1억 4200만 가구가 16억 5000만 시간 이상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

두 번째 시즌 제작이 확정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사이, 스핀오프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도 제작됐다(이 쇼에서 실제로 죽는 사람은 없으니 안심하고 봐도 된다). <오징어 게임>은 제 79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제작자이자 작가이며 연출가인 황동혁 감독은 2021 고담 어워즈에서 '장편 시리즈상'을 수상했다. 동시에 그는 아시아인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수상했다.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성공을 실감한 순간은 의외로 수상이나 시청자 통계를 받아봤을 때가 아니었다고. 바로 배우들이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했을 때다. 그는 "이제 드라마가 미국에서 메인 스트림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으니까요." 몇 년 전 <오징어 게임>의 영광을 회상하는 그와 잔혹하기로 유명한 기숙사 세트장 한가운데에 마주 앉았다. 세트장 규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타일 벽에 둘러싸인 4층짜리 벙커 베드를 보고 있자, "원래는 여기에 침대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제작한 지 6개월째라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죠"라며 황동혁 감독과 함께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제작한 김지연 총괄 프로듀서가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스포 하나!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시스템도 하나 더 추가됐다. 세트장 바닥에는 커다란 'O'와 'X' 기호가 LED 조명으로 설치돼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게임을 그만둘지,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는 룰이 생긴 것. 김지연 프로듀서는 "참가자들이 선택을 하는 건 시즌 2의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새 시즌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후속 시즌을 만드는 동안 황동혁 감독에게 부담감은 없었을까? 그는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 말했다. 그가 <오징어 게임>을 만들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시즌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제작됐다. "시즌 1에서 모든 캐릭터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 라인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게임도 구상해야 했죠.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결말, '성기훈'(이정재)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마지막 장면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예상대로 시즌 2에서 '기훈'의 서사는 계속된다. 그의 여정이 어떻게, 어디로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은가? 황동혁 감독은 "개인적으로 시즌 2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귀띔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빠져들 준비가 됐는가? 초대장은 던져졌고, 딱지는 뒤집혔다. C

writer **OLIVIA BLAIR**(코스모폴리탄 영국 에디터)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NETFLIX/translator PARK SU JEAN



4



SYDNEY CALLING

추운 겨울을 피해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로 향했다. 크라운 타워 시드니 호텔에서 보낸 따뜻한 힐링의 시간. EDITOR **KIM JOO YEON**


1


2


3

1 레스토랑 '온코어 바이 클레어 스미스'의 클래식한 핑크빛 인테리어. 2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를 볼 수 있는 객실 뷰. 3 시원하게 펼쳐진 크라운 타워 시드니 호텔의 야외 수영장. 4 세계적인 일식 레스토랑 '노부'.

여름을 맞이한 시드니는 들뜬 분위기였다. 바다에서, 공원에서 삶을 즐기는 시드니 특유의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고, 서머 크리스마스를 앞둔 설렘도 가득했다. 역동적인 바랑가루 지역에 위치한 크라운 타워 시드니 호텔 로비 역시 여름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다.

워터프런트 호텔로 리조트 오아시스를 표방하는 크라운 타워 시드니 호텔은 3개의 꽃잎이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는 듯한 외형을 자랑한다. 스카이라인 위로 웅장하게 솟아 있는 외관과 시드니 해안을 연상케 하는 아쿠아 빛의 건물은 도시와 조화롭게 어울린다. 시드니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얘기되는 이유기도. 호텔은 349개의 객실, 스위트룸 및 빌라로 구성됐고, 호텔 어느 곳에서도 시드니 하버 또는 도시 스카이라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니나 다를까.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통창을 통해 보이는 시드니의 멋진 전망에 압도당했다. 하버 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호사를 누리며 화려한 듯 모던한 인테리어와 넉넉한 공간 속에서 쉴 채비를 마친다.

호텔 방 투어를 끝내고 달려간 곳은 바로 5층에 위치한 야외 수영장. 풀장 길이가 45m에 달하는 넓은 수영장에서 탁 트인 시드니 하버 뷰를 마주하는 순간 단번에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요트와 커다란 여객선 등이 정박한 하버 전망을 수영장의 잔잔한 물소리와 함께 감상하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또한 28°C로 완벽하게 데워진 풀장 온도와 시드니의 뜨거운 햇빛에 추운 서울에서 긴장했던 몸이 사르르 녹았다. 수영 후엔 크라운 스파 시드니에서 테라피 마사지, 맞춤형 정화 페이셜 마사지 같은 웰니스 케어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속을 채울 시간. 크라운 타워 시드니 호텔엔 파인 다이닝부터 캐주얼한 음식까지 다양한 콘셉트의 레스토랑과 바가 있다. 노부(Nobu)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이끌고 있는 레스토랑 중 가장 기대한 건 온코어 바이 클레어 스미스(Oncore by Clare Smyth). 영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한 영국 여성 셰프 클레어 스미스의 인터내셔널 레스토랑으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맛은 물론이고 우아한 플레이팅으로 호평이 난 곳이다. 특히 호텔 26층에 자리해 시드니 하버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 또한 이곳의 인기 요인이다. 와인 페어링으로 먹어본 디너 코스는 퀄리티 높은 식재료에 진심인 시드니에서 맛볼 수 있는 하이엔드 미식 경험이었다.

추운 겨울을 벗어나 도심에서의 힐링을 꿈꾼다면 크라운 타워 시드니 호텔이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art designer JIN NAM HYUK/photo by SYDNEY CROWN TOWER HOTEL

POWER OF REVERSE

시간을 되돌린다는 꿈같은 말. 유세린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이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EDITOR **KIM HYO JUNG(MEDIA LAB)**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
6만9천원 **Eucerin**.



피부도 해가 바뀐다는 걸 인지한 걸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는 주변의 말만 믿었던 에디터의 피부도 언제부터인가 극도로 예민한 모습이 보인다. 잠깐의 외출로도 쉽게 푸석해지고, 잠이 조금만 모자라도 피부가 처지는 게 느껴진다. 어쩌면 피부의 시간이 물리적 시간보다 더욱 빠르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다. 희소식이라면, 피부의 시간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세린은 안티에이징 성분에 대한 집요한 연구를 통해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을 탄생시켰다.

차세대 안티에이징 케어

유세린의 융합 연구팀은 15년에 걸쳐 무려 5만 개 이상의 유효 성분을 테스트한 끝에 에피셀린을 발견했다. 이 성분이 처음 공개된 유럽 피부학회(EADV)에선 혁신적인 성분이라는 평과 함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은 방전되어 있던 피부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마법을 선사한다. 여기에 에피셀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세린 고유의 '에이지 클락(Age Clock)*' 기술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피부 노화 개선에 접근한다. 이뿐 아니라 이중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을 활성화시키는 소야사포닌, 피부 탄력 손실을 막아주는 에녹솔론 등 세 가지 성분이 모여 탄력에 관한 시너지를 일으킨다. 유세린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이 특별한 이유가 성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유효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도 매끄러운 텍스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묵직하고 텁텁한 안티에이징 제품을 생각했다면, 이 세럼을 바르는 순간 부드러운 사용감에 놀랄 것이다. 한 해의 시작인 1월, 유세린 하이알루론 에피셀린 세럼으로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 같은 효과를 경험해보자. *특허 번호 : EP 3 415 635 B1

photo by KIM RAE YOUNG

커햄 패밀리가 떴다!

네 컷 만화의 최강자, 커햄 패밀리와 <코스모폴리탄>의 설레는 만남! 커햄의 독보적 매력을 가득 담아 따끈한 굿즈로 선보인다.

EDITOR AN HYE MI(MEDIA LAB)



SPECIAL GIFT
<코스모폴리탄> × 커햄 굿즈

귀여운 탈을 썼지만 그 어떤 캐릭터보다 개성 넘치는 햄스터, 커햄.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인공이자 표정 부자로 알려진 커햄은 솔직하면서도 엉뚱한 발상으로 팬들에게 웃음 버튼이 되어주고 있다. 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커햄식 위트로 풀어내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그렇게 탄생한 커햄은 맑눈광의 소유자 '광햄', 미니미 '윅햄', 순둥이 '쮝슨'과 함께 커햄 패밀리 완전체를 이루었다. 최근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듯 커햄은 독자들을 위해 신선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코스모폴리탄>과 함께 따끈한 굿즈를 선보인 것. 톡톡 튀는 커햄 패밀리와 개성 넘치는 <코스모폴리탄>의 컬래버레이션은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커햄도 못 견디는 강추위 필수템인 담요와 수면 양말이 준비되어 있다. 담요는 캐릭터 각자의 시그너처 표정을 담아냈는데, 마치 커햄 패밀리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따스함을 전한다. 수면 양말도 특별하다. 앞면에는 광햄의 맑은 눈동자로, 뒷면에는 귀여운 꼬리로 햄스터의 포인트를 살렸다. 특히 패키지 디자인이 오너먼트를 연상시켜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제격이다. 이 외에도 데일리 아이템으로 야심 차게 준비한 마우스패드는 쮝슨, 광햄, 커햄, 윅햄 네 캐릭터가 케이크 위를 장식한 디자인으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코스모폴리탄>과 컬래버레이션한 커햄 굿즈는 1월호 한정으로 제공하며 <코스모폴리탄> SNS 이벤트로도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패키지, 커햄 패밀리가 그려진 담요, 커햄 패밀리를 담은 마우스패드, 광햄의 수면 양말.

스몰 토크 with 커햄 패밀리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꼽자면?

광햄 역시 핑크. 퍼스널 컬러가 핑크입니다. 늘 핑크 코를 관리하고 있습죠. 핑크 아이템을 야무지게 모으는 게 또 햄생의 묘미입니다.

커햄 눈물입니다. 저보다 잘 우는 햄스터가 있을까요? 우는 것만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쀽슨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윅햄 피곤한 직장햄입니다. 안 피곤할 수가 없는 햄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넘겨야 하는 햄생입니다.

<코스모폴리탄>과 컬래버레이션한 소감이 궁금해요. 굿즈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코모폴리탄>과 영광의 컬래버레이션이라니! 햄생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부터 2025년 새해에도 두루두루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담요를 몸에 둘둘 말고 집에 콕 박혀 침대에서 폰이나 하려고요.

수면 양말은 햄스터 기준으로 매우 빅 사이즈…. 이불 대신 덮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요 타고 회사까지 날아갈 계획! 책상에 마우스패드를 놓고 늘 크리스마스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유독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아요. 오래도록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닐깝쇼. 동글동글해서 친애하는 님들께서 제법 귀여워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좀 웃깁니다. 가끔 제가 봐도 웃기게 생겼습니다. 가끔 시원하게 울 때가 있는데 이게 제일 웃깁니다. 마음껏 웃으십시오! 웃음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창구입니다.

저어…. 항상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햄생에 치여 살아가는 제 모습이… 웃프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감해주시는 것 같아 기쁩니다.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요?

지친 일상에서도 햄들을 보면 웃음이 나도록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커햄, 광햄, 쀽슨, 윅햄, 우리 패밀리는 앞으로도 열심히 햄생을 살아갈 거예요. 웃픈 이야기들을 성심성의껏 전할게요.

2025년을 맞아 신년 목표나 다짐을 이야기해주세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알싸하게 햄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덜 좌절하는 햄생을 살아보겠습니다(4년째 실패 중).

모두가 2025년에도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어… 다짐입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코스모폴리탄>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셨습니까? <코스모폴리탄>의 한 페이지에 깜짝 등장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재미있게 읽으시길 바라며…. 늘 행복하고 따뜻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얼리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photo by LEE JAE CHAN assistant LEE RAN YEONG



WHAT A BUTTER, WHAT A CREAM

지금 내 손에 필요한 건 단 하나, 왓 어 핸드버터 망고다. **FREELANCE EDITOR JUNGYOON HAN (미디어랩)**



겨울이 되면 손은 가장 먼저 계절의 흔적을 드러낸다. 뜨거운 커피 잔을 감싸 쥘 때 느껴지는 손가락의 건조함, 차가운 바람에 갈라진 손등, 히터 바람에 메말라가는 손끝까지. 손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지만, 가장 적게 관리되는 부위이기도 하다. 특히 겨울처럼 건조함과 추위가 공존하는 계절에는 손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손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성분도, 화려한 향도 아니다. 피부 본연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깊이 있는 보습과 손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위안이 아닐까?

노 노트의 '왓 어 핸드버터 망고'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먹는 버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핸드크림은 손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들어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준다. 고보습 버터 성분이 겨울철 자극받은 손을 진정시키며, 끈적임 없는 산뜻한 마무리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손 케어는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담은 왓 어 핸드버터 망고로 매일의 손 케어를 새롭게 시작해보자.



강력한 보습력의 망고씨 버터 함유로 리얼 버터 텍스처를 자랑하는 핸드크림. 왓 어 핸드버터 망고 50g 1만2천9백원대 **No Note × What a Butter**.

먹는 버터와 바르는 버터의 만남 노 노트는 본질을 중시하는 브랜드다. 기능과 순수함에 집중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겨울, 버터 브랜드 '왓 어 버터'와의 협업을 선보였다. 그 결과 탄생한 '왓 어 핸드버터 망고'. 노 노트는 왓 어 버터 브랜드의 대표 제품인 망고 스프레드를 핸드크림으로 구현하며 '먹는 버터와 바르는 버터의 만남'이라는 참신한 콘셉트를 도출했다. 발랐을 때 마치 버터가 스르르 녹아내리듯 피부에 스며들어 촉촉함을 전달하는 이 핸드버터는 케어를 넘어 어쩐지 바르는 맛까지 느껴지는 듯한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망고씨 버터로 강력한 보습 충전 핸드크림의 핵심은 단연코 보습이다. 왓 어 핸드버터 망고는 망고씨 버터, 시어 버터, 살 버터 등 3종의 버터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깊숙이 수분을 채워준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보습력이 231.57%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밀도 높은 리얼 버터 텍스처는 쫀쫀하게 스며들지만 마무리는 산뜻하다. 끈적임 없이 전하는 부드러움은 겨울철에 자극받은 손을 위한 최고의 선물 아닐까?

버터 스프레드가 연상되는 텍스처 왓 어 핸드버터 망고는 망고 스프레드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럽고 풍성한 질감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스프레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만큼, 특유의 텍스처를 구현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 바르는 즉시 느껴지는 크리미한 제형은 천천히 녹아들어 손끝부터 손목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촉촉함을 전하는 동시에 사용감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름 그대로 피부를 위한 버터 스프레드 같은 제품이다. 이 핸드크림은 이렇게 텍스처 하나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한 무향 비건 제품 동물성 원료와 향료 없이 피부 건강에 집중한 이 제품은 매혹적인 향 대신 순한 성분을 약속한다. 향이 빠진 자리에는 꼭 필요한 성분만이 담겼다. 한국비건인증원의 검증을 거쳐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더하기도. 여기에 지속 가능한 가치까지 실현했다. 매일 바르는 핸드크림이 피부와 지구에 모두 좋은 선택이라는 점은, 왓 어 핸드버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photo by LEE JAE CHAN/ set stylist LEE JI WON

COSMO TRAILER

캠퍼스, 페스티벌, 핫 플레이스! 타깃이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팝업 트레일러.





연세대



성수 쎈느



성신여대



상명대



페스티벌





숙명여대



내가 모르던 베트남

해발 3000m에 지어진 마을, 사파로 가는 여정. EDITOR **SEO JI 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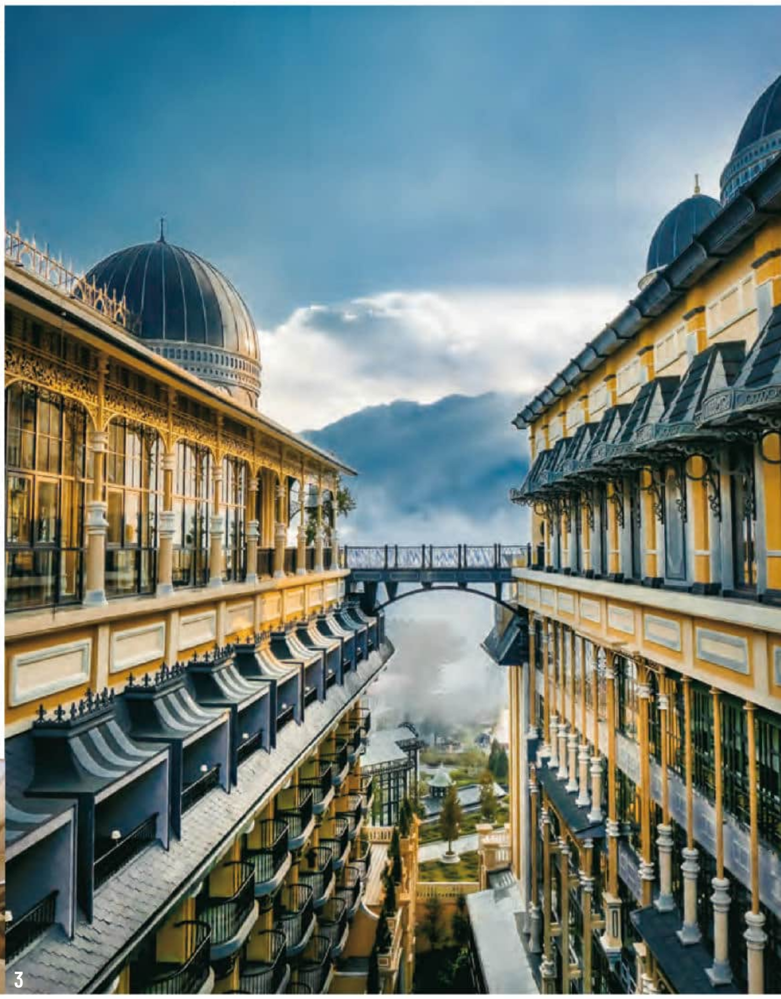
짧은 휴가가 생겼다. 곧바로 항공편을 뒤적였다. 도시는 번잡하고 휴양지는 다닐 만큼 다녔다. 너무 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안 가본 곳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친구가 보내준 유튜브 링크를 열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파'로 가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다. 그렇게 홀린 듯 사파행이 결정됐다.

여행의 시작은 비행 사파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노이까지 4~5시간, 다시 하노이에서 5~6시간을 이동해야 다다를 수 있다. 체력 관리가 필수인 여정에서 먼저 결정한 건 베트남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다. 스카이팀 소속 회원사이자 베트남 국영 항공사로서의 이점, 인천-베트남 내 취항 도시 전 구간을 매일 운항하는 스케줄, 2024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시 운항 항공사 2위에 이름을 올린 점은 여행에 수반되는 잡다한 고민거리를 단숨에 해결해줬다. 직접 경험한 서비스들은 만족감을 배가시켰다. 따뜻한 야채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준 공항 라운지, 기내 곳곳에 적힌 베트남어가 주는 낯선 설렘, 어느 곳에 앉아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1-2-1 좌석 배열, 무엇보다 기내에서 맛본 비빔밥은 살면서(?) 먹은 것 중 최고였다. 전채 요리와 과일 디저트는 과연 '미식의 나라'라는 수식에 걸맞은 퀄리티를 보여줬다. 식사를 마친 뒤 다리를 쭉 뻗고 누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쓴 채 극장에서 놓친 최신 영화를 보다 보니 도착지에 가까워지는 비행이 아쉬운 마음마저 들었다. 후에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베트남항공의 무료 애드온 서비스다. 한국-베트남 항공권을 구매하면 무료로 베트남 국내선 1구간을 추가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 인천-하노이 운행과 동일한 요금에 다낭을 경유지로 추가할 수 있는 것. 단, 국제선 예약 시 추가를 원하는 구간까지 함께 예약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노이나 호찌민 경유 시 런던, 파리, 시드니 등 주요 장거리 목적지도 합리적인 금액에 예약할 수 있다는 꿀팁도 얻었다.

다시 돌아올게, 사파 환대와 친절을 양껏 받은 비행 끝에 도착한 하노이에선 본격 사파 여정이 시작됐다. 무심코 바라본 차창 밖 풍경이 차츰 변할 때마다 꼬박 6시간을 달려온 피로가 잊혔다. 노란 벽에 나무 문을 단 프랑스풍 집들은 베트남 전통 모자 '논라'를 쓴 사람들과 어우러졌고, 도로에 줄지은 집들은 더위를 식힐 겸 대문을 활짝 열고 있었다. 이틀 내내 열리는 결혼식장은 한밤중에도 떠들썩했다. 한참을 달리니 고도가 높아졌다. 간간이 들른 휴게소 직원들의 생김새와 언어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느새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졌고, 옷가지를 한 겹씩 덧입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 귀가 먹먹해질 쯤 눈앞에 사파가 나타났다. 사파는 베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눈이 내리는 중국 국경 고산지대 마을이다. 해발 1650m의 마을엔 계단식 논농사를 짓는 여러 소수민족이 생활하고 있다. 사파의 하이라이트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판시판이다. 비행기와 버스를 갈아타고, 케이블카의 도움을 받은 뒤 600여 개의 계단을 올라 드디어 해발 3143m 판시판 정상에 도착했다. 잠시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순간만이 이곳이 고산임을 느끼게 해줄 정도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의 연속이었다. 그간의 이동 과정이 아쉬워질 찰나, 구름인지 눈인지 알 수 없는 얼음 알갱이들이 손끝에 잡혔고, 그 너머로 거대한 청동 불상이 등장했다. 시야가 조금씩 트이자 쩐 왕조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빅반젠 사원과 석탑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구름 속에 몸을 숨긴 불상의 장엄함, 부러 고행의 길을 택하며 이 높은 곳에 사원을 지은 이들의 숭고함이 전해져 소박한 새해 기도를 올렸다. 내내 머문 '호텔 드 라 쿠폴-엠 갤러리 사파'에선 여독을 씻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빌 벤슬리가 설계한 호텔은 다양한 색채를 반영한 중정형 구조로 이뤄졌다. 사파의 랜드마크이자 판시판으로 연결되는 사파역과 이어져 어디로든 이동이 쉽다. 온수 풀과 객실 욕조에선 노곤한 몸을 녹일 수 있고, 맛있는 쌀국수를 포함해 아침부터 밤까지 배를 불리는 레스토랑도 잊을 수 없다. 사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같은 풍경으로 나를 위로했다. 롱패딩에 우비를 걸치고 산을 오를 때도, 구름 위에 앉은 듯 식사를 할 때도, 호텔 발코니에서 안개를 바라볼 때도 으레 떠올리던 동남아나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낯설음이 색다른 자극을 줬다. 판시판 아래로 펼쳐진 논을 볼 수 있는 맑은 날을 만날 때까지, 사파에 다시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C**

1 맑은 날 볼 수 있는 사파의 계단식 논 전경. 2 풀 플랫 레그룸을 자랑하는 베트남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3 '신선놀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호텔 드 라 쿠폴-엠 갤러리 사파.





art designer KIM JI WON/photo by VIETNAM AIRLINES/cooperation VIETNAM AIRLINES

WHAT'S HOT!

푸른 뱀의 해를 여는 1월의 패션 뉴스. ASSISTANT EDITOR **KANG AH HYOUNG**



루이 비통 마법의 회전목마 어드벤처 캠페인
마법의 회전 목마를 주제로, 메종의 아이코닉 가죽 제품부터 파인 주얼리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선보였다. 문의 3232-1854



스와로브스키 아시안 심벌 스네이크 주얼리
특별한 새해 선물을 찾는다면 눈여겨볼 것. 곡선과 꼬임으로 뱀의 유연한 실루엣을 표현했다. 문의 1522-9065



알라이아 2025 S/S 컬렉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최초의 패션쇼. 미술관의 나선형 복도와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문의 6905-3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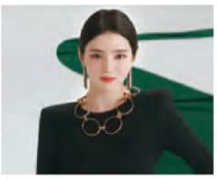
로저 비비에 새해 캠페인 빈티지한 분위기의 기차와 눈 덮인 풍경을 배경으로 공개한 캠페인. 주얼 백과 슈즈가 화려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3448-8125



타사키 데인저 컬렉션 우아한 진주와 가시 디테일이 만나 강인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데인저 컬렉션은 식충 식물과 야생동물의 신비로움에서 영감을 얻었다. 문의 3461-5558



쟈딕앤볼테르 니트 베스트 풀 메디 친환경 소재 인증을 받은 100% 캐시미어 니트의 등장. 사이드 슬릿과 타이 디테일이 특징으로, 미니멀 룩에 제격이다. 문의 2106-3593



부쉐론 <GATES OF WONDERS> 캠페인
메종의 앰배서더 한소희와 알렉사 청, 밀라 알 자흐라니가 참여한 비주얼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문의 705-7493



위크엔드 막스마라 × 세바고 캡슐 미국 슈즈 브랜드 세바고와 3년간 진행하는 협업 중 첫 순서로 선보이는 댄 페니 로퍼. 브라운과 블랙 2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문의 1661-4841



리모와 뉴 시즈널 컬렉션 스칸디나비아 바다와 북유럽 사람들의 해양 정신에서 영감을 얻은 '노티컬'과 '진저' 컬러가 에센셜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다. 문의 1899-8625



로로피아나 페코라 네라 울 희귀한 유색 양이 생산하는 '페코라 네라' 컬러 울은 양모 공급자인 피오나 가드너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탄생시킨 결과물이다. 문의 6200-7796



위블로 빅뱅 유니코 노박 조코비치 테니스계의 레전드 노박 조코비치 헌정 컬렉션. 그의 라켓과 라코스테 셔츠를 에폭시 수지로 재구성한 합성 소재를 베젤에 적용했다. 문의 540-1356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천연 대리석, 오크, 앤티크 골드 미러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와 미니멀한 구조에서 특유의 정제된 우아함을 엿볼 수 있다. 문의 1577-8841



키린 스네이크 보보 펜던트 푸른 뱀의 해를 기념하는 신제품. 13개 루비를 세팅한 뱀 머리의 왕관은 새해를 축복하는 불꽃을 보는 듯하다. 문의 2118-6228



에트로 2025 S/S 크루즈 컬렉션 태양의 주기를 표현해 독보적인 에스닉 무드를 담았다. 블루와 화이트는 하루의 시작, 핑크와 레드는 석양을 나타낸다. 문의 3446-1969



스톤헨지 × 뉴진스 화보 뉴진스가 크로싱, 쉬 컬렉션 등 데일리 주얼리로 제격인 스톤헨지의 베스트 아이템을 착용하고 카메라 앞에 섰다. 문의 772-3073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28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28mm의 미니 사이즈로 출시했다. 지속 가능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한다. 문의 792-4371



아비에무아 뉴 컬렉션 실키한 오간자 블라우스, 보온성이 뛰어난 캐시미어 카디건과 핸드 워머 세트 등으로 구성한 로맨틱 컬렉션을 만나보길. 문의 info@aviemuah.com



자라 × 케이트 모스 컬렉션 케이트 모스의 애장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디스코와 로큰롤 감성을 재해석해 데이&나이트 전방위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췄다. 문의 533-0167



스와치 뱀띠 해 컬렉션 탈피를 거듭하며 새로운 모습을 찾는 뱀을 모티브로 했다. 격려와 변화의 의미를 담았으며, 블루와 골드 2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다. 문의 080-559-1472



몽블랑 뱀의 해 기념 사인 & 심벌 에디션 12간지를 표현한 '레전드 오브 조디악', 신화 속 존재에 경의를 표하는 '저니 어몽 드래곤' 2가지로 구성했다. 문의 1877-5408



몽클레르 그레노블 글로벌 캠페인 스위스 체르마트의 봉우리를 배경으로 역동적인 아웃도어를 선보였다. 뛰어난 기능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겸비했다. 문의 030-8321-0794



불가리 세르펜티 바이퍼 컬렉션 뱀의 머리와 꼬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컬렉션.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슬림한 실루엣이 매력적이다. 문의 6105-2120



골든구스 라이트스타 라인업에 블랙 컬러를 추가했다. 러버솔에 다이아몬드 효과와 헤링본 패턴을 가미하고, 보디에 3D 글리터 로고, 메시 소재를 적용했다. 문의 519-2937



라코스테 × 메종 르마리에 엠브로이더리 컬렉션 깃털과 꽃 장식으로 알려진 메종 르마리에와의 세 번째 협업. 악어 로고를 꽃 자수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550-1160



딘반 갤러리아 명품관 스토어 오픈 온화한 분위기의 내추럴 우드 쇼케이스와 깔끔한 디스플레이, 프라이빗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문의 6905-3361



토즈 여성 2025 프리-스프링 컬렉션 패브릭 같은 나파 가죽, 캐시미어 느낌의 스웨이드, 레더 디테일의 울 개버딘 트렌치 등 정교한 소재 기법이 돋보인다. 문의 3448-8233



미우미우 타이어 스니커즈 자동차 타이어의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었다. 레이스업과 발레리나 2가지 버전으로 출시했고, 그린, 그레이, 옐로 등 컬러가 다양하다. 문의 3218-5320



마르니 뱀의 해 캡슐 컬렉션 꽃을 연상케 하는 뱀 드로잉 티셔츠와 후디, 니트 등 캐주얼한 아이템이 주를 이룬다. 공식 부티크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3277-0298



다미아니 미모사 워치 골드 베젤에 다양한 크기의 스톤을 정교하게 세팅해 개성을 더한다. 블랙, 브라운, 블루, 레드, 그린 등 다채로운 컬러 스트랩을 갖췄다. 문의 515-1924



디젤 2025 프리 스프링 컬렉션 지퍼를 열면 실버 메탈릭 레이어가 드러나는 톱과 스커트, 해체한 테일러링 등 글렌 마틴스 특유의 과감한 커팅이 돋보인다. 문의 515-8770

art designer KIM JI WON

WHAT'S HOT!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의 뷰티 뉴스. ASSISTANT EDITOR **KANG DA SOL**



이솝 겨울 스킨케어 제안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이매큘레이트 페이셜 토닉'과 비타민 C가 풍부한 '루센트 페이셜 컨센트레이트'를 추천한다. 문의 080-860-8400



불가리 알레그라 아트 오브 리빙 컬렉션 캔들 상큼한 '리바 솔라레', 가드니아와 바닐라가 어우러진 '바치아미', 장미&라즈베리 향 '피오리 다모레' 3종을 국내 첫 출시했다. 문의 1544-6294



샤크 플렉스타일 에어 스타일러 론칭 이벤트 드라이·스타일링이 동시에 가능한 헤어 스타일러 론칭 이벤트에 브랜드 모델 한소희가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문의 1644-9245



랩 1899 레드 진생 콜라겐 핸드크림&바디로션 기획세트 선물로 제격인 핸드크림과 보디로션 세트. 주름과 보습에 좋은 '진세닉베리어™' 성분을 담았다. 문의 080-710-2304



다이슨 에어랩 i.d™ 멀티 스타일러 앤 드라이어 앱으로 개인 맞춤형 컬 모드를 설정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헤어 스타일러를 새해 선물로 추천한다. 문의 1588-4253



에버셀 셀 유스 앰플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안티에이징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 20겹 히알루론산 리포솜 등을 담은 앰플을 출시한다. 문의 1544-6294



비요크 앤 베리스 '피얄쇠' 물과 비누 향을 연상시키는 암브레트 시드와 머스크 향을 담은 핸드&보디 제품과 향수, 홈 프래그런스는 리퀴드 퍼퓸바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00-5700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오일 식물성 오일을 담아 수분과 영양을 부여하는 클렌징 오일. 올리브영 어워즈 클렌징 부문 4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탁월한 제품력을 입증했다. 문의 6013-0855



나스 아모르 컬렉션 레드와 핑크 하트 패키지가 시선을 강탈하는 메이크업 컬렉션. 립스틱, 아이섀도, 블러셔 등으로 구성되며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문의 080-564-7700



캘빈클라인 씨케이원 EDT 세트 밝은 시트러스와 따뜻한 머스크가 어우러진 프레시한 씨케이원 향의 'EDT 100ml&샤워 젤 100ml', 'EDT 200ml &50ml' 2가지로 구성. 문의 080-850-0708



라부르켓 홈 프래그런스 비건 포뮬러 액상에 천연 라탄 스틱을 꽂은 디퓨저와 유기농 코튼으로 제작된 심지를 적용한 캔들로 향기롭게 공간을 채워보자. 문의 1644-4490



차앤맘 × 뽀로로 컬래버 기획세트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뽀롱뽀롱 뽀로로' 캐릭터와 협업한 세트. 로션·크림·헤어&보디워시 3종과 한정판 멀티 가운을 담았다. 문의 1666-5754



메디힐 하이퍼 콜라겐 마스크 콜라겐 앰플 한 통을 압축해 만든 고기능성 겔 시트 마스크는 흡수 시간을 단축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선사한다. 문의 080-860-8400



클라랑스 원-스텝 젠틀 엑스폴리에이팅 클렌저 젤 텍스처의 세안제는 물에 닿으면 거품으로 변해 메이크업 잔여물과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각질 케어까지 돕는다. 문의 080-542-9052



비햅 슬로우차가 에센셜 클렌징밤 고체형 밤에서 오일-에멀션 단계로 바뀌는 제형의 클렌저. 별도의 2차 세안 없이 사용 가능하다. 문의 1600-6056



2025 지방시 꾸뛰르 캡슐 컬렉션 뱀의 해를 기념하여 블랙 파이톤 패턴 패키지를 입은 한정판 립스틱과 코렉팅 파우더, 글로 쿠션을 선보인다. 문의 080-801-9500



더샘 젤리 블러셔 신규 컬러 시나몬 로즈, 더스티 바인, 솔티 베이지, 베이비 파파야, 스타릿 화이트 5가지로, 기존 컬러 라인업 대비 차분한 MLBB 컬러 위주로 구성. 문의 080-080-7500



에르메스 바레니아 퍼퓸드 바디 크림 버터플라이 릴리와 미라클 베리가 조화로운 '바레니아 오 드 퍼퓸'의 매혹적인 향을 그대로 담은 보디 전용 크림. 문의 310-5174



빌리프 2025 신년 에디션 각각 수분 보충, 남성 전용 올인원,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둔 4종 세트. 브랜드 베스트셀러인 수분 탄력 케어 제품들로 구성했다. 문의 080-023-7007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업리프팅 앤 퍼밍 어드밴스드 크림 주름과 탄력, 다크 스폿, 화이트닝 등 8가지 노화 징후를 전방위로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을 제안한다. 문의 080-564-7700



로라 메르시에 럭키 인 러브 컬렉션 사랑과 행운에서 영감받은 빨간 뚜껑과 금색 작약을 새긴 '트랜스루센트 루스 세팅 파우더'와 '블러쉬 컬러 인퓨전-진저'로 구성. 문의 1644-4490



AHC 프리미어 앰플 아이크림 포 페이스 라인 타이트닝 나노-히아좀이 피부에 빠르게 침투하고, 브랜드 독자 성분 '본딩콜라겐 T7'과 펩타이드 실이 처진 피부를 끌올한다. 문의 080-332-0855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더 리치 아이 크림 꺼진 눈가를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칙칙해진 톤을 케어하는 아이 크림.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킨케어 콤플렉스 TFC8®을 적용했다. 문의 6904-0589



쥬스 투 클렌즈 레스레스 폼 클렌저 초미세먼지와 자외선 차단제도 말끔하게 지워내는 클렌징 폼. 과채 착즙 성분과 식물 유래 버터 성분이 들어가 세안 후에도 땅김이 없다. 문의 080-866-7770



모로칸오일 겨울 바디 오일 헤어, 네일, 보디 모든 부위에 사용 가능한 '퓨어 아르간 오일'과 실키하게 흡수되는 스프레이형 '드라이 바디 오일'을 추천한다. 문의 1666-5125



아이소이 올세라 탄력 세럼 올리브오일, 비건 콜라겐의 시너지 효과가 빠른 탄력 개선을 돕는 고기능성 세럼. 진정에 좋은 병풀 솔루션을 적용해 민감 피부에도 부담 없다. 문의 1800-9100



마비스 홀리데이 파우치 지오메트릭 패턴을 담은 자카르 파우치. 홀리데이 시즌에 어울리는 컬러 레드와 블루 2가지를 새롭게 출시한다. 문의 080-850-1227



더페이스샵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탄력을 개선하는 스킨케어 성분 바쿠치올을 함유한 비건 쿠션 파데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탱글한 광채를 연출해준다. 문의 080-023-7007



메종 마르지엘라 프래그런스 레플리카 애프터눈 딜라이트 EDT 풍부한 마들렌 어코드&바닐라에 샌들우드·머스크가 가미돼 따뜻한 페이스트리를 연상시키는 향수를 출시한다. 문의 080-363-5454



미스 디올 솔리드 퍼퓸 컬렉션 풍성한 플로럴 부케 향 '미스 디올 퍼퓸'을 그대로 담은 고체 타입 향수, '미스 디올 퍼퓸 미니 미스 솔리드 퍼퓸'이 새롭게 추가됐다. 문의 080-342-9500

art designer KIM JI WON

WHAT'S HOT!

한 해의 시작. 매일이 특별한 1월의 라이프스타일 뉴스. ASSISTANT EDITOR **LEE NA RA**



그랜드 하얏트 서울 ×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아이스링크 샤모니 설산과 따뜻한 산장을 모티브로 한 아이스링크.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팝업 스토어도 오픈한다. 문의 797-6953



안다즈 서울 강남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 헤이즐넛 딸기 슈 등 6종의 디저트, 프리미엄 티와 커피, 랍스터 타코와 트러플 구제르 등 4종의 세이보리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문의 2193-1191



샥즈 오픈핏 에어 × 잔망루피 컬래버 에디션 샥즈의 공기 전도 이어폰 '오픈핏 에어'와 잔망루피 파우치, 키링, 스티커 패키지 구성의 협업 에디션을 출시했다. 문의 1661-6373



서울드래곤시티 내추럴 8 스파이 파티룸 최근 재단장해 오픈한 '하이엔드 바' 콘셉트의 파티룸. 바 공간과 파티룸 3개로 구성돼 프라이빗한 파티를 즐길 수 있다. 문의 2223-7000



글렌피딕 34년 셰리 캐스크 피니시 글렌피딕 '타임 시리즈'의 한정판 제품. 셰리 캐스크에서 13년 이상 추가 숙성해 달콤한 오크 피니시가 길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 문의 2152-1600



네스카페 수프리모 커피믹스 2종 리뉴얼 블렌딩한 원두를 종류별로 따로 볶아 최상의 맛과 향을 끌어냈다. 농가와 상생 협력을 통한 책임 재배 원두를 사용한 것이 특징. 문의 080-730-5336



닌자 콤비 올인원 멀티쿠커 에어프라이어, 오븐, 밥솥, 발효 등 12가지 기능을 갖춘 만능 주방 가전. 기기 상단부와 하단부에서 2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문의 1644-9245



파크 하얏트 부산 다이닝룸 시그니처 세트 아일랜드산 굴, 소고기 육회, 버섯 수프, 은대구, 한우 안심, 헤이즐넛 다쿠아즈로 구성된 6코스 디너를 만나보자. 문의 051-990-1300



시몬스 필로우 2종 베개 속 스프링이 안정감 있게 목을 잡아주는 화이버 포켓스프링 필로우와 고밀도 메모리폼의 비스코스프링 원더 필로우. 설 선물로 제안한다. 문의 1899-8182



아만 나이 러트 방콕 2025년 초 개장 예정으로 광활한 나이 러트 공원의 열대 정원에 위치한다. 아만 웰니스 센터를 비롯해 39개의 아만 브랜드 레지던스가 자리 잡는다. 문의 aman.com



화이트 큐브 서울 <무아경> 뉴욕에서 활동 중인 나이지리아계 영국인 화가 투지 아데니 존스의 서울 첫 개인전. 1월 10일부터 2월 22일까지. 문의 0507-1430-9094



포트넘 앤 메이슨 그린티 라인 그린티, 가향 그린티, 재패니즈 센차 총 3종으로 출시돼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새해맞이 소중한 이를 위한 선물로 제격. 문의 310-1548



화요53 청사 에디션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일러스트 작가 박연과 협업한 한정판 에디션. 화요 중 가장 높은 도수인 53도로 단단한 보디감과 풍부한 향의 균형 잡힌 맛이 특징. 문의 3440-8685



로얄살루트 21년 해리스 리드 에디션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 해리스 리드가 블렌드 개발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참여한 21년 에디션을 출시했다. 문의 3466-5700



베리시 홀리데이 에디션 둘만의 파티를 주제로 디자인한 레드&블랙 컬러의 커플 언더웨어와 파자마. 프리미엄 모달 원단을 사용해 착용감이 뛰어나다. 문의 010-8236-0243

art designer KIM JI WON


1

WINTER ISLAND

올겨울 진정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휘닉스 아일랜드로! AE LEE JI YOUNG

여행의 키워드로 '웰니스'가 유행한 건 꽤 오래전부터다. 하지만 실제 여행에서 웰니스를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올겨울에는 호흡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느껴지는 장소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약간의 신체적 활동과 심신의 평안함이 유지되는 웰니스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휘닉스 아일랜드를 목적지로 하는 건 어떨까. 휘닉스 아일랜드는 제주의 섭지코지라는 거대한 자연 정원을 품고 있어 사계절 자연이 선사하는 멋진 풍광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리조트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 투숙객 비율이 70% 이상인 가족 친화형 리조트로, 겨울 여행을 즐기기 적합한 곳이다. 당연하게도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수온을 35°C 이상으로 유지해 겨울에도 수영이 가능한 실내외 사계절 온수풀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 실내에는 놀이 시설 키즈 플레이 라운지도 운영한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2회에 걸쳐 레이저 빔과 음악이 나오며 신나게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나이트 키즈 타임을 진행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선 입 소문난 핫 플레이스다. 최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키즈 왕국, 키즈 플레이 코인'으로 투숙객 중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1인당 2코인씩 주어 조식 뷔페, 키즈 플레이 라운지 프로그램, 유민 아르누보 뮤지엄, 객실 레이트 체크아웃 등 단지 내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른들은 웰니스 여행을 만끽한다. 사우나와 스파를 하며 몸이 늘어지도록 개운한 시간을 보내거나 뮤지엄을 둘러보고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올겨울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여유와 낭만이 있는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웰니스 여행의 무한한 행복감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2


3

1 실내외 수영장을 갖춘 사계절 온수풀. **2** 키즈 파티가 열리는 키즈 플레이 라운지. **3** 유아 가운과 선베드도 무료 대여해준다.



시어링 부츠 Moncler.

반짝이는 2025년을 위해, 1월의 별자리 운세.

✦ CAPRICORN ✦

염소자리 12/22~1/20

귀차니즘과 컨디션 난조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은지. 피곤하겠지만 당신이 세상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 일단 움직인다면 가속이 붙는 건 시간문제. 단, 커리어에 있어선 신중하자.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입지를 흔들 만한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뜨거운 열정을 품은 염소자리는 한번 마음을 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올인하기 때문에 연애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싱글은 믿을 만한 조언을 주는 상대를 찾아보자. 다만 마음 없는 상대에게 오해할 만한 행동은 금물. 주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 커플도 둘만의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위 평판에 신경 써야 할 때.

Lucky Item 퍼 아이템

AQUARIUS 물병자리 1/21~2/20

솔직함이 매력인 것도 다 때가 있는 법. 적절한 순간이 아니라면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지 말자. 동업이나 협업을 하고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싱글은 당신을 돕는답시고 나서는 친구들이 방해 요소다. 용기 내어 직접 다가가는 것을 추천. 커플이라면 상대의 손에 살포시 영양제를 쥐여주자.

Lucky Item 외장 메모리

PISCES 물고기자리 2/21~3/20

유독 업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도맡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자. 미라클 모닝 루틴으로 당신의 시간을 사수하는 것도 방법.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싱글은 회사에서 썸남을 만나게 된다. 커플은 사소한 다툼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서로에게 예민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상책.

Lucky Item 초콜릿 케이크

ARIES 양자리 3/21~4/20

당신의 촉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시기니 안 좋은 느낌이 든다면 일단 잠깐 멈춰보자. 월초에 세운 야심 찬 계획 대비 이룬 게 없다면? 몸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싱글은 활동 반경을 넓혀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커플은 이번만큼은 당신의 흑역사를 수없이 목격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새겨듣자.

Lucky Item 어그 부츠

TAURUS 황소자리 4/21~5/20

직장에서 마니또가 생길 수도. 당신과 정반대 스타일로 초반엔 부담스럽겠지만, 흑심 없는 사람이다.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자. 싱글은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과 인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커플은 애정 표현이 더욱 과감해질 기세.

Lucky Item 수영복

GEMINI 쌍둥이자리 5/21~6/21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뒤집어엎지 말자. 이직을 계획 중이라면 당신의 노하우를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 싱글은 연애에, 커플은 결혼에 골인하게 될 수도? 소소하게 기념할 만한 날을 잡아 연락해보자. 누구보다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될 것.

Lucky Item 무선 이어폰

CANCER 게자리 6/22~7/22

방에 틀어박혀 있는 당신을 구원할 즐거운 모임이 생긴다. 이번 달은 횡재수가 있으니 복권 당첨을 노려보자. 싱글은 친구의 결혼식이나 친척의 경조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 친구에게 반하거나, 연상의 누군가에게 깜짝 고백을 받게 될 운명! 커플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자.

Lucky Item 남색 지갑

LEO 사자자리 7/23~8/23

저조한 컨디션을 일상에서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품 목욕이나 반신욕, 아로마 마사지로 긴장을 풀자. 커리어에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싱글은 모임에서 스파크가 튀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 커플은 상대가 당신이 자기 편이란 당연한 사실에 목말라하니 애정 표현을 아끼지 말자.

Lucky Item 헤어핀

VIRGO 처녀자리 8/24~9/23

지난달의 고생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다. 긍정적인 인사 평가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지만 그만큼 당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아지니 팀 내 다툼이나 TF팀에 소환될 수도. 싱글은 위험한 스캔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커플은 상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자.

Lucky Item 알 공예품

LIBRA 천칭자리 9/24~10/23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고 있진 않나? 느리지만 기회는 확실하게 오고 있다. 당신의 페이스를 잃지 말고 밀고 나가자. 싱글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운명의 상대가 있으니 주위를 둘러보자. 커플은 현실적인 문제로 마음고생을 할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

Lucky Item 휴대용 고데기

SCORPIO 전갈자리 10/24~11/22

형제자매와의 트러블이 예상되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길. 설상가상 작은 일정 변동으로 스트레스 지수는 이미 한계치니 미리미리 할 일을 해치우자. 다만 바쁘더라도 윗사람의 제안은 거절하지 말 것. 싱글은 짧은 만남에서 마음을 전부 내어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커플은 둘만의 돈독한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Lucky Item 말차 프라푸치노

SAGITTARIUS 사수자리 11/23~12/21

매사에 괜한 신경질을 부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 감정 표출의 결과는 온전히 당신 몫이다. 한동안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도 좋다. 커리어에선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계기가 생긴다. 싱글은 짝사랑의 결실을 보기 좋은 시기. 커플은 둘만의 시간이 줄어 상대가 서운함을 표현할 수도. 때론 아이를 다루듯 달래주는 것도 괜찮다. C

Lucky Item 생수

assistant editor LEE NA RA/art designer JIN NAM HYUK/advice LEE MIN A

